

碩士學位論文

漢譯 佛典의 語音 研究

— 《一切經音義》를 中心으로



濟州大學校 大學院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中語中文學科

金 琮 植

2000年 2月

漢譯 佛典의 語音 研究

— 《一切經音義》를 中心으로

指導教授 安 在 哲

金 琮 植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金琮植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委 員

委 員

濟州大學校 大學院

2000年 2月

目 次

* 國文抄錄

I. 序論

1. 研究 目的
2. 研究 範圍와 方法

II. 佛典의 流入과 受容

III. 佛典音의 分類

1. 梵音과 漢語
2. 圓明字輪과 涅槃經根本字

IV. 佛典音과 中國音韻學

1. 反切
2. 字母
3. 等韻圖
4. 聲調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V. 《一切經音義》

1. 板本과 作者
2. 中國語學史上的 位置
3. 音韻體系
4. 特徵

VI. 結論

- * 參考文獻
- * 中文提要
- * 附錄

國文抄錄

漢譯 佛典이 中國音韻學史에 차지하는 가장 큰 의의는 音韻에 끼친 영향과 音韻資料로써의 가치일 것이다. 中國音韻學은 後漢때 불교가 流入되면서 梵語에 의해 촉진된 하나의 학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漢譯 佛典은 漢語의 어학적인 면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漢語 발전과 변화에도 많은 기여를 한 것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佛典 語音은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바 그것에 대한 연구는 하나의 의미 있는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불교 語音의 중요성과 그 특징을 보여주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漢譯 佛典의 語音이 주로 불교 경전의 翻譯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불교 경전의 譯經史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중국의 譯經史는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총 2000여 종에 6000여 권에 달하는 佛典을 翻譯해 넘으로써 中國文化史에 길이 빛날 업적을 쌓게 되며 그 규모와 영향 또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東漢과 西晉 시기에는 불교 翻譯의 경험을 축적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며 불교의 언어와 한역 경전의 독특한 언어를 최초로 창조하게 되었으며, 魏晉南北朝 시기에는 佛典의 역경이 보다 큰 규모로 활발히 발전되고, 隋唐宋 시기에는 佛典의 翻譯 활동이 최고의 경지에 달하여 모든 經·論의 翻譯이 거의 다 완성되었다.

漢譯 佛典 語音이 漢語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큰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도의 悉曇學(聲明論)이 漢語의 語音 계통에 준

영향인데 그것은 漢語의 발전과 변화를 크게 촉진시키는데서 관건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悉曇學의 전래에 의하여 형성된 漢語의 聲調, 字母, 反切, 等韻圖 등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줄곧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反切 및 四聲은 고대 印度의 摩多와 體文을 합하여 글자를 이룬 梵語學이 流入되면서, 譯經 또는 讀誦의 필요에 의해 중국학자들이 응용한 결과이며, 字母 또한 守溫이 30字母를 정리한 후 중국에 없는 語音은 생략하고 인도에는 없지만 중국에 있는 語音을 부가하여 36字母를 만들어 중국의 모든 음을 통합한 것이며 等韻圖 역시 佛典에서 淵源을 찾을 수 있다. 玄應은 《一切經音義》 25卷을 편찬하여 唐初의 音을 망라하였으며, 그후 譯經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經·論이 많아짐으로, 慧琳이 先人이지은 音義書를 종합하여 《一切經音義》 100卷을 편찬하고 그후 수록되지 않은 것이 나타나서 希麟이 《續一切經音義》 10권을 편찬하기에 이르렀다. 실로 悉曇學의 전래가 없었더라면 漢語의 그러한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音義書는 音韻學者의 귀중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外典經學의 모든 책이 인용되어 있고, 古經學을 연구하는 학자에게도 귀중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여기에서 불교의 語音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I. 序論

1. 研究目的

世界 여러 宗教의 聖典 翻譯은 人類 文化史의 중요한 유산이며, 그것은 직접적으로는 각 종교의 전파를 이끌었고, 간접적으로는 인류文化에 끼친 영향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佛經 翻譯은 東漢 桓帝 建和 2년(AD148) 安息國에서 들어온 安世高¹⁾로 부터 시작하여 북송 仁宗 景祐 4년(AD1037) 譯場이 정돈 될 때까지 약 889년 동안 192인에 의해 譯出된 佛典²⁾이 무려 1,333부 5,081권³⁾이나 된다고 하니 佛典의 譯經 事業이야말로 그 역사의 면면함과 규모의 방대함과 그 성과의 풍부함과, 조성한 영향의 거대함을 알 수 있다.

東漢 초기 永平 10년(67), 중국에 전래되어 初譯된 佛典은 인도 梵本을 직접 譯出해낸 것이 아니라 서역의 粟特語, 和闐語, 吐火羅語로 된 佛經을 胡本이라 하여 翻譯하였으며, 初傳 시기에는 格義化⁴⁾의 과정을 거쳐 중국전통文化에 침투하기 시작하였고 점차적으로 중국전통文化와 융합되어 철학, 사상, 예술, 문학 언어 등에 미친 영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고유의 사상과 융합·항쟁하면서 중국 독자적인 불교를 형성시킨 원동력이 譯經인 것이며, 중국 佛敎史는 “翻譯의

1) 安은 出身國名, 世高는 字, 名은 淸.

2) 佛典; 불교의 聖典으로 經·律·論 三藏을 총칭하는 말

3) 魏承恩, 《中國佛敎論稿》, 上海人民出版社, 1992, p 38.

4) 格義化: 불교의 사상을 기존의 중국 사상의 틀에 맞추어 翻譯하려는 태도.

(예: 空을 無로, 輪回을 生死로, 涅槃을 無爲로)

歷史”라 할만큼 佛典의 漢譯은 큰 의미를 갖는다 이에 譯經에 대한 고찰은 더욱 의의가 있는 것이다.

중국역사상 音韻學은 두 번의 대변화를 가져왔는데 그 중 하나는 불교의 영향이다. 鎌田茂雄은 불교의 영향으로 중국 音韻學의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印度의 불교경전이 漢語로 翻譯되기 시작되면서 중국의 순수한 고전語法과는 다른 형태로 바뀌었다. 漢譯 경전은 그 語法, 語音, 語法에서 후한, 삼국, 六朝 隋唐의 中古 한어 시대에 걸쳐 중국 語法에 하나의 자극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불교를 매개로 한 인도 梵語學의 유입으로 인해 중국어학 등에 일대변화들이 있었고 19세기이래 서양의 선교사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어학연구는 또 한번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⁵⁾.

이는 불교의 영향이 컸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周法高는 佛敎가 중국 音韻學에 끼친 영향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요약하였다.

至佛敎對中國音韻學之影響，凡有四端。一曰反切之興起與韻書之製作，二曰四聲論之流行，三曰字母之興起，四曰等韻圖之創製。

(불교가 중국 音韻學에 끼친 영향은 무릇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反切의 흥기와 韻書의 제작, 둘째로는 四聲論의 유행, 셋째는 字母의 興起이고, 네 번째는 等韻圖의 창제이다.)⁶⁾

이것은 중국의 音韻學上 反切의 注音 방법, 四聲의 명칭, 韻書의 체제, 字母와 等韻圖에 이르기까지 그 이론의 근거는 직접 또는 간

5) 鎌田茂雄著·章輝玉譯; 《中國佛敎史》, 장승, 1997.

6) 周法高; 《中國語文論叢》, 〈佛敎東傳對中國音韻學之影響〉, p.31

집으로 佛敎의 수입에 의한 영향이 많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佛典의 漢譯이 해가 지날수록 성행하고 있었으나 그 翻譯 속에는 많은 音寫語가 있었다. 또 시대의 경과에 따라 漢譯된 말에도 原義가 불확실한 것이 생기게 되었다. 이에 종래의 漢譯 佛典에 나타난 音寫語나 난해한 字句를 설명하는 사전의 필요성을 통감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7세기에 玄奘이 소위 新譯을 제창함으로써 특히 현저하게 되었다. 慧琳의 《一切經音義》에서는 종래의 譯語를 바꾸고, 音寫語라 하더라도 중기 인도어적인 音訓으로부터 묘사된 것을 산스크리트로부터의 音寫로 고치는 등의 개혁을 단행했던 것이다.

그 例로 《一切經音義》중에는 많은 곳에 梵文 譯名의 착오를 밝혀 正言, 其言, 其正云, 正梵語, 梵語正云, 正云, 梵語……訛也 등의 용어를 써서 고쳤으며 이외에도 舊譯의 잘못된 곳을 고쳤다. 용어의 注釋은 《玄應音義》7)가 百數十種, 《慧琳音義》8)가 幾百種의 群籍을 인용 注釋해 놓았다.

慧琳의 《一切經音義》에는 1300개의 佛典에 걸쳐 난해한 字句를 모아 중국 音韻學의 전통에 따라 反切法을 이용하여 가능한 한 충실하게 원음을 표시하는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慧琳의 《一切經音義》一卷 25張(《大般若波羅密經》第八卷)에 나오는 《踰繕那》(yojana: 거리의 단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上羊朱反繕音善古云由句或云由延或云踰闍那皆梵語訛略也正云
踰繕那上古聖王軍行一日程也,……

(위에 있는 글자 [踰]는 羊朱 [의] 反, 繕의 음은 善 [과 같다]. 옛날에 由句라 하거나 由延이라 하거나 혹은 踰闍那라

7) 玄應撰 《一切經音義》의 略稱.

8) 慧琳撰 《一切經音義》의 略稱

말한 것은 모두 梵語의 와전이며 踰繕那라 하는 것이 옳다. 아주 옛날에 髙王의 군대가 하루 행군 거리이다……)

이 책은 당시의 사전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며 이밖에 唐 시대의 文字의 音韻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되며 더 나아가 당시의 語音, 語彙, 語法 및 불교 文化의 실태까지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漢譯 경전이 중국어학사와 관련 연구 대상으로 된 일은 일부 연구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문제 의식에조차 오르지 않았다. 불교학 쪽에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는 역시 돌아보지 않았다.

중국 불교를 연구하는 데는 중국 文化와 사상에 대한 이해가 당연히 필요하듯 漢譯 佛典의 어학적 연구를 통해 경전해석 상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으며 문장의 정확한 뜻을 파악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논문은 漢譯 佛典에 대해 佛典의 音訓 方면의 연구는 중국 및 泰西의 音韻學者 몇몇 사람이 있을 정도이고 대개 서양의 音韻學者에게 우리의 보고를 개방하여 버리는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音韻學 方면에서 불교의 특수 연구에 뜻을 둔다면 거기에 수많은 미개척 분야가 있을 것이며 이 방면에 연구하는 학자가 속출하기는 바라면서 音韻學이 과거에 불교와 어떠한 관계를 이루어 왔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漢譯 佛典 언어에 대한 역사적 분석, 語源 문제 등을 연구, 규명함으로써 불교교리를 보다 깊이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며 당시의 佛敎 文化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研究範圍와 方法

본 논문의 연구 범위는 漢譯된 佛典의 語音면에 한정되며 語彙, 語法면 등은 논의에 필요한 기초적인 예문 이외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이를 위해 慧琳의 《一切經音義》를 중심으로 하여 語音方面에 치중하여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각종 문헌 중에 있는 불교가 중국 音韻學에 끼친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토론 범위를 잡았다.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연구 범위 내에서 정한 慧琳의 《一切經音義》의 語音 자료를 참고하여 漢譯 佛典에 산발적으로 나타난 字 母들을 수합하여 三十六字母와 비교 검토하고 또한 佛典에 대한 音韻學, 語彙學, 等韻學, 訓詁學 등 다각적으로 기술하는 방법을 취한다.

이러한 연구 범위와 방법을 바탕으로 각 장, 절에서 이루게 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중국에 전래된 佛典은 어떤 계획 아래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무질서하게 산발적으로 뒤섞여진 채 중국에 들어왔다. 이를 수용, 전개하는 과정을 略述한다.

제3장에는 佛典에 나타나는 語音 成分(字母)을 收合하여 분석함으로써 梵音을 漢語로 번역한 譯音을 파악하여 佛典 語音 연구에 명확을 기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佛典의 語音이 中國語學史에 끼친 영향을 考察하므로, 漢譯 佛典이 中國音韻學 발전에 공헌한 사실이 밝혀질 것이다.

제5장에서는 佛典을 漢譯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무질서한 불교 용어들을 慧琳에 의하여 편찬된 것이 《一切經音義》이다. 그 내용과

체제 그리고 특징을 증거로 밝힘으로써 佛典의 語音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제6장의 결론에서는 본론에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거의 공백 상태에 있는 漢譯 불교 경전의 언어에 대한 역사적 분석이라든가 異語同義 어휘의 언어 문제, 古漢語와 近代 漢語의 교차 상황 연구 등, 또한 당시 불교 문화의 상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리라 기대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문헌은 黃泮伯의 慧琳 《一切經音義》의 聲類考와 周法高의 玄應 《一切經音義》反切考 및 小學書 訓詁書 등을 참고하였으며 중국 불교사도 한 몫 했음을 부기해 둔다.



II. 佛典의 流入과 受容

불교의 傳播는 西曆 紀元前 印度 최초 대제국인 Maurya 王朝(孔雀 BC 317-BC180경 Candragupta가 創業)가 건설되어 제3대 Aśoka왕(阿育)이 열렬한 종교적 신념으로 불교 弘布를 위해 傳道使 파견으로 국경을 넘어 異民族에게까지 전파될 계기를 이루었다.

중국대륙에서 건국된 前漢(BC 208-9)은 북방 민족인 匈奴에 대항 하고자 西域(중국의 西方, 俠意로 중앙 아세아 高原의 數十政權)을 경영함으로부터 Silks road가 개척되어 東西文化의 교류가 시작되 었는데, 당시 서역 지방에서는 Persia 북방에 Iran系의 安息國 (Parthia)이나 인도 西北 Alexendros 大帝의 영향을 받은 Greece 계통의 大夏(Bactria) 大月氏(Tukhēra 月氏라 불림)등이 건국하고 있었고, 중국으로 중앙 아세아나 인도로 또는 멀리 Rome까지 광대 한 지역에 걸치는 교통이 왕성했었음으로 서역文化는 고도로 발달 했었고 그 일대의 여러 민족에게 불교는 많이 신앙되었다.

중국 漢朝는 이들 서역과 政治, 軍事, 通商上 밀접하게 교섭하면 서 이들 文化가 東傳하여 중국으로 유입하니 불교도 자연히 인도로 부터 Himalya 산맥의 서부를 넘고 서역 지방을 거쳐 중국 본토에 들어 왔다. 이를 北傳이라 한다.

한편 Ceylon까지 廣大해지고 인도양의 해안선으로부터 南方에 이 른 불교 布教線도 2세기 이후 Rome人이 개발한 해상 교통과 南海 의 무역로를 이용하여 남방 여러 곳에 전개되었고, 이 남방 해로로 부터도 중국 대륙에 불교가 상륙하니 康僧會(280 入寂)가 南都建業 (南京)에 들어옴(247)이 江南弘法의 실마리로 되었다. 이를 南傳이 라고 한다.

중국 불교의 輪廓을 알기 위해 우선적으로 중국 불교의 시대 구분을 살펴보면 중국 불교는 後漢初(서기 1세기)경부터 시작된다고 추정된다. 인도·서역의 大月氏國이 큰 세력을 떨치던 시대로부터 三國(魏, 吳, 蜀)·西晉·南北朝(南→宋·齊·梁·陳, 北→魏가 동서로, 東魏는 北齊, 西魏는 北周)·隋·唐·五代(梁·唐·晉·漢·周, 보통 後者를 머리에 둠)·宋·元·明·淸을 거쳐 오늘에 이르는 2000년 동안의 역사가 전개되었다. 이는 보통 아래와 같이 六期로 나누어져 그 變遷을 파악하고 있다⁹⁾.

- ① 初期傳來時代(傳譯 시대)→漢代~東晉·五胡興亡
(AD.1~400경)
- ② 傳播時代(研究·學派)→南北朝 終了(400~600경)
- ③ 發展時代(建設·宗派·折衷시대)→隋·唐(600~900경)
- ④ 普及時代(繼承·實行·祖述시대)→明末(900~1600경)
- ⑤ 衰微時代(1600~1900경) 淸末
- ⑥ 現代(1900년 이후) 民國 혁명후

이러한 변천에 의해 중국에서의 불교 보급 지역 범위를 살펴보면, 서역을 거쳐 東漸된 불교는 그 지방 여러 부족이 信行하던 것으로서 중국에 波及된 것이다. 漢의 수도 洛陽을 중심으로 黃河 유역에 보급되었고 南方의 수도 建業(南京)을 중심으로 揚子江 유역에 보급되었으며, 海路로부터 廣州(廣東)에 상륙한 불교가 南支·北支로 북진하는 코스도 개척되어 중국 전지역에서 불교는 信奉되었고 나아가 중국 주권이 미치고 중국文化가 이르는 곳은 어디나 佛寺를 볼 수 있고 佛陀信仰이 流布되었다.

중국 불교의 내용과 가치를 살펴보면, 중국 불교는 세계 어느 나

9) 藤堂共俊著, 車次錫譯, 《中國佛教史》, 서울, 대원정사, 1992, p.17

라 불교와도 비교가 안 되는 풍부한 문헌자료를 갖고 있다. 2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漢譯되기 시작한 불교 문헌은 題目, 經名, 序文, 刊記등을 갖춘 經冊으로 이루어져 一切經(大藏經)이라는 龐大한 문헌이 이루어졌고 注狀本疏, 歷史傳記, 語錄纂集 등도 매우 많다. 따라서 佛敎專門의 승려는 각 시대의 高僧傳에 기록된 것만 모아도 커다란 인물사전을 이룰 정도이다. 또 그 造營物인 寺院殿堂·佛像佛塔·石窟碑林 등도 莊嚴廣大하고 多數이다. 이러한 중국 불교의 文獻·人物造營物은 그 내용 가치상 보아도 세계적으로 一流를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불교는 後漢初에서 唐末宋初까지 약 1,000년 동안 계속해서 중국에 전래되었지만, 그 전래 접수된 초기는 漢·三國·兩晉을 걸친 400년 동안이다. 중앙 아시아 불교가 자연스럽게 중국으로 전파되었으므로 그 최초 전래 年時를 알기 어려워 여러 학설이 있다. 전설적인 전래 설로는 ① 西周穆王時說, ② 공자가 불교를 알고 있었다는 說, ③ 阿育王 佛塔 建立說, ④ 室利房傳來說, ⑤ 前漢武帝金人禮拜說, ⑥ 劉向佛典을 보았다는 說이 있으며 일반화되고 史料로써 신빙성이 있는 것은 ⑦ 伊存의 불교 口授說, ⑧ 後漢明帝求法說, ⑨ 楚王英의 奉佛說 등을 들 수 있는데¹⁰⁾, 후자의 諸說을 살펴보면;

伊存의 佛敎口授說; 五代の 晉대 陳壽가 지은 《三國志》 “魏書西戎傳”에 大月氏王의 使者 伊存이 前漢末 哀帝의 元壽 元年 (BC. 2년)에 浮屠經(佛經)을 博士 弟子 景廬에게 口授했다는 說.

(史料로서의 신빙성도 높아서 佛敎傳來에 관한 가장 오랜 資料로 갖는 가치는 매우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¹¹⁾)

後漢明帝求法說; 《後漢書》(南朝宋 范曄撰 120卷) 西域傳에

10) 鎌田茂雄著·鄭舜日譯, 《中國佛敎史》, 經書院, 1996.

11) 野上俊靜外; 《中國佛敎史》, 원광대 출판사, 1994

후한 明帝가 꿈에 金人을 보고 그 金人이 부처인 것을 알아 使節을 西域에 보내 불법을 구하도록 하였다. 도중에서 白馬에 經像을 싣고 오는 迦葉摩騰·竺法蘭 두 사람과 만나 永平 10년(67)에 함께 수도로 돌아 왔다. 明帝는 크게 기뻐하며 國都 洛陽 문 밖에 白馬寺를 세워 그들을 머물도록 하였다.

楚王英의 奉佛說; 《後漢書》 卷72 楚王英傳에 明帝의 異母弟인 英(?~71)은 永平 8년(65년) 皇帝로부터 異心이 있다고 의심을 받았는데, 이 일에 관해 明帝가 英에게 내린 勅書中에 “英은 평상시 불교를 존경하여 沙門 우바새(優婆塞)를 供養하고 그 側近에 方士도 함께 있었음”이란 說.

위 諸說을 종합해 보면, 불교는 前漢末期 즉 西曆 紀元前後頃에 점차적으로 중국인의 눈에 띄게 되었고, 서기 1세기경에는 長安·洛陽에서부터 楚王英의 封地인 彭城(강소성)에 이르기까지 發達했고, 後漢의 왕족도 歸依했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때 전래된 불교는 인도 불교와는 다소 다른 西域 불교이다. 실크로드 개통에 즈음하여 서역 지방은 大乘佛敎와 小乘佛敎가 함께 행해지고 있었지만, 서역 지방의 불교는 인도 불교 그대로가 아닌 서역 지방의 文化와 地方色이 가미된 약간 변모된 불교인 것이다. 또한 서역에서 전래된 佛典은 산스크리트어가 아닌 서역의 여러 나라 언어들로 된 경전들이다.

文字와 文化를 중요시하는 중국인들은 그들의 言語와 文字로 불교를 이해하기 위하여 佛典의 漢譯 作業을 시도하였다. 중국에는 外國 使節과 通譯을 담당하는 譯官制度가 周나라 때부터 조정에 설치되었다.¹²⁾ 그러나 외국 서적을 자기네 언어로 翻譯하는 일과 통

12) 藤堂共俊外, 車次錫譯; 前漢書, pp.36~37.

역은 그리 쉽지만은 않았다. 경전 한 글자 한 글자를 독립된 의미를 갖는 表意 文字나 語尾 變化가 없는 漢字로 翻譯하는 작업과 佛經이 지니는 思想的인 내용을 중국이 자랑하는 전통적인 사상이나 文化上에서 찾는 것은 譯經 사업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곤란과 장애를 극복하고 중국인들은 나름대로 중국인의 사상·신앙과 공통되는 면을 매개로 하여 譯經 사업을 시도했다.

중국에서 譯經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후한의 桓帝 이후에 다소 譯經이 행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¹³⁾ 물론 그 이전에도 이름을 알 수 없는 譯經者가 있었을 지도 모르며, 그들이 經文의 단편 혹은 11傳되어 오던 經文을 漢譯한 것으로 생각된다.

불교 漢譯은 엄밀히 따져 불교가 중국에 정착되고 그 基礎를 굳힌 것은 後漢末 佛經이 漢譯됨으로써 비롯된다. 현존하는 漢譯 경전으로 보아 佛典이 전래된 최초의 사실을 찾는다면, 後漢末葉 桓帝(11代 146~167 在位)때에 도래한 安世高와 支婁迦讖¹⁴⁾에 의한 傳譯이라고 지적된다.

安世高는 安息國의 太子로서 父王 사망을 機緣으로 출가해 Abhidharma와 禪經에 達通했었고, 桓帝때로부터 靈帝때까지 22년 동안 즉 建和 2년(148)에 도래하여 建寧 2년(169)까지 佛典 漢譯에 종사하여, 四諦經·轉法輪經·八正道經·安般守意經 등 小乘 經典을 34部 40卷을 譯出했다.¹⁵⁾

支婁迦讖은 安世高보다 조금 늦게 桓帝末頃 洛陽으로 와서 靈帝

13) 鎌田茂雄著, 章輝王譯; 《中國佛敎史·I》, 장승, 1992, p.157.

14) 支讖은, 支는 出身國인 月支 또는 月氏.

15) 《出三藏記集》卷二 大正藏 55卷(安世高 역경수가 《法經錄》에는 35부, 《歷代三寶紀》는 176부, 《仁壽錄》은 32부, 《大唐內典錄》은 172부, 《開元錄》은 96부로 차이를 보임)

때까지 道行般若經·般若三昧經·道楞嚴經·無量清淨平等覺經 등 주로 大乘 經典 13部 27卷을 譯出했다.¹⁶⁾

위 두 사람은 각각 그 출신지에 성행했던 계통 다른 경전을 비교적 동시에 전한 셈이다. 고로 중국인은 大乘과 小乘의 경전을 釋尊한 사람의 가르침으로 受容했었고 大小二乘의 경전 성립이나 역사적 발전 과정 등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였다. 따라서 發足 당시부터 서역에서 信行되었던 大小乘 兩種 經典을 모두 佛陀의 敎說로 受容하게 된 點에 중국 불교의 한 特異性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 다른 지방에서 竺佛朔·安玄·康僧會·支讖 등이 잇따라서 중국으로 왔다.

이러한 譯經의 초기에는 주로 竺·安·支 등의 성을 가진 翻譯자들이 많았는데 이들의 성씨는 그들의 출신국을 나타내는 것으로, 竺이란 天竺으로 인도를 가리키며, 安이란 安息國을, 支는 月氏國을 가리킨다.

佛典의 語文은 주로 梵文, 吐留文, 巴利文, 중앙 아시아의 安息 康居文 古新疆于闐·龜茲文 등이었다. 따라서 이때에는 언어의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西域僧들이 譯經에 종사하였다. 당시의 翻譯자들은 약간의 梵語와 漢語의 文字를 알고 있을 뿐이어서 佛典의 외래어가 中國文字에 미친 영향 등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西晉 懷帝의 永嘉年間(307~312)에 이르러 서역의 帛尸梨密多羅와 龜茲 出身인 佛圖澄, 鳩摩羅什(312~385) 등이 중국에 건너 왔다. 그는 정확적절 유창한 용어로 佛典을 翻譯했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意譯과 補譯語로 중요 교의를 전개하였다.

위와 같이 다양한 지역에서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중국에

16) 《出三藏記集》卷13 大正藏55卷(支婁迦讖 역경수가 《역대삼보기》 21부 63권, 《개원록》 33부 67권 등으로 차이를 보임)

전래된 佛典은 크건 작건 중앙 아세아 착색을 띤 음성을 개재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佛典의 音譯 漢字는 중국음운 자료로서 中國 音韻學에 끼친 영향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크다고 본다.

이어서 翻譯에 보좌하는 중국인이 출현함으로써 梵語나 胡語에 정통한 중국인이 배출되어 悉曇 관계 서적이나 梵漢對照書籍을 예견하는 것으로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인물로 玄奘은 인도에 17년간 체재하여 聲明論을 학습하고 5인도의 방언까지 규명하여 귀국한 후 新譯法을 만들어 내고 佛典 본래의 의미로 保持하기 위해 노력하여 중국 譯經史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玄奘 이후에 義淨, 金剛智, 不空 등이 각기 독자적인 교의를 갖고 譯經에 노력하였다. 이때는 주로 중국인이 翻譯에 종사했으므로 새로운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 있어서 譯經은 後漢 桓帝때(148년) 安息國으로부터 온 安世高가 착수한 것을 시작으로 송의 神宗때(1078년)에 이르기까지 약 천년에 가까운 역사동안 수백 명의 譯經家가 5천여 권에 달하는 三藏을 翻譯하였다.

이러한 譯經은 梁代의 眞諦三藏(499~569)이 권력에 좌우됨이 없이 유망하면서 攝大乘論·大乘起信論등을 譯出한 것처럼 한 譯經僧의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서 완성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제왕의 보호 아래 국가적인 사업으로 이룩되는 경우가 많았다.¹⁷⁾ 그 예로 鳩摩羅什은 後秦 高祖의 國師가 되어, 長安의 大慈恩寺를 짓고 그곳에 翻譯院을 설립하였으며, 국가적인 규모로 주로 유가행과의 경전을 翻譯했다. 또한 당 中宗때 義淨(635~713)은 長安의 大天福寺의 翻譯院에서 翻譯에 주력하였다. 菩提流志(572~627)는 황

17) 增谷文雄; 《佛教概論》, 현암사, p.309.

제의 초대를 받아 洛陽의 궁전에 기거했으며, 僧伽婆羅(460~524)는 楊都의 華林園에 기거하면서 解脫道論을 翻譯하였으며, 북송의 태조는 太平興國寺에 翻譯院을 설치하여 天息災·法天·施護등을 이곳에서 翻譯에 종사토록 하였으며, 경전의 인쇄를 위해서 印經院도 附設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 불교의 천년에 가까운 譯經 사업은 한 譯經僧의 개인적인 차원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따라서 譯經은 단순한 불교내의 중요한 佛事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 상태나 翻譯 및 불교학 연구와 발전의 기초가 된다.



Ⅲ. 佛典音의 分類

1. 梵音과 漢語

周知하는 바와 같이 梵語는 表音文字로써 音을 表記함에 있어 基本이 되는 文字의 母型을 정하고 있다. 近代의 산스크리트어는 四十九字母이고, Pali語는 四十二字¹⁸⁾이다. 이를 우선 로마자로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梵語子母音表

音 別	了音								母音	
	硬音		軟音		硬音	軟音			短母音	長母音
	無氣音	有氣音	無氣音	有氣音	鼻索音	氣音	半母音			
喉音	k	kh	g	gh	ṅ			h	a	ā
顎音	e	eh	j	jh	ñ	ś			y i	ī e, ai
斷音	t	th	d	dh	ṇ	s			r r̥	ṛ
齒音	t	th	d	dh	n	s			e	
唇音	p	ph	b	bh	m				v u	ū
隨韻 m 隨鼻韻 ṁ 止聲 ḥ										

巴利語文字는 以上 表中의 文字 속에서 ś ṣ ḥ와 母音 r r̥ i ai au가 없고 그 대신 子音 ḷ가 있다. 그밖에는 모두 같다.

18) 현재 빠알리어 성전 협회(Pali Text Society)가 定한 빠알리어의 알파벳은 41개이며 33개의 子音과 8개의 母音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漢譯 經典에 수록된 字母數는 그 숫자가 다른데, 最少는 《佛本行集經》으로 38字이고, 最多는 《悉曇字記》로 51字이다.

51字母로 예를 들면

16摩多¹⁹⁾(母音)

a	ā	i	ī	u	ū	r	ṛ	l	ḷ	e	ai	o	au	am	aḥ
阿	阿	伊	伊	甌	甌	紇里	紇梨	里	梨	藹	藹	奧	奧	暗	疴
	長	短	長	短	長					短	長	知	長	去	去

35體文(子音)

ka	kha	ga	gha	ṅa	ca	cha	ja	ḥa	ṅa	ṭa	ṭha
迦	佉	伽	伽	哦	者	車	社	社	若	吒	佉
			重					重			
ḍa	ḍha	ṇa	ta	tha	da	dha	na	pa	pha	ba	bha
茶	茶	拏	多	他	陀	陀	那	波	頗	婆	婆
	重					重					重
ma	ya	ra	la	va	śa	ṣa	sa	ha	llam	kṣa	
麼	也	囉	羅	囉	奢	沙	娑	訶	溫	叉	

으로 되어 있다.

摩多 12字中에 10字는 하나의 음으로 知長의 형태를 조합하고, 마지막 2字 am, aḥ는 母音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母音이 아니라 모음에 부수되어 나오는 소리로 단독 字音은 아니다. 따라서 字形은 없고 어느 글자에나 붙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字母중 대표적으로 a字에 붙는다. 또 이 두 글자는 摩多와 體文 사이에 있으므로 界間字라고 한다.

別摩多 4字 r, ṛ, l, ḷ는 사용 빈도수가 적은 것으로 《金剛頂經》

19) 편의상 12摩多(通摩多)와 4別摩多를 합쳤다

〈釋字母品〉에서는 摩多속에 포함하고 있지만, 現在 字母에서는 12摩多와 35體文의 사이에 놓여 특수하게 취급하고 있다.

《悉曇字記》에

“有紇里(r)等四文, 悉曇有之非生字所用今略也”

(紇里(r)등 네 글자는 悉曇에는 있으나, 글자를 만드는데 쓰이는 것이 아니므로 이제 이제 생략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悉曇字記》의 智廣이 살던 시기에는 이미 그 쓰임이 현저히 줄어든 것이다.

일반적으로 摩多 12字를 通摩多 혹은 悉曇 12韻이라 하고 특수모음 4字를 別摩多라고 구별하고 界畔字 am, ah을 빼서 悉曇 14韻이라고 한다.

51字母의 발음을 설명하면 通摩多是 一음을 長短으로 나누어 조합시키고 있다. 처음의 a, ā는 喉音으로, a는 목의 안쪽, ā는 목의 입구로 발음한다. i, ī는 顎音으로 上顎으로 발음한다. i는 短音, ī는 長音이다. u, ū는 脣音이며 입술을 둥글게 해서 발음한다. u는 短音, ū는 長音 이상 三組는 雙母音이며 같은 음이 長短으로 나누어져 있다.

e, ai는 목과 턱을 합쳐서 내는 음이고, o, au는 목과 입술을 합쳐서 내는 음이다. 以上 二組는 複母音이다.

다음의 m은 산스크리트어에서는 anu-svāra(隨音)이라 하며 ㅁ音의 끝부분으로 당겨서 숨을 코로 뺀 음으로서 이른바 鼻音이다. h는 마찬가지로 vi sarga라고 하여 소리를 멈추었을 때 나는 숨소리의 울점이다.

別摩多 r, ṛ의 2字는 舌音이며 r은 短音, ṛ은 長音으로 발음한다.

마찬가지로 𑖀, 𑖁는 齒音으로 제각각 知長으로 발음한다.

다음 體文 33字의 배열에 同體重字 llam과 異體重字 kṣa를 포함하여 35字로 되어 있다.

體文(子音)의 앞부분 25字는 각각 5字로 一組를 이루어 모두 5組로 되어 있어서 五句라고 한다.

第一句 ka, kha, ga, gha, ṇa는 모두 喉音이다. ka는 氣息이 없는 이른바 無氣音이다. kha는 氣息을 동반한 有氣音이 清音이며, ga는 無氣音으로 濁音이다. gha는 kha와 마찬가지로 有氣音이며, 濁音이다. ṇa는 氣息을 코로 빼는 鼻音이다.

第二句 ca, cha, ja, jha, ṅa는 모두 顎音으로 혀의 中央部를 上顎에 붙였다가 갑자기 떼었을 때의 음이다.

第三句 ṭa, ṭha, ḍa, ḍha, ṇa는 모두 齒音으로 舌端을 上顎에 붙였다가 떼었을 때의 음이다.

第四句 ta, tha, da, dha, na는 모두 齒音으로 舌端을 齒莖에 붙였다가 떼었을 때의 음이다.

第五句 pa, pha, ba, bha, ma는 모두 脣音으로 위 입술과 아래 입술을 다물었다가 갑자기 떼었을 때의 발음이다.

33體文 중 위에 열거한 25字를 제외한 8字를 徧口聲(滿口聲)이라 한다. 이것은 입안에 있는 모든 부분을 가지고 발음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붙여진 名稱이다. 이 徧口聲 중 ya, ra, la, va 등 4字는 半母音이고, śa, ṣa, sa 등 3字는 隔舌音이다. 발성기관은 각각 五組의 第二句(顎音), 第三句(舌音), 第四句(齒音)와 같다.

重字 llam, kṣa의 2字도 發音種別에서 보면 徧口に 속한다.

위의 로마자 표기는 현행의 산스크리트 표기에 의하였지만, 梵字에 대한 漢譯은 譯者와 시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고 지극히 복잡하다.

2. 圓明字輪과 涅槃經根本字

인도는 중국과 더불어 고대 아시아의 二大文明國이기 때문에 그 文化가 사방에 미친 영향은 아주 크다. 그러나 중국이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시종일관 漢字를 사용해 온 데 반하여, 인도의 文字 사정은 그 양상이 달랐다. 인도는 예로부터 諸民族의 이동, 교류, 혼합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민족, 언어, 습관 등이 극히 복잡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모두 하나 같이 純文字를 그 원조로 하면서도 많은 文字가 파생되었고, 그 분포도 다양하게 되었다²⁰⁾. 이러한 시대적

20) 1961년에 시행된 국세 조사에 의하면 인도에서 '모국어'로 신고된 언어가 실로 1,652가지에 이른다. 이 가운데는 기본적으로는 같은 언어지만 부족에 따라 명칭이 다른 것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해 보면 826종의 언어(方言 포함)가 존재하는 것이 된다. 1971년의 조사에서 사용자가 100만이 넘는 언어는 33가지가 있고, 5천명 이상의 언어는 281가지를 헤아린다. 이 가운데서 14개 언어는 헌법에 의해서 '특히 발전 보급시켜야 할' 언어로 되어 있다. 이들을 사용 인구가 많은 순서로 나열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1. 힌디어 ——— 1억 3,340萬
2. 텔구어 ————— 3,770萬
3. 벵갈어 ————— 3,390萬
4. 마라티어 ————— 3,330萬
5. 타밀어 ————— 3,050萬
6. 우르두어 ————— 2,330萬
7. 구자라티어 ——— 2,030萬
8. 칸나다어 ————— 1,740萬
9. 말라야람어 ——— 1,700萬
10. 오리야어 ————— 1,570萬
11. 판자비어 ————— 1,010萬
12. 앓샤미어 ————— 680萬
13. 캐시미르어 ————— 195萬
14. 산스크리트어———— 2,544

산스크리트어는 고대로부터 문학과 사상을 담당해 온 문장인데 그래도 2,544명이 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인도 문화의 담당자라

요청에 따라 漢譯 佛典에는 단편적으로나마 語音, 語法, 文字 등을 소개한 經·論 들이 많게 되었으니 그것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玄奘譯 《瑜伽師地論》卷二에 보이는 “七言論句”²¹⁾
2. 玄奘譯 《瑜伽師地論》卷八十一에 “圓滿句”와 “不圓滿句”의 定義, 〈大乘阿毗達摩雜集論〉卷15 〈論品〉4에 보이는 “等論決擇”²²⁾.
3. 義淨作 《南海寄歸內法傳》卷四에서 “西方學法”章²³⁾.
4. 慧立의 《大慈恩寺三藏法師傳》卷三에서 “聲明記論” 概說²⁴⁾.

는 뜻에서 인도 정부는 이 산스크리트어를 ‘특히 발전 보급시켜야 할’ 언어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

中村元著·金知見譯; 《佛陀의 世界》, 김녕사, 1985, p.85

21) 補盧沙, 補盧衫, 補盧毘拏, 補盧沙耶, 補盧沙勿, 補盧殺婁, 補盧鐵와 같은 7가지 句로 각각 명사의 7가지 변격을 설명한 것이다.

22) 《한글대장경》 〈瑜伽師地論4〉, 동국대학교 역경원, 1994, p.638.

不圓滿句라 함은 글로서도 마지막이 아니고 뜻으로써도 마지막이 아닌 것이니 그 둘째의

글귀로 말미암아서야 비로소 원만하게 된다. “모든 씀은 짓지 말고 보는 혹은 받들어 행 하며 자기 마음을 잘 조복하면 이것이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이라” 만약 ‘모든 악’이라고 한 말한다면 글로서의 마지막이 아니며 만약 ‘모든 악’이라고 말하면 뜻으로써도 마지막이 아니로되, 다시 ‘짓지 말고’라고 하는 것을 더하여야 비로소 원만하게 되나니 곧 圓滿句가 다.

23) 《한글대장경》 〈高僧傳外〉, 동국대학교 역경원, 1998, p.653.

24) 《한글대장경》 〈大唐大慈恩寺三藏法師傳外〉, 동국대학교 역경원, 1997, pp.90~92.

법사는 바라문의 글도 겸하여 배웠다. 인도의 범서(梵書)는 이름을 기론(記論)이라고도 하는데 그 기원과 작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나 겁초(劫初)에 범왕(梵王)이 먼저 천인(天人)에게 전수(傳授)한 것으로써 범왕이 설했기 때 문에 梵書라고 한다 그 글은 매우 광범위하여 백만 송(頌)이나 되며, 구역(舊譯)에 『비가라론(毘伽羅論)』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이 음(音)은 바른 것이 아니다 만약 바르게 말하자면 『비야갈라남(毘耶羯喇)』

滿:Vyakarana)』이고 漢語로 翻譯하면 『성명기론(聲明記論)』이다. 널리 모든 법을 상세히 기록했으므로 『성명기론』이라고 한 것이다

옛날 성겁(成劫) 초에 범왕이 먼저 설하여 백만 송을 만들었다. 그 뒤 주겁(住劫) 초에 제석천(帝釋天)이 다시 줄여서 10만 송으로 하였다. 그 뒤 북인도의 건타라국(健駄羅國)의 바라문도라읍(婆羅門觀羅邑:Salarura)에 사는 파니니선(波膩尼仙:Panini)이 또 줄여서 8천 송이 되었는데 지금 인도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근래 또 남인도의 바라문이 남인도왕을 위해서 다시 줄여서 2천5백송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변두리 여러 나라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인도의 박학(博學)한 사람들은 배우지 않는다

이 책은 서역(西域) 여러 나라의 음자(音字)의 기본이다. 그 세부(細部)를 밝혀 놓은 곳에 다시 『기론약경(記論略經)』 1천 송(頌)이 있고 또 자체(字體)에 3백 송이 있다. 그리고 자연(字緣)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간택가(間擇迦 Mandaka)라 하여 3천 송, 둘째는 은나지(淵那地:Unadi)라 하여 2천5백 송이 있는데 이것은 자연(字緣)과 자체(字體)를 별도로 나눈 것이다. 그리고 『팔계론(八界論)』 8백 송이 있는데, 이 안에는 생략된 자연(字緣)과 자체(字體)를 합해 놓았다. 이러한 모든 기론(記論)들을 능동과 수동의 두 가지 예로 나누어 밝혔는데 그 하나는 저언다성(底彦多聲:Tinanta, 동사변화)이라 하여 18변화가 있고, 또 하나는 소만다성(蘇漫多聲:Subanta, 명사변화)이라 하여 24변화가 있다.

저언다성은 문장이 장려(壯麗)한 데에 쓰고, 여러 일반 문장에도 역시 조금씩 사용된다. 24변화에는 일체 모든 문장이 공동으로 사용되고 있다.

저언다성 18변화라는 것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타동사 [般羅飄迷] 이고 하나는 자동사 [阿答木泥] 로서 각기 9변화가 있기에 합쳐서 18변화가 된다. 처음의 9변화는 모든 사물을 논하는 경우에 쓰이는데 타동사(說他)에 3변화가 있고 자동사(自說)에 3변화가 있으며 각각 3변화 가운데 단수·쌍수·복수의 세가지가 있는데 양구(兩句)가 다 그러하다. 오직 그 변화가 다르기 때문에 29운(韻)으로 분류했을 뿐이다.

여기서 타동사의 변화에 의하여 유(有)·부(無)등의 모든 법에 대해 말해 보자. 특히 유에 대해서 말해 보자.

유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바파저(婆彼低:Bhavati), 둘째는 바파타(婆彼陀:Bhavathah), 셋째는 바반저(婆飯底:Bhavanti)이며, 2인칭의 세 가지는 첫째 바파사(婆波斯:Bhavasi), 둘째 바파책(婆波 :Bhavathah), 바파타(婆波他:Bhavatha)이다. 1인칭의 세 가지는 첫째 바파미(婆彌:Bhavami), 둘째 바파화(婆彼靴: Bhavavah), 셋째 바파마(婆彼摩:Bhavamah) [셋째의 바파마는 사베다론(四吠陀論)의 설에 의한 것이다. 흔히 바파말사(婆彼末斯)라고 한

다] 이다. 자동사의 9변화는 앞의 9변화 밑에 각각 비야저언(毘耶底言:Vyati)을 두고, 다른 것은 위와 같다. 이것을 잘 알게 되면 문장의 기교는 훌륭하게 되고 또 매우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다.

소만다성의 24변화는 모두 8변화가 있는데, 그 8변화 가운데 하나하나마다 각기 3변화가 있다. 말하자면 단수·쌍수·복수이므로 24변화가 되는 것이다. 그 24변화에는 그 하나하나마다 남성(男聲)·여성(女聲)·중성(中聲)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8변화라는 것은 첫째 주격(主格)을 나타내고, 둘째 대격(對格)을 나타내며, 셋째 구격(具格)을 나타내고, 넷째 위격(爲格)을 나타내며, 다섯째 종격(從格)을 나타내고 여섯째 속격(屬格)을 나타내고, 일곱째 어격(於格)을 나타내고, 여덟째 호격(呼格)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남성(男聲)인 ‘장부(丈夫)’를 8변화로 만들어 보자

장부는 인도말로 포로사(布路沙:Purusa)라 하는데 주격(主格)의 3변화는 첫째 포로살(布路殺:Purusas), 둘째 포로소(布路笱:Purusau), 셋째 포로사(布路沙:Purusas)로 변한다.

대격(對格)의 3변화는 첫째 포로삼(布路芟:Purusam), 둘째 포로소(布路笱:Purusau), 셋째 포로상(布路霜:Purusah)으로 된다.

구격(具格)의 3변화는 첫째 포로살라(布路鍛拏:Prusena), 둘째 포로편(布路편:Purusabhyam), 셋째 포로살병(布路鍛鞞:purusaisr), 혹은 포로살희(布路鍛咽)라고도 한다.

위격(爲格)의 3변화는 첫째 포로하(布路廈:Purusaya), 둘째 포로사편(布路沙편:Purusabhyam), 셋째 포로살운(布路鍛韻:Purusebhyas)으로 된다.

종격(從格)의 3변화는 첫째 포로사타(布路沙哆:Purusat), 둘째 포로살편(布路鍛窠:Purusabhyam), 셋째 포로살운(布路鍛韻:Purusebhyas)으로 된다.

속격(屬格)의 3변화는 첫째 포로살사(布路鍛言置:Purusasya), 둘째 포로살편(布路鍛窠:Purusayos), 셋째 포로살남(布路鍛誦:Purusanam)으로 된다

어격(於格)의 3변화는 첫째 포로차(布路差:Puruse), 둘째 포로살유(布路鍛諭:Purusayos), 셋째 포로살추(布路鍛縑:Purusesu) 된다

호격(呼格)의 3변화는 첫째 계포로살(系布路殺: he purusa), 둘째 계포로초(系布路稍: he purusau), 셋째 계포로사(系布路沙: he purusas)로 된다.

대충 간략히 예를 들면 이와 같으며 나머지 모두를 기술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법사는 이러한 언어에도 모두 통달하여 인도 사람과 더불어 말을 자유로이 논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여러 부(部)를 찬연(鑽研)하고 또 범서(梵書)를 배우는데 거의 5년을 보냈다.

合詞의 分析²⁵⁾과 《成唯識論學中樞要》卷三의 “蘇漫多聲”

등 八囑聲의 名詞變格²⁶⁾.

6. 唐 智廣의 《悉曇字記》²⁷⁾.

7. 西竺 竺法護譯 《普曜經》(308년 譯出)六十四 종류의 文字
가 기록됨²⁸⁾.

8. 唐 地婆訶羅譯 方廣大莊嚴經(683년 譯出)六十五 종류의 書
法²⁹⁾.

25) “六離合釋” 《大藏經》 45卷, p 245.

26) 《大藏經》 43卷, p.607.

27) 《悉曇字記》(《大藏經》 54卷), pp.1186~1190.

28) 《普曜經》〈現書品〉(《大藏經》 3卷), p 483.

- 1 범서(梵書) 2 카류서(去留書) 3 불가라서(佛迦羅書) 4 안카서(安法書) 5. 만카서(曼法書) 6 안구서(安求書) 7. 대진서(大秦書) 8. 호중서(護衆書) 9. 취서(取書) 10. 반서(半書) 11. 구여서(久與書) 12. 질견서(疾堅書) 13. 다비라서(陀比羅書) 14. 이적새서(夷狄塞書) 15. 시여서(施與書) 16. 강거서(康居書) 17. 최상서(最上書) 18. 다라서(陀羅書) 19. 카사서(佉沙書) 20. 진서(秦書) 21. 흉노서(匈奴書) 22. 중간자서(中間字書) 23. 유기다서(維耆多書) 24. 부사부서(富沙富書) 25. 천서(天書) 26. 용귀서(龍鬼書) 27. 건달바서(建달和書) 28. 진나라서(眞陀羅書) 29. 마후라가서(摩休勒書) 30. 아수라서(阿須倫書) 31. 가루라서(迦留羅書) 32. 녹륜서(鹿輪書) 33. 언선서(言善書) 34. 천복서(天服書) 35. 풍서(風書) 36. 항복서(降伏書) 37. 북방천하서(北方天下書) 38. 구야니천하서(拘耶尼天下書) 39. 동방찬하서(東方天下書) 40. 거서(擧書) 41. 하서(下書) 42. 요서(要書) 43. 견고서(堅固書) 44. 타아서(陀阿書) 45. 득주서(得晝書) 46. 염거서(厭舉書) 47. 무여서(無與書) 48. 전수서(轉數書) 49. 전안서(轉眼書) 50. 폐구서(閉句書) 51. 상서(上書) 52. 차근서(次近書) 53. 내지서(乃至書) 54. 도친서(度親書) 55. 중어서(中御書) 56. 실멸음서(悉滅音書) 57. 전세지서(電世界書) 58. 치우서(馳又書) 59. 선적지서(善積地書) 60. 관공서(觀空書) 61. 일체약서(一切藥書) 62. 선수서(善受書) 63. 섭취서(攝取書) 64. 개향서(皆響書)

29) 《方廣大藏嚴經》〈示書品〉(《大藏經》 3卷), p.539.

- 1 범매서(梵寐書) 2. 카로슬지서(去廬虱底書) 3. 포사가라서(布沙迦羅書) 4. 앙가라서(央伽羅書) 5. 마하지서(摩訶底書) 6. 양구서(央瞿書) 7. 십반니서(葉半尼書) 8. 사리가서(娑履迦書) 9. 아파로사서(阿波盧沙書) 10. 담비라서(沓毘羅書) 11. 계라다서(闍羅多書) 12. 다차나서(多瑳那書) 13. 옥가라서(郁伽羅書) 14. 승기서(僧祇書) 15. 아발모서(阿跋牟書) 16. 아노로서(阿奴盧書) 17. 달라

위의 문헌들을 통하여 볼 때 梵語와 漢語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중국 文字는 한자를 그 통치권내에서 넓혀가며 사용해 왔기 때문에 文字의 변혁이 없는 대신 聲韻學의 방면에는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였으며 특히 佛家에서는 가장 중요한 학문으로 받아들였다. 唐 玄宗 開元 초기(716-720) 불교의 한 종파인 密宗이 정식으로 중국에 수입되었는데 이 密宗은 무술을 행하고 呪文을 외우는 것을 중시하는 것을 특징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신자들이 呪文을 외움으로써 사악함을 쫓고 병을 치료하며 장수와 부귀를 누릴 수 있다고 여겼다. 그런데 呪文을 외울 때에는 반드시 梵語로써 하며 만약 음이 틀리게 되면 이러한 영험함을 상실하여 희망들을 이룰 수 없다고

다서(達羅多書) 18. 가색서(可索書) 19. 지나서(支那書) 20. 호나서(護那書) 21. 말제악찰라서(木提惡刹羅書) 22. 밀달라서(密唎羅書) 23. 불사서(弗沙書) 24. 제바서(提婆書) 25. 나가서(那伽書) 26. 야차서(夜叉書) 27. 건달바서(乾闥婆書) 28. 마후라서(摩睺羅書) 29. 다수라서(阿修羅書) 30. 가루라서(迦婁羅書) 31. 긴나라서(緊那羅書) 32. 밀리가서(密履伽書) 33. 마유서(摩瑜書) 34. 폭마제바서(暴磨提婆書) 35. 안다력차제바서(安多力叉提婆書) 36. 구야니서(拘耶尼書) 37. 울단월서(鬱單越書) 38. 불마제서(弗婆提書) 39. 옥계바서(沃戩婆書) 40. 익계바서(匿戩婆書) 41. 반라계바서(般羅戩婆書) 42. 바갈라서(婆竭羅書) 43. 발사라서(跋少羅書) 44. 여카발라지예서(板佉鉢羅底隸書) 45. 비계바서(毘戩波書) 46. 안노발도다서(安奴鉢度多書) 47. 차사살다바서(差舍薩多婆書) 48. 갈니나서(竭膩那書) 49. 오차파서(鳴差波書) 50. 익차파서(匿差波書) 51. 파타려카서(波陀戾佉書) 52. 지달오산지서(地怛烏散地書) 53. 야바달서(夜婆達書) 54. 발타산지서(鉢陀散地書) 55. 말제하리니서(末提訶尼書) 56. 살바다증가하서(薩婆多增伽訶書) 57. 바시서(婆尸書) 58. 비타아노로마서(比陀阿奴路摩書) 59. 니사답다서(尼師答多書) 60. 호로지마나서(乎盧支磨那書) 61. 다라니페차(陀羅尼閉瑠書) 62. 가가나필리가나서(伽伽那必利綺那書) 63. 살바부아후루다서(薩婆沃殺地備座陀書) 64. 사갈라승가하서(薩婆部多睺婁多書) 65. 살바부다후루다서(薩婆部多睺婁多書)

30) 〈習學技藝品〉 《佛本行集經》第11(《大藏經》3卷), p.703.

여겼기 때문에 특히 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聲韻學이 佛家 학술 중에 占有하는 地位를 알 수 있는 말이다. 인도의 발전된 聲韻學이 중국에 수입되어 중국 文化에 신선한 혈액을 공급하게 되었고 梵語의 語音 지식의 수입으로 중국의 音韻學은 비로소 그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 佛典의 顯密諸經典의 字母數는 42字와 49字의 두 계통으로 구별되지만 그 배열은 크게 다르다. 첫째는 42字를 說한 經典을 살펴본다.

竺法護는 인도 고승인데 漢 武帝時(265-289)에 《賢劫經》, 《法華經》, 《光讚經》 등 梵經 156部를 가지고 중국에 와서 傳譯하였는데 그 중에 《光讚般若波羅密經·觀品》³¹⁾(286년 譯)에 보이는

31) 《光讚經》7卷(《大藏經》8卷), p.147.

門에서 지은 바 羅자의 문은 모든 법이 갖가지 때를 여의는 것이요, 波자의 문은 모든 진리를 분별하는 것이며, 遮자의 문은 갖가지 법의 작요(行)를 체득하여 얻을 것도 없고 없어질 것도 없으며 생겨남도 없는 것이요, 那자의 문은 일체의 법은 갖가지 이름을 여의고 그 본래의 청정함을 헤아려서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이 羅자의 문은 모든 世間法인 恩愛·報應·因緣법을 모두 뛰어넘어 해탈한 것이요, 이 咤자의 문은 모든 법이 본래 有·無·斷·絶이 없는 것이며, 이 波자의 문은 모든 법에 얽매인 것을 다 풀어 없애는 것이요, 이 沙자의 문은 모든 법이 결림이 없어서 모든 일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다.

이 和자의 문은 갖가지 법의 음성이나 글귀, 자취로 표현하는 길을 끊어 없애는 것이요, 이 多자의 문은 온갖 법은 본래 없는 것이어서 동요하지 않는 것이며, 이 訶자의 문은 모든 법은 생겨남이 없는 것이요, 이 吒자의 문은 갖가지 법이 최후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며, 이 阿자의 문은 갖가지 법이 작용하는 바를 다 증득하는 것이며, 이 嚩자의 문은 모든 법이 이미 이 시기를 얻어 끊어지지 않음을 통한 것이다

이 摩자의 문은 갖가지 법이 모두 나를 좇아 일어난다는 사실을 좌다 깨달아 아는 것이요, 이 迦자의 문은 갖가지 법을 옹호할 수 있는 것이며, 이 擔(癩)자의 문은 갖가지 법이 모든 법의 처소를 얻는 것이요, 이 闍자의 문은 모든 법이 생겨남이 없는 것이며, 이 波자의 문은 모든 법이 일어난이 없는 것이요, 이 陀阿자의 문은 온갖 법의 갖가지 종류가 생겨남이 없는 것이다.

이 闍자의 문은 일체의 법이 고요하여 생겨나지 않는 것이요, 이 咤자의

「圓明字輪四十二字」³²⁾가 있는데 이것이 최초의 字母이다. 이것은 梵文의 聲母音을 한자로 표시한 것으로, 예를 들면 波(ba), 那(na), 羅(la), 陀(da), 多(ta), 娑(sa), 摩(ma), 嗟(tsa), 頗(p'a) 등은 모두 聲母만을 표시하고 뒤의 韻母에 해당하는 /-a/는 무시된다. 둘째로 竺法護 후에 佛經에 자주 한자로 梵文 聲母의 발음을 표시함에 字數가 점점 변화되었다.

東晉 法顯(337?~422? 山西人, 俗姓 龔, 3세 출가 399년 西域에 경을 구하기 위하여 14년간 인도, 스리랑카 등 30여 국을 순회하여 《佛國記》를 지음)의 《大般泥洹經文字品》에서는 48자를 열거해 두었는데 《大般涅槃經·文字品³³⁾》(法顯初譯·劉宋謝靈運釋慧觀·

문은 온갖 법이 마치 허공과 같아 생겨나는 바가 없는 것이며, 이 叉자의 문은 모든 법이 남김없이 滅盡하여 얻을 수 없는 것이요, 이 尸癩자의 문은 온갖 법이 그 처소에 굳게 머물러서 중요하지 않고 또한 얻을 수도 없는 것이다.

이 槌자의 문은 온갖 법의 지혜를 얻을 수 없는 것이요, 이 訶자의 문은 갖가지 법이 가지는 바를 얻는 데 미치는 것이며, 이 披何자의 문은 모든 법이 이미 한가롭고 고요함을 증득한 것이요, 이 市자의 문은 온갖 법이 이미 타버린 것이요, 이 那자의 문은 일체의 법이 아무 작용도 없는 것이며, 이 沙波자의 문은 온갖 법이 지극한 민음을 얻는 것이요, 이 陀자의 문은 온갖 법이 모두 다 소멸함을 얻는 것이며, 이 迦何자의 문은 갖가지 법의 輪數 所在를 얻는 것이요, 이 唵徐자의 문은 온갖 법이 머물고 있는 처소가 있으되 머무는 곳이 없음을 얻는 것이다.

이 那자의 문은 모든 법이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며, 서 있는 것도 아니요, 앉아 있는 것도 아니요, 누운 것도 아니요, 자는 것도 아니며, 호응하지도 호응하지 않음도 없고, 생각함도 생각하지 않음도 없는 것이다.

이 頗자의 문은 온갖 법이 아될 바가 없는 것이요, 이 尸迦자의 문은 온갖 법이 五陰을 얻지 않는 것이며, 이 磤자의 문은 온갖 법이 남(他)의 생각을 얻지 못하는 것이요, 이 伊陀자의 문은 온갖 법을 버려서 얻을 것이 없는 것이며, 이 吒자의 문은 온갖 법이 究竟邊際에서 그 처소를 다하는 것이니, 생겨남도 없고 죽음도 없으며 존재하는 것도 없고 작용함도 없어서 文字와 음성의 말을 뽑아 버리느니라.

32) 竺家寧; 〈佛教傳入與等韻圖的興起〉 國際佛學研究創刊號 1991. 12. pp.251~262.

33) 짧은 <a>(阿)는 파괴하지 못함이요, 파괴하지 못할 것은 三보니 마치 금강과 같으니라 또 <a>는 흐르지 않음이요, 흐리지 않는 것은 여래니, 여래의 아홉 구멍에는 흐를 것이 없으므로 흐르지 않으며, 또 아홉 구멍이 없으므로 흐르지 않나니, 흐리지 않는 것은 항상 하고 항상함은 곧 여래니, 여래는 것이 없으므로 흐르지 않느니라. 또 <a>는 공덕이라 하나니, 공덕은 곧 三보라, 그러므로 <a>라 하느니라

다음에 긴 <a>(阿)은 이름이 <아사리>니 아사리란 뜻은 무엇인가. 세간에서 성인이라 함이라 어찌서 성인이라 하는가. 성인은 집착이 없음이니, 욕심이 없어 만족할 줄을 알아서 청정이라고도 하느니라 三유(有)에서 흐르는 나고 죽는 바다에서 중생들을 제도하므로 성인이라 하느니라. 또 <a>는 제도(制度)라고 하나니, 깨끗한 계행을 지키고 위의를 잘 차리느니라. 또 <a>는 성인을 의지함이라고 하나니, 위외와 기동을 배우고 三보를 공양하고 공경하여 예배하며, 부모에게 효도하고 대승을 배우는 것이니라. 선남자·선녀인으로 세율을 잘 지키는 이와 보살마하살을 성인이라 하느니라. 또 <a>는 <가르침>이라 이름하나니, 《너희들은 이런 일은 하고 이런 일은 하니 말라》고 말하거나, 위외답지 못한 일을 못하게 하는 이를 성인이라 하나니, 그러므로 <a>라 하느니라.

짧은 <i>(伊)는 곧 부처님 법이니, 梵行이 넓고 크고 깨끗하여 때가 없음이 보류달 같으며,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은 하지 말며, 이것은 옳은 것이요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며, 이것은 부처님 말씀이요 이것은 마군의 말이라 하므로 <i>라 이름하느니라

긴 <i>(伊)는 부처님 법이 미묘하고 깊어서 얻기 어려움이니, 마치 자재천과 대별천왕의 법을 자재라고 하는 것과 같으며, 만일 이것을 보호하면 법을 보호한다고 하는 것이며, 또 자재라함은 세상을 보호는 四천황(四護世)이라 하나니, 이 네 가지 자재하는 이는 대반열반경을 거두어 보호하며, 또 자재하게 선전하고 연설하느니라. 또 <i>는 중생을 위하여 자재하게 법을 연설하느니라 또 <i>는 자재하기 위하여 말하나니, 그것은 방등경전을 닦아 익히는 것이니라. 또 <i>라 하느니라.

짧은 <u>(憂)는 모든 경전 중에 가장 높고 가장 훌륭하며 자꾸 늘어나는 것이니 곧 대열반이니라. 또 <u>는 여래의 성품이어서 성문이나 연각은 듣지 못하는 것이니 모든 곳에서 북구로주가 가장 훌륭한 듯이, 보살이 이 경을 들어 가지면 모든 중생에게 가장 높고 가장 훌륭하므로 <u>라 하느니라.

긴 <ū>(憂)은 마치 우유가 모든 맛 가운데 상품이 되듯이, 여래의 성품도 그와 같아서, 모든 경전 가운데 가장 높고 가장 으뜸이 되며, 만일 비방한다면 이 사람은 소와 다를 것이 없느니라. 또 <ū>는 이 사람을 지혜가 없는 바른 생각 [無慧止念]이라 이름하며, 여래의 비밀한 법장을 여의고 <na>가 없다는 법을 말하므로 <ū>라 하느니라.

<ai>(野)는 여래란 뜻이며, 또 <ai>는 여래의 나아가고 멈추고 굽히고 펴는 동작이 중생을 이익케 하지 않음이 없으므로 <ai>라 하느니라.

<o>(烏)는 번뇌란 뜻이니, 번뇌는 漏라고 하거니와, 여래는 모든 번뇌를 영원히 끊었으므로 <o>라 하느니라.

<au>(炮)는 대승이란 뜻이니, 十四음에서 이것이 나중이 되듯이 대승 경전도 이와 같아서 모든 경과 논에서 가장 나중이므로 <au>라 하느니라

<am>(菴)은 모든 부정한 것을 막음이니, 부처님 법에서는 온갖 금과 은과 보물을 버리므로 <am>이라 하느니라.

<ah>(癩)는 훌륭한 법이란 뜻이니, 왜냐하면 이 대승 경전인 대열반경은 모든 경 가운데 가장 훌륭하므로 <ah>라 하느니라.

<ka>(迦)는 모든 중생들에게 대자대비를 일으키는 것이니, 아들이란 생각 내기를 나후라와 같이 하여, 묘하고 선한 뜻을 지으므로 <ka>라 하느니라.

<ka>(呿)는 착하지 아니한 벗이라 하나니, 착하지 아니한 벗은 잡되고 더러움을 이룸하며, 여래의 비밀한 법장을 믿지 아니하므로 <ka>라 하느니라

<ga>(伽)는 藏이라 이름하니, 장은 여래의 비밀한 장을 말함이며, 모든 중생이 모두 부처성품이 있으므로 <ga>라 하느니라.

무거운 음 <gha>(伽)는 여래의 항상한 음이니, 무엇을 여래의 항상한 음이라 하는가. 여래는 항상 머물고 변역하지 않으므로 <흙>라 하느니라.

<na>(俄)는 온갖 행을 파괴하는 모양이니 그러므로 <na>라 하느니라.

<na>(遮)는 곧 덮는다는 뜻이니 모든 중생들을 조복하는 것을 덮는다고 하며, 그러므로 <na>라 하느니라.

<cha>(車)는 여래가 모든 중생들을 가리워주는 것이니 마치 큰 일산과 같으므로 <cha>라 하느니라.

<ja>(闍)는 곧 바른 해탈로서 늙는 모양이 없으므로 <ja>라 하느니라.

무거운 음<ja>(闍)는 번뇌가 성한 것이니, 뻑뻑한 숲과 같으므로 <ja>라 하느니라

<na>(若)는 지혜란 뜻이니, 참된 법의 성품을 알므로 <na>라 하느니라.

<ta>(吒)는 남섬부주에서 몸을 반쯤 나타내고 법을 연설하는 것이니, 반달과 같으므로 <ta>라 하느니라

<da>(荼)는 어리석은 중이니, 항상함과 무상함을 알지 못함이 어린 아이와 같으므로 <da>라 하느니라.

무거운 음 <dha>(荼)는 스승의 은혜를 알지 못함이니 마치 羴羊과 같으므로 <음>라 하느니라.

<na>(拏)는 성인이 아니라는 뜻이니, 마치 외도와 같으므로 <na>라 하느니라.

<ta>(多)는 여래가 저기에서 비구들에게 말하기를 《놀라고 두려움을 여의라,

너희들에게 미묘한 법을 말하리라》 하므로 <ta>라 하느니라.
 <tha>(他)는 어리석다는 뜻이니, 중생들이 생사에서 해매기를 자기의 실로
 몸을 얹는 누에와 같으므로 <tha>라 하느니라.
 <da>(陀)는 크게 베풀이니 이른바 대승이라, 그러므로 <da>라 하느니라.
 무거운 음 <dha>(陀)는 공덕을 칭찬하나니, 이른바 그보가 수미산처럼 높고
 가파르고 커서 뒤바뀌지 않았으므로 <dha>라 하느니라.
 <na>(那)는 그보가 편안히 머물러 기우러지지 않음이 문지방과 같으므로
 <na>라 하느니라
 <pa>(波)는 뒤바뀌었다는 뜻이니, 만일 그보가 모두 없어졌다고 말하면, 이
 사람은 스스로 의혹하는 것이므로 <pa>라 하느니라.
 <pha>(頗)는 세간의 재앙이니, 만일 세간의 재앙이 일어날 때에는 그보도 끝
 난다고 말하면, 이 사람은 어리석고 지혜가 없어 성인의 뜻을 어기는 것이므
 로 <pha>라 하느니라.
 <ba>(婆)는 부처님의 열 가지 힘이라 하나니, 그러므로 <ba>라 하느니라.
 무거운 음 <bha>(婆)는 무거운 집이라 하나니, 위없는 바른 법을 짊어질 수
 있으며 이 사람이 대보살임을 알지니, 그러므로 <bha>라 하느니라.
 <ma>(摩)는 보살들의 엄숙한 制度니, 대승의 대반열이므로 <ma>라 하느니
 라.
 <ya>(耶)는 보살들이 간 데마다 중생들을 위하여 대승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ya>라 하느니라
 <ra>(囉)는 탐욕·성내는 일·어리석음을 깨뜨리고, 진실한 법을 말하므로
 <ra>라 하느니라.
 가벼운 음 <la>(羅)는 성문승은 흔들리고 머물러 있지 않으며, 대승은 평안하
 여 흔들리지 않음이라 하나니, 성문승을 버리고 위없는 대승을 부지런히 닦
 으므로 <la>라 하느니라.
 <va>(和)는 여래 새존께서 중생들에게 큰 법비를 내림이라 하나니, 세간의
 주문·술법의 경전이라, 그러므로 <va>라 하느니라.
 <sa>(賒)는 세 가지 화살을 멀리 떠남이니, 그러므로 <sa>라 하느니라.
 <sa>(沙)는 구족하다는 뜻이니 이 대열반경을 들으면 곧 온갖 대승 경전을
 들고 지나는 것이므로 <sa>라 하느니라.
 <sa>(娑)는 중생들을 위하여 바른 법을 연설하여 마음을 즐겁게 함이니, 그
 러므로 <sa>라 하느니라.
 <ha>(呵)는 마음이 즐거움이라 하나니, 신기하게 세존은 온갖 행을 여의었고,
 이상하게 여래께서 반열반에 드시므로 <ha>라 하느니라
 <lam>(嚩)은 마군이란 뜻이니, 한량없는 마군들도 여래의 비밀한 법장을 깨

釋慧嚴이 다시 정리함)에는 50자로 증가되었으며 《悉曇字記》에 이르러서는 51자로 되었다. 이 51자 중에 又, ㄹ은 阿母에 속하므로 49자를 일반적으로 “四十九根木字”라 한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은 圓明字輪과 四十九根木字의 두 계통으로 分類할 수 있을 것이다.

圓明字輪계의 經論에 속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西晉 竺法護譯 光讚般若波羅蜜經觀品 第十七(太康 7년
A.D. 286)

西晉 無羅叉譯 放光般若經摩訶般若波羅蜜陀鄰尼品 第二十
(元康元年 A.D. 291)

姚泰 鳩摩羅什譯 摩訶般若波羅蜜經廣乘品 第十九(弘治 5년
A.D. 402)

姚泰 鳩摩羅什譯 人智度論釋四念處品 第十九(弘治 5년
A.D. 403)

東晉 佛馱跋陀羅譯 大方廣佛華嚴經 卷五十七 入法界品
第三十四之十四(東晉義熙十四年至劉宋永初二年
A.D. 418-421)

唐 玄奘譯 大般若波羅蜜多經卷五十三初分辯人乘品(顯應 4년
A.D. 659)

唐 地婆訶羅譯 大方廣佛華嚴經 入法界品(垂拱 元年

뜨리지 못하므로 <lam>이라 하며, 또 <lam>은 내지 일부러 세상을 따라서 부모와 처장을 두는 것이므로 <lam>이라 하느니라.

<r>(魯)·<r>(流)·<r>(盧)·<t>(樓) 이 네 글자는 네 가지 뜻이 있으니, 이른바 부처님·교법·스님네와 對法이라. 대법이라 함은 데바닷타가 일부러 승단을 파괴하며 가지가지 형상을 변화시킴과 같은 것이니 계율을 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혜있는 이는 그렇게 알고 두려운 생각을 내지 말 것이며, 이것은 세상을 따르는 행이라 하나니, 그러므로 <r>(魯)·<r>(流)·<r>(盧)·<t>(樓)라 하느니라.

A.D 685)

唐 實義難陀譯 大方廣佛華嚴經 卷七十六 入法界品

第三十九之十七 (武周證聖 元年 A.D. 695)

唐 不空譯 大方廣佛華嚴經 入法界品 四十二字觀門

(大曆 6년 A.D. 771)

唐 不空譯 大方廣佛華嚴經 入法界品 頓證毗盧遮那法身字輪

瑜伽義軌 (貞元 14년 A.D. 771)

唐 般若譯 大方廣佛華嚴經 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卷三十一 (貞元 14년 A.D. 798)

唐 慧琳譯 一切經音義 華嚴四十二字觀門經

(貞元 4년 ~ 元和 5년 A.D. 788-810)

四十九根本字의 經論에 속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東晉 法顯譯 佛說入般泥洹經 文字品 第十四 (義熙 13년
A.D. 417)

北涼 曇無讖譯 大般涅槃經 如來性品 第四之五

(玄始 三年至十年 A.D. 414-421)

劉宋 慧嚴修 大般涅槃經 文字品 第十三

(元嘉 元年至九年間 A.D. 424-432?)

梁 僧伽婆羅譯 文殊師利問經字母品 (天監 17년 A.D. 518)

隋 闍那崛多譯 佛本行集經 卷十一 (開皇 七年至十二年

A.D. 589-592)

唐 玄應 一切經音義 大般涅槃經 文字品 (貞觀末 A.D. 649?)

唐 地婆訶羅譯 大方廣人莊嚴經 示書品 (垂拱 元年 A.D. 687)

唐 義淨 南海寄歸內法傳 (高楠順次郎 英譯本引悉曇章³⁴⁾.)

34) 悉曇章; 悉曇의 字母와 合字의 예를 표시한 것.

武周天授元年至如意元年 A.D.690-692)

唐 善無畏譯 大毗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 百字成就持誦品

第二十一. (開元 12년 A.D. 724)

唐 不空譯 瑜伽金剛頂經 釋字母品 (大曆 6년 A.D. 771)

唐 不空譯 文殊問經 字母品 (大曆 6년 A.D. 771)

唐 智廣 悉曇字記 (唐 德宗間 A.D. 780-804?)

唐 慧琳 一切經音義大般涅槃經 卷八 辨文字功德及出生次第篇

(貞元四年至元和五年 A.D. 788-810)

日本 空海 悉曇字母 (A D. 774-835)

宋 惟淨 景祐天竺字源 卷三 (景祐 2년 A.D. 1035)

清 同文韻統 卷五 天竺字母譜 (乾隆 14년 A.D. 1749)



丑1 圓明字輪四十二字諸經譯文異同表

次序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羅馬字註音	a	ra	pa	ca	na	la	da	ba	da	sa	va	ta	ya	sta	ka	sa	ma	ga	t'a	ja	sva	d'a	śa	k'a	kṣa	sta	jā	rt'a	b'a	c'a	sma	hva	tṣa	g'a	t'a	ṇa	p'a	ska	ysa	śca	ta	d'a	
竺法護譯光讚般若波羅密多經觀品	阿	羅	波	遮	那	羅	陀	爲波	咤	沙	恕	多	計	吒	阿	娑	摩	迦	摩	闍	波	陀	奢	呬	叉	尸	怛	阿	披	車	那	沙	嗟	迦	徐	那	頗	尸	嗟	伊	陀	吒	
無羅叉譯放光般若經摩訶般若波羅密陀隣尼品	阿	羅	波	遮	那	羅	陀	波	茶	沙	和	多	夜	吒	加	娑	摩	伽	他	闍	濕	波	大	赦	佉	叉	侈	若	伊	繁	車	魔	叵	嗟	峨	咄	那	破	歌	嗟	嗟	吒	味
鳩摩羅什譯摩訶般若波羅密經廣乘品	阿	羅	波	遮	那	邏	陀	婆	茶	沙	和	多	夜	吒	迦	婆	磨	伽	他	闍	濕	波	馱	除	佉	叉	哆	若	拖	婆	車	麼	火	嗟	伽	咄	拏	頗	歌	嗟	遮	咤	茶
鳩摩羅什譯大智度論釋四念處品	阿	羅	波	遮	那	邏	陀	婆	茶	沙	和	多	夜	吒	迦	婆	磨	伽	他	闍	濕	波	馱	除	佉	叉	哆	若	拖	婆	車	灑	火	嗟	伽	咄	拏	頗	歌	嗟	遮	吒	茶
佛馱跋陀羅譯大方廣佛華嚴經入法界品	阿	羅	波	者	多	邏	茶	婆	茶	沙	他	那	邪	史吒	迦	娑	摩	伽	娑	社	室	者	捨	奢	佉	叉	娑	壤	頗	婆	車	娑	訶	訶	伽	吒	拏	娑	娑	闍	多	佉	陀
玄奘譯大般若波羅密多經初分大乘品	哀	洛	跛	者	娜	何	柁	婆	茶	沙	縛	頰	也	瑟吒	迦	娑	磨	伽	他	闍	濕	縛	達	捨	佉	厲	薩	若	辣	薄	綽	頤	嗟	鍵	攝	拏	頗	塞	逸	酌	吒	擇	
地婆訶羅譯大方廣佛華嚴經入法界品	阿	羅	波	者	多	邏	茶	婆	茶	沙	他	那	耶	史吒	迦	娑	摩	伽	娑	社	室	者	陀	奢	佉	叉	娑	壤	頗	婆	車	娑	訶	訶	伽	吒	拏	娑	娑	闍	多	佉	陀
實叉難陀譯大方廣佛華嚴經入法界品	阿	多	波	者	那	邏	柁	婆	茶	沙	縛	哆	也	瑟吒	迦	娑	麼	伽	他	社	鎖	拖	奢	佉	叉	娑	壤	長	婆	車	娑	訶	綫	伽	吒	拏	娑	娑	也	室	佉	陀	
不空譯大方廣佛華嚴經入法界品四十二字觀門	阿	囉	跛	左	曩	攞	娜	麼	拏	灑	嚩	多	野	瑟吒	迦	娑	莽	誑	他	惹	娑	馱	捨	佉	訖	娑	壤	囉	婆	綫	娑	訶	哆	伽	咤	停	頗	塞	野	室	吒	茶	
不空譯大方廣佛華嚴經入法界品頓證毗盧遮那法身字輪瑜伽儀軌	阿	囉	跛	左	曩	攞	娜	麼	拏	灑	嚩	多	野	瑟吒	迦	娑	莽	誑	他	惹	娑	馱	捨	佉	訖	娑	壤	囉	婆	綫	娑	訶	哆	伽	咤	停	頗	塞	也	室	吒	茶	
般若譯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阿	囉	跛	者	曩	攞	娜	婆	拏	灑	嚩	多	也	瑟吒	迦	娑	莽	哦	他	惹	娑	馱	捨	佉	乞	娑	壤	長	婆	車	娑	訶	哆	伽	咤	停	頗	塞	夷	室	佉	茶	
慧琳一切經音義華嚴四十二字觀門經	阿	囉	跛	左	曩	攞	娜	麼	拏	灑	嚩	多	野	瑟吒	迦	娑	莽	誑	他	惹	娑	馱	捨	佉	乞	娑	壤	囉	婆	綫	娑	訶	哆	伽	咤	停	頗	塞	也	室	吒	佉	

表2 四十九根本字諸經譯文異同表

次序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羅馬字注音	a	a	i	i	u	u	r	r	l	l	e	ai	o	au	am	ab	ka	k'a	ga	g'a	na	ca	c'a	ja	j'a	ña	ta	t'a	da	d'a	na	pa	p'a	ba	b'a	ma	ya	ra	la	va	śa	śa	sa	ha	kṣa	llan					
法顯譯大般泥洹經文字品	短阿	長阿	短伊	長伊	短憂	長憂	釐	釐	樓	樓	哩	野	烏	炮	安	阿	迦	佉	伽	伽	俄	遮	車	闍	闍	若	吒	佉	茶	茶	拏	多	他	陀	陀	那	波	頗	婆	婆	摩	耶	羅	輕羅	和	除	沙	娑	呵	羅	
曇無讖譯大般涅槃經如來性品	噉	阿	億	伊	郁	優	魯	流	盧	樓	哩	野	烏	炮	菴	阿	迦	佉	伽	伽	俄	遮	車	闍	膳	若	吒	佉	茶	祖	拏	多	他	陀	彈	那	波	頗	婆	洗	摩	耶	囉	羅	和	奢	沙	娑	呵	茶	
慧嚴修大般涅槃經文字品	短阿	長阿	短伊	長伊	短憂	長憂	魯	流	盧	樓	哩	野	烏	炮	菴	痾	迦	佉	伽	重音伽	俄	遮	車	闍	重音	若	吒	佉	茶	重音茶	拏	多	他	陀	重音陀	那	波	頗	婆	重音婆	摩	邪	囉	輕羅	和	除	沙	娑	呵	羅	
僧伽婆羅譯文殊師利問經字品	阿	長阿	伊	長伊	憂	長憂	釐	長釐	梨	長梨	堅	翳	烏	炮	菴	阿	迦	佉	伽	恒	誡	遮	車	闍	禪	若	多	他	陀	檀	那	輕多	輕他	輕陀	輕陀	輕那	波	頗	婆	梵	磨	耶	囉	邏	婆	捨	展	娑	訶	羅	
闍那多譯佛本行集經卷十一	阿		伊		優						哩	鳴					迦	佉	伽	俄	遮	車	闍	杜	若	吒	佉	茶	啞	拏	多	他	陀	哪	波	頗	婆	嚩	摩	耶	囉	邏	婆	嚩	沙	娑	荷				
玄奘音義大般涅槃經文字品	哀	阿	壹	伊	鳩	烏	理	釐			翳	藹	汚	奧	菴	惡	迦	佉	伽	哩	俄	遮	車	闍	膳	若	吒	佉	茶	啞	拏	多	他	陀	馱	那	婆	頗	婆	婆	摩	地	邏	羅	縛	奢	沙	娑	呵		
地婆詞羅譯方廣大莊嚴經示書品	阿	長阿	伊	長伊	烏	長烏					翳	愛	烏	樓	唵	阿	迦	佉	伽	伽	哦	者	車	祉	闍	壤	吒	吒	茶	茶	拏	多	他	陀	陀	那	波	頗	婆	婆	摩	也	羅	羅	婆	捨	沙	娑	呵	差	
義淨南海奇歸內法淨英譯本	惡	痾	益	伊	屋	烏	里	梨	里		翳		汚	奧	烏	阿	脚	佉	伽	嚩	我	者	掉	祉	縷	味	吒	訛	茶	菴	拏	哆	他	陀	但	娜	跋	叵	婆	吽	麼	野	囉	擇	婆	捨	灑	娑	訶	乞叉	監
善無畏譯大毗盧遮那成佛神變持經百字成就持誦品	阿		綏	伊	鳩	烏					翳	嚩	汚	奧	暗	惡	迦	佉	哦	伽	仰	遮	車	若	杜	壤	吒	佉	拏	茶	拏	多	他	娜	陀	曩	波	頗	婆	莽	麼	野	囉	邏	嚩	奢	沙	娑	訶		
不空譯瑜伽金剛頂經釋字品	阿	阿	伊	伊	鳩	汚	哩	哩	咄	嚩	嚩	愛	汚	奧	暗	惡	迦	佉	誡	伽	仰	左	磋	若	鄂	曩	吒	佉	拏	茶	拏	多	他	娜	馱	曩	跋	頗	麼	婆	莽	耶	囉	邏	嚩	捨	灑	娑	賀	乞灑	
不空譯文殊問經字品	阿	阿	伊	伊	鳩	汚	唱	咄	力	嚩	嚩	愛	汚	奧	暗	惡	迦	佉	誡	伽	仰	左	磋	若	鄂	曩	吒	佉	拏	茶	拏	多	他	娜	馱	曩	跋	頗	麼	婆	莽	野	囉	柯	嚩	捨	灑	娑	賀	乞灑	
智廣悉曇字記	短阿	長阿	短伊	長伊	短甌	長甌	紇里	紇梨	里	梨	短藹	長藹	短奧	長奧	短暗	長痾	迦	佉	伽	伽	哦	者	車	社	社	若	吒	佉	茶	茶	拏	多	他	陀	陀	那	波	頗	婆	婆	麼	也	囉	羅	嚩	奢	沙	娑	訶	又	
慧琳一切經音義大般涅槃經辨次第功德及出生次第義	阿	阿	賢	綏	鳩	汚	乙	乙	力	力	翳	愛	汚	奧	暗	惡	迦	佉	誡	伽	仰	左	瑤	磋	曩	曩	綽	蛇	絮	糕	拏	鞞	佉	拔	馱	曩	跋	頗	麼	普	麼	野	囉	柯	嚩	捨	灑	娑	賀	乞灑	
海空悉曇字母釋義	阿	阿	伊	伊	鳩	汗	哩	哩	咄	嚩	嚩	愛	汗	奧	闇	惡	迦	佉	誡	伽	仰	遮	磋	惹	鄂	曩	吒	佉	拏	茶	拏	多	他	娜	馱	曩	跋	頗	麼	婆	莽	野	囉	邏	嚩	捨	灑	沙	賀	乞灑	
惟浮景祐天竺字源	遏	阿	壹	翳	嚩	汗	哩	梨	魯	盧	伊	愛	鄔	奧	暗	惡	曷	渴	咄	竭	誡	撈	擦	惹	曩	倪	晰	訛	鹿	茶	拏	怛	達	捺	達	那	鉢	發	未	婆	摩	耶	囉	嚩	設	沙	薩	訶	刹		
同文韻統天竺字母	阿	阿	伊	伊	烏	烏	喇	喇	利	利	厄	厄	鄔	鄔	昂	阿	嘎	喀	噶	竭	迎	阿	擦	擦	雜	雜	尼	查	叉	檀	檀	那	答	塔	達	達	納	葩	葩	拔	拔	囉	鴉	喇	拉	幹	沙	沙	薩	哈	刹

이상의 42字와 49字를 비교하였는데 經論에 따라 일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인도에 있어서의 지역적 연대적 역자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는 한편 그들이 비교적 자유로운 사고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끝으로 梵字는 表音文字이며 그 自體로는 字義가 있을 수 없으나 각 字母에 특별한 意義를 덧붙여서 文字를 해석하고 있는 것은 종교적인 意味를 부여한 해석인 것이다.



IV. 佛典音과 中國音韻學

1. 反切

《說文解字》의 9353字 중에는 諧聲字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³⁵⁾, 시간이 흐름에 따라 字根인 聲符字의 음이 변하게 되어, 諧聲字는 諧聲의 방식으로 음을 표기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漢代에 訓詁學이 성행하자 譬況³⁶⁾·讀若³⁷⁾·直音³⁸⁾ 등으로 음을 표기하는 방식이 유행하였다.

後漢시기에 불교가 전래되자 표음文字인 梵文의 영향으로 언어학적인 근거에 따라 본격적으로 漢字의 “音”을 인식하게 되어 “聲”과 “韻”으로 분석하는 개념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한자음을 聲과 韻으로 분석하는 관념은 이미 《詩經》 등과 같은 韻文을 지을 때 押韻을 하거나, 同聲母字나 同韻母字의 語彙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音律美를 고려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학적인 지식을 동원하여 인위적으로 音을 분석하여 만든 것이 아니고 단지 언어 습관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들이다.

이러한 전통적인 聲·韻 관념 아래 雙聲·疊韻이 생겨났으며, 불교의 전래로 音을 인식하게 되자, 이런 개념을 이용하여 음을 표기하는 데에 있어 “反切”이 발명되어 종래의 譬況·讀若·直音 등을

35) 高明; 《高明小學論叢》 〈反切以前中國字的標音法〉 臺北·黎明文化事業公司, 1971. pp.203~204.

36) 譬況: 음이 같은 글자로 예를 들어 다른 글자의 음을 표기하는 방법

37) 讀若: 음이 비슷한 글자를 찾아서 발음을 묘사하는 방법.

38) 直音: 음이 완전히 같은 글자로 음을 표기하는 방법

대신하게 되었다.

雙聲·疊韻의 명칭은 六朝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通行하였지만 그 원리를 인식하게 된 것은 漢末까지 소급할 수 있다.³⁹⁾

反切의 發生에 대해서는 역대의 音韻學家는 2가지 설로 나누어 주장을 펴고 있다. 첫째는 反切법은 중국인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하는 설과 둘째는 인도·서역의 音注文字의 영향을 받아서 생겼다고 하는 설이다.

첫째, 反切법을 중국 고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설에는

1. 顏氏家訓音辭篇(孫炎創爾雅音義)
2. 慧琳一切經音義序說(始於服虔)⁴⁰⁾
3. 馬國翰玉函山房輯逸書·小學類說
4. 章炳麟國故論衡說(應劭已有反語)
5. 劉帥培正名隅論說(馬融注易……)
6. 劉盼遂反切不始於孫叔然辨-文中說⁴¹⁾

등이 있는데, 顧炎武(1613-1682)의 《音論》에 이르기를;

“按反切之語，自漢以上，即已有之。宋沈括謂古語已有二聲合一字者。如：不可爲叵，何不爲盍。如是爲爾，而已爲耳，之乎爲諸。鄭樵謂慢聲爲二，急聲爲一，慢聲爲者焉，急聲爲旃；慢者爲者與。急聲爲諸；慢聲爲而已。急聲爲耳，慢聲爲之矣。急聲爲只是也。愚嘗考之經傳，蓋不止此⁴²⁾。

39) 竺家寧；《聲韻學》，五南도서출판공사，1978. p.224.

40) 《一切經音義》 첫 권에 실려 있는 試太常寺奉禮郎景審의 서문에 “古來音反，多以旁紐爲雙聲，始自服虔”(“고래로 音義 反切은 대부분 旁紐(조음 위치가 서로 같은 聲母)로써 雙聲을 삼았는데, 이는 服虔에서 비록 되었다.”)

41) 李維棻；〈反語起源新證〉，淡江學報，p.85.

42) 顧炎武；《音學五書音論》下卷 〈論反切之始〉。

“생각컨대 反切음은 漢 이전부터 이미 있어 왔다 宋 沈括은 古語에 이미 두 소리를 한 글자로 합한 것이 있다고 말하였다. 예를 들면 不可는 ㄱ, 何不은 ㅎ, 如是는 ㄴ, 而已는 ㅍ, 之乎는 ㅈ 등과 같은 것이다. 鄭樵는 천천히 발음하면 두 글자가 되고, 빨리 발음하면 한 글자가 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者焉을 천천히 발음할 수 있지만 이를 빨리 읽으면 旃이 된다. 또 者與를 빨리 발음하면 諸가 되고, 而已는 ㅍ, 之矣는 ㅈ가 된다. 내가 일찍이 經傳을 고찰한 바에 따르면 이에 그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顧炎武가 이런 주장을 펼친 후, 한 때 反切법은 중국인이 스스로 만든 것이라고 확신하는 학자가 많았는데, 近世의 劉師培(1884~1919) 등을 들 수가 있다⁴³⁾.

둘째, 인도·서역의 영향을 받아서 생겼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急聲과 慢聲은 漢語 특유의 현상이며 결코 反切法은 아니라고 한다.

趙陰棠은 《韻源流》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在我自己研究的結果，我們的祖先在未受梵文影響以前，當然有天然的自發的合音。要說把它自覺的用作學術上的工具，無疑的是受梵文的影響⁴⁴⁾。”

“제가 스스로 연구한 결과, 우리들의 선조가 아직 梵語의 영향을 받기 전에 당연히 자연적인 自發的合音이 있다. 그것을 自覺的으로 학술의 器具라고 말한다면, 梵語의 영향을 받은 것에 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한 董同龢(1910-1962)의 中國語音史에는;

43) 劉師培; 《正名隅論》.

44) 趙陰棠 等著; 《韻源流》, p.10.

“有意的利用兩個字來拼注另一個字的音，據現在所知，是導源於東漢盛行方六朝以後的。那時，正當佛經傳入中國，一般文士受印度拼音文化的影響，知道了分析字音的門徑，於是逐漸用反切來代替不能精確又有時而窮的直音⁴⁵⁾。”

(“일부러 두 글자를 갖고 다른 한 자를 注音하는 것은 현재 아는 바로는 東漢에서 시작되어 六朝이후에 성해졌다. 그때 마침 불교 경전이 중국에 전래되어 일반의 문사가 印度注音文化의 영향을 받아서 字音分析의 門을 알게 되어 점차적으로 反切을 사용하여 정확하지 않고 정돈되지 않는 直音을 대체한 것이다.”)

이상 열거한 설은 모두가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고 나서, 文人, 學士가 인도의 注音 文字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字音을 다시 분석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예로부터 雙聲 疊韻法, 이른바 두 글자를 가지고 한 글자를 音注하고 나아가서는 音標 文字로 만들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上字는 그 聲을 취하고 下字는 그 韻을 취하는 아주 불편한 拼音의 방법으로 直音法을 보충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전에도 이미 “而已”는 “耳”로 하고 “之乎”를 “諸”로 하는 언어 현상이 있었지만, 그것은 語音이 자연적 결합이며, 反切이라고는 할 수 없다. 우리들은 “反切拼音”은 불교경전의 영향을 받아서 생겼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도 합리적인 것이다.

反切이란 두 개의 글자로 다른 한 글자의 음을 표기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글자를 反切上字라하고 두 번째 글자를 反切下字라고 하는데, 反切上字에서 聲母를 취하고, 反切下字에서 韻母를 취하여 反切上·下字를 합하면 被切字의 음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45) 董同龢: 《中國音韻學》, 文史哲出版社, 民國 72년, p.72.

‘東, 德紅切’은 上字인 “德”에서 聲母 /t-/를 취하고 下字인 “紅”에서 韻母 /-uŋ/을 취하여 “東”의 음이 /tuŋ/인 것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反切上字와 被切字는 雙聲의 관계이고 反切下字와 被切字는 疊韻의 관계이다.

또 예를 들면 《一切經音義》4卷 ‘浮泡’條에

“上輔無反……”

(“위 글자의 음은 輔無反 [浮] 이다……”)

라고 했는데, 이러한 反切의 법칙은 고대 인도에서 발전된 音韻學의 體文과 摩多를 합하여 글자를 이루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慧嚴 修 《大般涅槃經(文字品)》에 佛陀는 半字와 滿字 즉 반쪽 글자와 완전한 글자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불교의 어떤 것을 상징하는 지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佛言, 善男子! 初說半字以爲根本, 持諸記論呪術文章諸陰實法. 凡夫之人學是字本. 然後能知是法非法. “善男子! 有十四音名爲字義……是十四名曰字本 所言字者名曰涅槃常故不流. 若不流者則爲無盡, 大無盡者卽是如來金剛之身.”⁴⁶⁾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善男子여! 처음에는 반쪽 글자(半字)를 말하여 근본을 삼아 가지고, 모든 언론과 呪術과 문장과 五音의 실제법을 기록하게 하였으므로, 범부들은 이 글자의 근본을 배운 뒤에야 바른 법인지 잘못된 법인지를 알 것이니라. 善男子여! 14음을 글자의 뜻(字義)이라 이름하고……이 14음을 글자의 근본(字本)이라고 한다. 글자의 뜻은 열반이라 하며 항상한 것이므로 흘러 변하지 않으니라 만일 흐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46) 《大正藏》 12卷 涅槃部, 《大般涅槃經》 第8品 文字品 p.633.

다함이 없는 것이요, 다함이 없는 것은 곧 여래의 금강 같은 몸
이니라.)

半字 즉 반쪽 글자가 기본이 된다고 하고 반쪽 글자는 14가지인
데 그 글자 안에 모든 기본적인 가르침이 담겨 있다고 한다.

14가지란 단모음 a, ā, i, ī, u, ū, 이중 모음 e, ai, o, au의 10가지
음과, 단모음 r, ṛ, l, ḷ의 4가지이다. 이 모음들이 자음 들과 합해서
많은 글자들을 만들기 때문에 14가지 모음이 기본적인 글자라고 한
다. 이 14가지를 동국대학 譯經院 간행 한글대장경 《大般涅槃經》
〈文字品〉에서 발췌하면:

- | | |
|-----------------|---------------|
| 1. 짧은 아(a 阿) | 8 아이 (ai 野) |
| 2. 긴 아(ā 阿) | 9. 오오 (o 烏) |
| 3. 짧은 “이” (i 伊) | 10. 아우 (au 炮) |
| 4. 긴 “이이” (ī 伊) | 11. 르 (r 魯) |
| 5. 짧은 “우” (u 憂) | 12. 리이 (ṛ 流) |
| 6. 긴 “우우” (ū 憂) | 13. 르 (ḷ 廬) |
| 7. 에 (e 擘) | 14. 리이 (ḷ 樓) |
| 15. 양(am 菴) | 16. 아(ah 痾) |

15, 16은 은 阿(a)에서 변화한 것으로 본래의 운이 아닌 것으로
보고 16字에서 제외하고 14뿐이라 한다.

이와 같은 기본 모음만으로는 완전한 글자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
에 14가지의 모음 글자를 반쪽 글자 즉 半字라고 하고, 34가지의
자음까지 합하여진 글자를 완전한 글자 즉 滿字라고 한다.

다시 한글 대장경 《大般涅槃經》 〈文字品〉의 34가지의 字母는 다
음과 같다:

- | | |
|--------------------|--------------------|
| 1. 카(ka 迦) | 18. 다(da陀) |
| 2. 카(kha 呖) | 19. 무거운 음 다(dha 陀) |
| 3. 가(ga 伽) | 20. 나(na 那) |
| 4. 무거운 음 가(gha 伽) | 21. 파(pa 波) |
| 5. 아 (na俄) | 22. 파(pha 頗) |
| 6. 차(ṅa 遮) | 23. 바(ba 婆) |
| 7. 차(cha 車) | 24. 바(bha 婆) |
| 8. 자(ja 阡) | 25. 마(ma 摩) |
| 9. 무거운 음 자(jha 阡) | 26. 야(ya 耶) |
| 10. 냐(ṅa 若) | 27. 라(ra 囉) |
| 11. 타(ta 吒) | 28. 가벼운 음 라(la 羅) |
| 12. 타(ṭha 佉) | 29. 바(va 和) |
| 13. 다(ḍa 荼) | 30. 샐(śa 除) |
| 14. 무거운 음 다(dha 荼) | 31. 샐(ṣa 沙) |
| 15. 나(na 拏) | 32. 사(sa 娑) |
| 16. 타(ta 多) | 33. 하(ha 呵) |
| 17. 타(ṭha 他) | 34. 랑(lam 唎) |

이상의 모음과 자음을 합해야 글자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佛典이 중국에 유입되어 역경 또는 독송에 즈음하여 필요에 의해 漢語 학자가 연구하여 응용한 결과로 反切이 탄생하였으리라고 본다. 인도 文化가 중국에 유입되고 불교가 들어와 다시 불법을 믿는 사람이 날로 늘어나고 佛經 翻譯이 흥성하게 되자, 일반 학자와 문인들은 인도의 梵音과 한자를 대조함으로써 拼音의 이치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梵文의 음운법칙에 의거하여 漢字音을 분석하여 聲母와 韻母로 분리하여 反切上字와 反切下字로 나누어 注音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反切은 널리 성

행한 것이다.

예외적으로 梵音을 中國音으로 翻譯을 하면서 중국의 文字가 없는 것들은 글자가 형성된 就形切身의 방법으로 反切을 하였으니, 鶴을 寧鳥切, 馳을 摩也切, 鞞을 亭夜切 등으로 한 것과 같이 두 글자 이상으로 복합된 글자는 그 몸을 나누어 反切하여 音價를 표시한 것은 참으로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⁴⁷⁾

2. 字母

《廣韻》과 같은 韻書에서 音價 /k-/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 反切上字는 居, 九, 俱, 學, 古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反切上字를 이용하는 것은 번잡하므로 그 가운데에서 한 글자를 골라 언제나 같은 글자가 특정의 聲母를 대표하도록 마련한 것이 字母이다. 즉 聲母가 동일한 여러 한자 중에서 한 글자를 골라 해당 聲母의 대표자로 삼은 것을 字母라고 한다.

字母의 명칭에 대해 고대에는 다른 명칭들이 있었다. 우선 “字母”는 또 간략히 ‘母’라고 불렀기 때문에 많은 音韻學 저작에서 ‘幫母’, ‘並母’ 등의 표현을 볼 수가 있다.

다음에 ‘字母’는 또 ‘音’이라고도 불렀다. 왜냐하면 이것은 옛 사람이 聲母를 설명할 때 사용한 ‘脣音’, ‘舌音’, ‘齒音’ 등의 명칭 속에 모두 ‘音’字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音’으로써 聲母를 가리켰다.

그 다음에 ‘字母’는 또 ‘聲類’라고도 불렀다. 이것은 淸代의 학자인 全大昕, 陳澧 등이 먼저 제기하여 사용한 것이다. 그들은 字母라는 명칭은 佛典을 답습한 것으로, 漢語 속에서 사용하는 것은 대의명

47) 成元慶; 《韓中音韻學論叢》 〈反切的 起源과 內容考〉, 서광학술자료사, p.392.

분이 옳게 서지 않고 말도 이치에 맞지 않으며, 또 漢語 속에서 聲母가 같은 것은 雙聲字이기 때문에, ‘字母’를 ‘聲類’로 바꾸어 불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밖에 또 ‘字母’를 ‘紐’라고 한 것도 있다. ‘紐’라는 명칭의 출현은 ‘字母’보다 이르지만, 고대의 ‘紐’는 어떤 때에는 ‘聲母’를 가리키고, 어떤 때는 ‘韻母’를 가리키며, 또 어떤 때에는 聲母의 병합을 가리킨다. 清末에 이르러서 章太炎은 唐나라 사람 孫愐의 《唐韻·序》에 보이는

紐其脣齒喉舌牙部，件而次之

(그 脣, 齒, 喉, 舌, 牙部를 묶어, 구별하여 순서로 배열하였다)

을 근거로 ‘字母’라는 이름을 ‘音紐’라고 바꾸어 부르거나, 간략히 ‘紐’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 후, ‘紐’는 전적으로 ‘字母’를 가리키는데 사용되었다. 결국 ‘字母’, ‘母’, ‘聲類’, ‘紐’는 모두 古代漢語에서 聲母의 호칭에 응용된 것이다.

이러한 字母가 어느 시기 누구에 의해 창출되었는가는 그 설이 분분하다. 우선 《韻鏡》의 張麟之序에서는

七音之作，起自西域流入諸夏，梵僧欲以此教傳天下。故爲此書，雖重有譯之遠一字不通之處而義可傳，華僧從而定三十六爲之母，輕重清濁，不失其倫，天地萬物之情，備於此矣。

(7音의 제작은 西域에서 일어나 中國에 유입되었다. 梵僧이 이 宗教를 天下에 전하고자 하여, 이 책을 만들었다. 비록 중순 음에는 그것을 거리가 먼 한 글자로 翻譯하여 통하지 않는 곳이 있으나 뜻은 전할 수 있었다. 華僧이 이를 따라 36개를 정하여 母로 삼으니, 重脣·輕脣·清·濁音이 그 법칙을 잃지 않아 天

地萬物의 情況이 여기에 구비된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字母의 성립을 설명하고는 있지만 서역 또는 梵僧 華僧 등 불분명한 표현으로 字母의 전입을 말하여, 전래자가 단지 승려라고만 밝히고 있을 뿐 그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다.

또한 淸末의 江永은 《音學辨微·字母辨》에서

“等韻三十六母未知傳者何人，大約六朝以後隋唐之間，精於音學者爲之”

(等韻 36母는 전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거니와, 대략 六朝이후 隋唐 사이에 音學을 정교롭게 한 사람이 하였다.)

라고 하여, 印度의 승려와 中國의 승려가 佛典을 매개로 中國의 字母를 만들었다고만 하여 그 창출자를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그 眞僞를 알 수 없지만 창출자의 이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神珙의 說”, “舍利의 說”, “了義의 說” 등을 들 수가 있다.

먼저 唐 舍利의 說을 보면, 章太炎은 《論語言文字之學》에서

“既知二十二部古韻之分、又當知有字母，字母云何？神珙所傳三十六字母是也。或謂占有雙聲而無字母，此因字母出于華嚴爲沙門所傳述而雙聲反切、則自魏之孫炎、吳之韋昭已發、其端又孫愐作唐韻序，尚在字母未出以前，而其文已云紐其唇、齒、喉、舌、牙音部件而次之。”

(“기왕 22부의 古韻의 나뉘음을 알았으니, 마땅히 그 字母도 알아야 하는데, 字母란 무엇인가? 神珙이 전하는 36字母가 이것이다. 혹자는 말한다. 예로부터 雙聲이 있었지만 字母는 없었는데,

字母가 《革嚴》에서 나와 沙門에서 전해지는 雙聲 反切이 되었는데, 즉 魏의 孫炎, 吳의 苒昭로부터 이미 나왔는데, 그 단서로 孫愐이 《唐韻》序를 지었다. 字母가 나오기 이전, 문장에는 이미 脣、齒、喉、舌、牙音이 있었다")

라고 하여 36字母는 神珙이 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戴震도 《聲韻考》에서

今人言，切韻但知推本神珙，以爲來自西域，蓋釋氏之專習字母，等韻者，推本所起，咸出于珙耳。因誇誕其學，造爲傳自西域之說，而指珙爲北魏時人，俗學膚淺，不知……珙反紐圖自敍云，昔梁、沈約立紐字之圖；唐又有陽寧公南陽釋處忠又撰元和韻譜，然則珙雖未詳何時人，固在唐、憲宗、元和以後矣。

(“《切韻》이 단지 본래 神珙이 지었다고 알고 있지만, 西域 지역으로부터 전해진 것이고, 대개 승려들은 오로지 字母를 답습하고 있을 뿐이며, 等韻이란 것은 근원을 캐보면, 모두 珙에서 나왔을 뿐이다 그 학문이 과장되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西域으로부터 전해졌다는 설은 珙이 北魏 시대 사람이고, 俗學이 깊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珙은 反紐圖自敍에서 옛날 梁의 沈約이 紐字의 圖를 세웠고, 唐에도 陽寧公이 있었고, 南陽 스님 處忠은 《元和韻譜》를 지었는데, 비록 珙이 어느 시대의 사람인지 상세하지 않지만, 아마도 唐 憲宗 元和 이후일 것이다.”)

라고 하여 神珙의 生卒년대까지도 밝혀 唐 憲宗 元和 이후에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羅常培는 《敦煌寫本守溫韻學殘卷跋》에서

明、呂維祺、同文鐸據釋真空篇韻貫珠集，總述來源謂大唐、舍

利耑字母三十，後溫首座益以娘、牀、幫、滂、奉、微、六母，是爲三十六字母。清、陳澧等俱從說，惟眞空等以造自觀門，五音辨自軒轅、推韻學來源，每多荒渺難稽。其以三十六字母歸諸舍利，或與同文韻統歸諸神珙，同一誤謬，至清李元音切譜復以藏文三十字母譯音，認爲舍利所作，李汝珍、音鑑亦襲其說，尤不知何所根據，似均不知唐人寫本較爲可信也。

（“명나라의 呂維祺는 《同文鐸》에서 스님 眞空의 《韻貫珠集》에 따라 그 내원을 총술 해서 말하길 大唐 舍利의 字母 30개에, 후에 溫首座가 娘, 牀, 幫, 滂, 奉, 微 등 6母를 더해 36字母가 되었다. 청나라의 陳澧 등은 모두 그 설을 따랐는데, 오직 眞空 등은 이후에 觀門으로부터 만들어지고, 五音은 軒轅으로부터 분별하여, 韻學의 내원으로 삼았는데, 황당무계한 것이다. 그 36字母는 舍利로 귀결되는데, 혹자는 《同文韻統》이 神珙에게 귀결된다고 하고 있는데, 같은 오류이다. 清代 李元에 이르러 音切譜는 다시 藏文 30字母로 譯音하게 되었고, 舍利가 지은 것으로 인식되어, 李汝珍의 《音鑑》에서도 또한 그 설을 답습하였고, 근원이 어떤지 더욱 알 수 없게 되어, 마치 唐人 寫本이 비교적 믿을 만 한 것만 것인지 모르는 것 같다.”)

라고 하여, 舍利나 神珙이 정했다고 하는 것은 모두 믿을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了義의 설을 보면, 주로 한국의 音韻學界에서 주장되는 것으로 中景濬는 《韻解訓民正音》에서

自晉以來，韻法漸明而終聲定焉，東董、送、屋一百六字，其標目也。至西域僧了義撰字母，而初聲定焉，見、溪、羣、疑等三十六字其標也。

“ষ্মি래 韻法이 점차 분명해져 終聲이 정해지게 되고, 東、

韻、送、屋 106개의 글자가 그 標目이다. 西域 僧 了義가 字母
를 만들어 初聲으로는 見、溪、羣、疑 등 36字가 정해지게 되었
다”

라고 하였고, 黃胤錫은 《字母辨》에서

“中國古無字母翻切法，只緣章句嚴整，自叶律呂、故或以中聲，
或而終聲相諧者成韻，此南朝沈約所以創爲韻譜也。惟西域梵學因聲
設教音調最精，而北朝魏世，西域僧了義傳梵語一切字音。初聲相類
者，立字母而括之，又有中終聲相類者立韻母而攝之蓋梵語。華嚴經
者有四十八母而了義所創有見、溪以下三十六母，華音之細別不及
梵語者此可見矣。”

(“중국에는 예전에 字母翻切法이 없었고, 단지 章句가 嚴整한
까닭에, 自叶律呂해서, 고로 中聲으로 하고 혹은 終聲으로 서로
운울 맞췄는데, 이것은 南朝 沈約이 韻譜를 만든 까닭이다. 西域
梵學은 聲이 세워지고 音調가 가장 정교하여, 北朝 魏나라 때,
서역 僧 了義가 梵語의 모든 字音을 전하였다. 初聲相類란 字母
로 그것을 개괄하고, 또 中終聲相類라는 것도 있어 韻母로攝을
맞추는데 대개 梵語가 그렇다. 《華嚴經》이란 48母가 있고 了
義가 만든 것에 見、溪 이하 36母가 있는데, 華音은 세세하게
나누어 梵語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
다.”)

라고 하였으며, 《眞言集》 凡例에서

“高低清濁音高僧了義始撰三十六字母而玉篇字彙諸書其效字母音
釋，反切四聲清濁無不詳盡，至洪武正韻減字母爲三十一母，至於我
國朝，依字母製述諺文.”

（“高低清濁音은 高僧 了義가 36字母을 만들었을 때 시작되었
고, 《玉篇》《字彙》 모든 책에서 그 字母 音釋을 본받고 있고,
反切, 四聲, 清濁이 상세하지 않음이 없어, 《洪武正韻》에서는
字母가 줄어들어 31개가 되었고, 우리 나라 조정에서는 字母에
의해 諺文이 제작되었다.”)

라고 하였고, 洪啓禧는 《三韻聲彙》 凡例에서

“字母者謂字之母也……胡僧了義始撰 三十六字母(洪武)正韻省爲
三十一母.”

（“字母는 字의 母이다……胡僧 了義가 36字母을 만들었는데,
《洪武正韻》에서는 31字母로 줄어들었다.”)

라고 하였으며, 훈민정음 창제에 극대한 영향을 준 《性理大全 皇極
經世音圖·上官萬里》에서 아래와 같이 주를 달고 있다:

“自胡僧了義以三十六字母爲翻切母，奪造化之巧，司馬溫公指掌
圖爲四聲等子，蒙古韻以一聲該四聲，皆不出了義區域”

（“胡僧 了義의 36字母는 翻切母이고, 조화의 기교를 벗어났으
며, 司馬溫公의 指掌圖는 《四聲等子》이고, 蒙古韻은 하나의 聲
으로써 四聲을 갖추었는데, 모두 了義 구역에서 나온 것은 아니
다”)

그러나 중국의 문헌에는 거의 了義와 관련되는 기록이 없고 오히
려 佛典의 기록에는

“聲聞乘名不了義，武上大乘乃名了義” 《涅槃經》

“了義者，決擇究竟顯了之說，非覆相密意含隱之譚” 《圓覺經略疏上一》

“以了義度無邊” 《白居易，重顯寺法華院石壁碑文》

“了義經大乘教經典” 《大漢和辭典》

“了義經者生死涅槃一相無二” 《大集經二十九》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了義는 곧 불교의 용어일 뿐, 이름은 아니다.

그러나 위에서 밝힌 “神珙”, “舍利”, “了義” 등과 같은 설은 그 근거가 희박하고, 지금은 守溫이 만들었다는 것을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清末 學者 陳澧는 《切韻考》에서

“所謂聲類者，乃取各字之雙聲而類別之，復於各類中取一字以爲標目。唐季守溫所作三十六字母名曰字母而實卽聲類也，至若字母未出以前，所以示雙聲者，只有切語上字。”

(“所謂 聲類라는 것은, 곧 각각 글자의 쌍성을 취하여 구분하고, 다시 각 部類에서 한 글자를 취하여 標目으로 삼은 것이다. 唐末 守溫이 만든 36글자를 字母라고 이름하였으나 실제로는 聲類이다. 字母와 같은 것이 출현하기 이전에는 쌍성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단지 反切上字가 있다.)

라고 하여 雙聲을 가름하는 反切上字에서 비로소 한 글자의 標目이 되는 36字母를 만들어 내었으며, 그 창시자가 唐代의 守溫이라고 하였다.

또한 錢玄同은 《文字學音篇》에서

“類聚雙聲之文，取一字以爲目標謂之紐……定紐者，始于唐末沙

門守溫作三十六字母。所謂字母者，卽紐也。”

(雙聲의 글자를 분류하여 모아, 그 중 한 글자로 標H을 삼은 것을 紐라고 한다 ……紐를 정한 것은 唐末 沙門 守溫이 36字母를 만든 것에서 시작된다. 所謂 字母는 곧 紐이다.)

라고 하여 역시 唐代 沙門 守溫이 36字母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紐” 즉 “聲類”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프랑스 국립 파리 도서관에 소장된 “敦煌石室寫本201號”인 《敦煌寫本守溫韻學殘卷》에 의하면

南梁漢比丘守溫述

唇音(不芳並明)舌音(端透定泥是舌頭音,知徹澄日是舌上音)牙音(見君溪羣來疑等字是也)齒音(精清從是齒頭音,審穿禪照正齒音)喉音(心邪曉是誰音中清,匣喻亦是喉中音濁)



와 같이 기술하고 있는데, 첫 단에 “南梁漢比丘守溫述”의 8字가 보인다.

위의 30字母가 唐末 沙門인 守溫으로부터 전해 오고있다고는 하나 守溫의 행적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었는데, 羅常培는 “南梁漢比丘守溫述”의 8字를 풀어서 “漢比丘”란 天竺 沙門의 대칭인 中國僧을 뜻하는 말이고, “南梁”은 어떤 시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地名을 나타내는 것으로, 唐 武德 4년에 潭州에서 갈라진 郡邑이며, 오늘날의 湖南省 寶慶縣 북쪽에 해당된다고 하였다.⁴⁸⁾

따라서 《敦煌寫本守溫韻學殘卷跋》의 주장에 따르면, 守溫은 唐末 南梁 지방의 沙門으로서 36字母가 아닌 30字母를 만든 증거가

48) 羅常培; 《敦煌寫本守溫韻學殘卷跋》 p.251.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다.

이 밖에도 黃廷鑑은 《三十六字母辨》에서:

“世傳三十六字母爲唐釋守溫撰，宋司馬溫公切韻指掌圖，鄭夾漈七音略，金韓道昭五音集韻，元劉士鑑切韻指南皆宗之”

(“세상에 전해지는 36字母는 唐 스님 守溫이 지은 것이고, 宋 司馬溫公의 《切韻指掌圖》，鄭夾漈의 《七音略》，金 韓道昭의 《五音集韻》，元 劉士鑑의 《切韻指南》은 모두 그것을 宗主로 삼고 있다.”)

와 같이 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唐 沙門 守溫이 字母를 만들었다는 것은 敦煌 석실에서 발견된 《音學殘卷》의 기재와 일치된다.

결국 字母의 성립은 守溫 30字母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설령 守溫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결국은 모두가 승려이기 때문에 불교 전래와 함께 서역으로부터 전래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字母의 전래과정을 살펴보면, 魏晉 시대에는 인도의 字母가 이미 중국으로 수입되었는데, 《隋書·經籍志》에서 말하기를

“自後漢佛法行於中國又得西域胡書能以十四字貫一切音、文省而義廣，謂之婆羅門書，與八體六文之義殊別。”

(“後漢 때부터 불법이 중국에 행해졌는데, 西域 胡書 14字로 一切音을 통할 수 있게 되었다. 文은 생략되고 뜻은 넓어졌으며, 婆羅門書라 불리게 되었는데, 八體六文의 뜻과는 자못 달랐다”)

라고 했고, 또 《高僧傳，宋釋慧睿》에서 말하기를:

“陳郡謝靈運篤好佛理殊俗之音，多所達解，洒澗叡以經中諸字，并衆音異旨於是著十四訓敍，條例梵漢，昭然可了，使文字有據焉，靈運蓋以印度字母整理漢音。”

（“陳郡 謝靈運은 독실하게 불교 이론을 좋아하였으며, 풍속이 다른 언어(音)를 통달하여 잘 이해하였다. 이에 곧 혜예에게 경전 가운데의 여러 문자와 아울러 많은 발음의 다른 뜻을 물어 보았다. 이에 《十四音訓敍》를 저술하였는데, 조목별로 梵語와 漢語를 나열하여 소연히 깨달을 수 있게 되었으니 문자들이 의거할 바가 되었으니, 靈運은 인도 字母로 漢音을 정리하였다.”)

라고 했는데, 그 敍에 쓰여진 14음은 《隋志》에서 말하는 婆羅門音 14字이다. 近代 학자 黃侃은 《韻略例》에서

“按三十六字母之來源本因梵僧參採華嚴經四十二梵音字母，按中國字音而造，初不過以便僧徒念呪，其後中國人遂遵用之。

（“36字母의 내원은 원래 梵僧이 《華嚴經》 梵音 42字母를 참고한 것이고 중국 字音이 만들어져서, 초에는 僧徒들이 염불을 외우는데 편리하게 한 것이었는데, 그 후에는 중국인들이 점차 그것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華嚴經》 梵音 42字母는 곧 36字母의 내원이다.”)

라고 했고, 劉復은 《守溫三十六字母排列法之研究》에서

“三十六字母者，乃由印度梵文字母中變化而來，可無疑矣。惟其審理擇排列，非全依梵文字母，乃參酌中華當時之語音而成。凡梵文所有而華語所無者，彼則減之，華語所有梵文所無者，彼則增之。據華梵字母之比較，因知守溫所定三十六字母乃根據中華之語音，非直

錄梵文字，此三十六實足以代表、當時較普通之音也。”

(“36字母란, 곧 인도 梵文字에서 변화된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단지 그 배열을 살펴보면, 완전히 梵文'字母'에만 의존한 것은 아니고 中華 당시의 語音도 참고하여 만든 것이다. 梵文에 中華 語音이 없는 것은 그것에서 감소시켰기 때문이고, 華語에 梵文이 없는 것은 그것에서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華와 梵 字母를 비교해 보면, 守溫이 30字母를 정한 것은 中華의 語音에 근거했음을 알 수 있고, 직접적으로 梵文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 30字母는 실제로 당시에 보통의 음을 대표하기에 족하다.”)

라고 했는데, 이를 통하여 중국의 36字母는 당시의 음을 근거로 梵文字母를 증감시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敦煌 石室에서 발견된 守溫의 30字母를 발음부위에 따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南樂漢比丘守溫述

脣音		不, 芳, 並, 明
舌音	舌頭音	端, 透, 定, 泥
	舌上音	知, 徹, 澄, 日
牙音		見(君), 溪, 羣, 來, 疑
齒音	齒頭音	精, 清, 從
	正齒音	審, 穿, 禪, 照
喉中音清		心, 邪, 曉
喉中音濁		匣, 喻, 影

이러한 30字母가 宋代에 이르러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는데, 音韻學者들은 당시 實際音을 근거로 非數奉微床娘 6개의 字母를 증가시

켰으며, 또한 원래 있던 字母을 바꿔 새롭게 漢語音韻學上的 전통적인 36字母을 아래와 같이 만들었다.

雙脣音	幫/p/ 滂/p'/ 並/b/ 明/m/
脣齒音	非/f/ 敷/f'/ 奉/v/ 微/mj/
舌尖中音	端/t/ 透/t'/ 定/d/ 泥/n/
舌面音	知/t/ 徹/t'/ 澄/d/ 娘/n/
舌尖前音	精/ts/ 清/ts'/ 從/dz/ 心/s/ 邪/z/
舌面音	照/tɕ/ 穿/tɕ'/ 牀/dʒ/ 審/ɕ/ 禪/z/
舌根音	見/k/ 溪/k'/ 群/g/ 疑/ŋ/
舌根音	曉/x/ 匣/y/
喉音	影/ʔ/
半元音	喻/j/
舌尖中音	來/l/
舌面音	日/n/ ⁴⁹⁾



위에서 제기한 守溫의 30字母와 36字母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36字母가 娘, 牀, 奉, 微, 幫, 微가 더 많다.
2. 30字母의 脣音 不, 芳이 36字母의 非, 敷를 대체한다.
3. 30字母의 脣音에는 輕重의 구별이 없다.
4. 30字母 중에서 心, 邪 2母는 喉音에 속한다.
5. 30字母 중 예, 日, 來母는 각각 舌上音과 牙音에 속해 있다.
6. 30字母 중에서 影母는 全濁音에 속한다.

49) 顧義生外 韓鏡鎬譯 《漢語音韻學入門》, p.107.

守溫 30字母의 배열과 宋人の 36字母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字母는 唐, 宋간에 梵文 등의 字母를 참고로 《切韻》등에 나타난 切語의 聲紐와 당시 實際音을 참고하여 만들어낸 것으로, 僧團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3. 等韻圖

等韻圖란 反切拼音法이 점차 통용된 후, 反切의 보완방법으로 그려진 도표를 일반적으로 韻圖라고 하나 실제로는 일종의 反切圖이다. 즉 쉽게 볼 수 있는 한자 발음을 찾아보는 “查音表”인 것이다.

오늘날 韻圖의 創始者는 알 수 없다. 《康熙字典》(A.D. 1715)권 두에 “大等韻者, 梵語悉曇”이라 한 것 같이 等韻은 悉曇 字母의 결합과 분리를 보이기 위해 작성된 悉曇章을 모방한 것이다. 悉曇(Siddham)이란 悉𑖀, 悉談, 七曇, 七日 등으로도 쓰여 悉曇文字 또는 이에 관한 학문의 총칭이다. 悉曇文字는 불교의 東漸과 더불어 중국에 전해졌다. 여기에서 말한 悉曇章이란 인도에서 아동에게 梵文을 가르치기 위해 梵語의 聲母를 위쪽에 韻母를 우측에 배열하여 만든 일종의 識字用 字母表(拼音表)를 칭한다.

智廣의 《悉曇字記》에서

“悉曇十二字爲後章之韻，如用迦字之聲。對阿伊甌等十二韻呼之。則生得下‘迦’，‘機’，‘鉤’等十二字。次用法字之聲，則生得‘佉’，‘欺’，‘求’等十二字；次生‘伽’，‘其’，‘求’等十二字”

(悉曇 12字는 章의 뒤에 오는 韻이다. 예를 들어 ‘迦’ 聲을 사용하여 阿, 伊, 甌 등 12韻에 배합시키면 아래의 迦, 機, 鉤 등 12字가 생기고 다음에 ‘佉’ 聲을 사용하면 伽, 欺, 求 등 12字가 생기고, 다음에 ‘伽’，‘其’，‘求’ 等 12字가 생긴다.)

라고 말하고 있듯이 等韻圖는 이러한 여러 개의 轉圖를 옮겨 놓은 것이다. 等韻圖에서는 한 도표 안에서 가로와 세로의 聲母와 韻母가 합쳐져서 한 字의 음을 이루는데, 이는 바로 불교 경전의 “轉韻”의 원리를 답습한 것이다.

鄭樵의 《通志七音略》에서 “參禪하면 大悟하게 되고, 通音하면 小悟한 것이다.”란 말이 있는데, 승려들은 大悟前에 小悟라도 하려고 通音에 專心하였다.

通音이란 子音, 母音을 결합하여 읽는 법을 통달한다는 말이다. 이렇듯이 梵語를 배우느라 子音과 母音의 결합 발음법을 익혔는데, 이러한 방법은 漢字음을 손쉽게 빨리 찾아보고 익히는데 머리를 써서 드디어 韻圖를 그리게 되었다.

等에 대하여 고대의 音韻學者들은 聲母에 대해 세밀한 분석을 했을 뿐만 아니라 韻母에 대해서도 세밀한 분석을 하였다. 韻母에 대한 분석은 대체적으로 세 부분에 착안하였는데 韻頭, 韻腹, 韻尾이다. 韻頭, 韻腹을 분석하여 모든 韻母를 開口와 合口로 분석하였다.

清代 音韻學者 江永은 《音學辨微》에서

合口者吻聚, 開口者吻不聚

(合口는 입술이 모아지는 것이고, 開口는 입술이 모아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오늘날에는 韻頭 혹은 韻腹이 /-u-/인 것은 合口라고 하고 韻頭 혹은 韻腹이 /-u-/가 아닌 것은 開口라 하였다. 이것은 宋元 시기의 분류법을 답습한 것으로, 이 시기에는 韻頭 즉 介音에는 /-i-/와 /-u-/ 두 종류밖에 없었는데, 후대의 /-y-/ 介音은

/-i-/와 /-u-/ 두 음이 결합하여 변화된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宋元의 二呼는 清代의 四呼로 변하여 現代까지 지속되고 있다.

現代 漢語에서는 韻頭나 韻腹이 /-i-/ , /-u-/ , /-y-/가 아닌 韻母를 開口呼라 부르고, 韻頭나 韻腹이 /-i-/인 韻母를 齊齒呼라 하며, 韻頭나 韻腹이 /-u-/인 韻母를 合口呼라 하며, 韻頭나 韻腹이 /-y-/인 韻母를 撮口呼라 한다.

韻頭、韻腹에 대한 분석을 옛 사람들은 分等이라 하여 모두 4等으로 나누었다. 等의 기록과 관계 있는 최초 문헌은 敦煌에서 발견된 唐寫本 《守溫韻學殘卷》 속의 〈四等重輕例〉이다. 후대의 宋元 等韻圖는 4개의 가로 네모간(橫格)을 사용하여 1·2·3·4等を 표시하였는데 開口나 合口는 각각 4等이 있을 수 있다.

清代의 등운학자 江永의 해석에 의하면

一等洪大，二等次大，三四皆細而四尤細⁵⁰⁾

(1등은 발음할 때의 開口度가 가장 크고, 2등은 다음으로 크다. 3·4등은 모두 작고 4등은 더욱 작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洪音은 혀의 위치가 낮고 비교적 뒤인 모음을 가리키고 細音은 혀의 위치가 높고 비교적 앞인 모음을 가리킨다. 따라서 1·2등은 /-i-/ 介音이 없고, 3·4등은 /-i-/ 介音이 있으며, /-i-/ 介音이 없는 韻頭는 洪音이고, /-i-/ 介音이 있는 韻頭는 細音이다. 이를 볼 때 等이란 바로 韻頭를 총당하는 介音 /-i-/의 유무와 韻腹을 총당하는 主要元音의 발음 부위의 전후고저를 가리킬 뿐이다.

韻尾방면의 분석을 통하여 韻母를 陰聲韻, 陽聲韻, 入聲韻의 세

50) 江永; 《音學辨微·辨等例》

종류로 분류하였다. 陰聲韻이란 韻尾가 모음 /-i/, /-u/이거나 혹은 韻尾가 없는 韻을 가리키며, 不附聲韻이라 부른다. 陽聲韻이란 鼻音 /-m/, /-n/, /-ŋ/을 韻尾로 하는 韻을 가리키며 附聲韻이라 부른다. 入聲韻이란 塞音 /-p/, /-t/, /-k/를 韻尾로 하는 韻을 말한다.

이로써 등은 주로 韻母(모음)를 분석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四聲等子》와 《經史正音切韻指南》등과 같은 等韻圖에 보이는 攝이란, 韻尾가 같고 주요모음이 비슷해야 하는 원칙에 근거하여 韻母계통을 크게 16개 종류, 즉 16개 攝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그 16개 攝은 다음과 같다:

通攝, 江攝, 止攝, 過攝, 蟹攝, 臻攝, 山攝, 效攝, 果攝, 假攝,
宕攝, 梗攝, 曾攝, 流攝, 深攝, 咸攝.

이 16개 攝에는 고대 韻母 계통의 모든 韻母가 다 포괄되어 있으며, 여기에서의 攝은 “統攝”, 즉 통할한다는 뜻이다.

佛經에서 攝은 “總攝”, “歸總”의 뜻이 있다. 다시 말해 “少(적은 것)로써 多(많은 것)를 所持하고” “彼(저것)로써 此(이것)를 攝取한다”는 뜻이다. 佛經에서 쓰인 예를 들어보면

如是此論, 爲欲總攝如來廣大深法無邊義故.⁵¹⁾

(이렇게 논하는 것은 如來의 넓고 깊은 불법의 뜻을 總攝하기 위해서이다.)

皆各總攝一切法.

(모두가 각기 一切 法을 總攝하다.)⁵²⁾

51) 《人正新修大藏經》第32卷 “大乘起信論” 一卷, p.575.

52) 《大正新修大藏經》第32卷 “人乘起信論” 一卷, p.576.

不疲倦者自攝法行.

(피로해 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 法行을 攝取하다.)⁵³⁾

와 같은데, 이와 같이 韻母 계통의 종류를 나타내는 “攝”과 佛經에서 總攝의 뜻을 나타내는 “攝”은 일맥상통한 것이다. 그리고 韻母 계통을 16개 攝으로 나눈 것도 佛經의 四攝說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布施攝, 愛語攝, 利行攝, 同事攝, 菩薩以此四事攝化衆生, 故名四攝⁵⁴⁾.

(布施攝, 愛語攝, 利行攝, 同事攝이 있는데 菩薩은 이 네 가지 施設로 衆生을 攝取, 教化하였으니 故로 四攝이라 한다.)

와 같은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따라서 等韻圖上에서 사용되고 있는 攝에 대한 관념도 결국은 佛經 전래와 佛經에 나타난 悉曇을 모방한 것에서 발생한 것이다.

轉이란 술어는 최초로 聲과 韻이 교차되는 곳에서 약간의 字音을 차례대로 병합해 낼 수 있는 韻圖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佛敎에서는 轉이란 輾轉한다는 뜻이다.

본래 悉曇의 술어인데, 俞敏은 《音韻學研究》에서;

在一行裏用元音輪流跟一個輔音拼, 在一章裏輔音輪流跟一切元音拼就叫轉.

(한 행속에서는 元音을 사용하여 차례대로 하나의 輔音과 병합하고, 한 장속에서는 輔音을 사용하여 차례대로 모든 元音과

53) 《大正新修大藏經》第44卷 “大乘義章” 卷第十四, p.744.

54) 《大正新修大藏經》 第2卷 “仁王護國般若波羅密多經”.

병합하는 것을 轉이라고 한다.⁵⁵⁾)

라고 하였다. 즉 한 개 韻母가 많은 聲母와 결합하여 여러 개의 字음을 나타내고 한 聲母도 역시 不同한 韻母와 결합하여 여러 개의 字음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全滿 牙音 聲母는 東韻 一等과 결합하여 “公”字의 음을 표시한다.

東韻 一等은 또 다른 聲母들과 결합하여 여러 字음을 나타낸다. 즉 唇音의 次濁 聲母와 결합하여 “蒙”字의 음을 나타내고 全濁 聲母와 결합하여 “蓬”字의 음을 나타내며 舌音의 全滿 聲母와 결합하여 “東”字의 음을 나타내고 次滿 聲母와 결합하여 “通”字의 음을 나타내는 등이 그것이다.

이렇게 聲母와 韻母가 서로 輾轉하면서 字음을 표시하는 방법인 “轉”도 역시 불교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佛經의 “轉唱”에서 淵源된 것이며 梵文의 “字輪品”⁵⁶⁾에서 啓示를 받은 것이다. 梵文에는 體文과 摩多의 구분이 있는데 體文은 梵文의 자음을 가리키고 摩多是 梵文의 모음을 가리킨다. 梵文의 摩多是 12개이고 體文은 40여 개가 있는데 한 體文이 12개의 摩多와 돌림으로 결합하여 字음을 나타낸다고 하여 “字輪品”이라고 한 것이다.

이와 같이 漢語 音韻學에서 사용되고 있는 轉도 결코 불교를 떠날 수가 없는 것이다.

“門法”이란 韻圖를 사용하고 反切을 밝히기 위해서 창조한 條例이다.

韻圖는 韻書의 反切을 근거로 제정된 것이고, 韻書의 語音체계는 古今南北을 포괄하는 것이지만, 韻圖는 고정된 도표만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것이므로 때때로 反切과 韻圖 사이에는 약간의 모순이 생

55) 俞敏, 〈等韻溯源〉《音韻學研究》, 제1집, 中華書局, 1984

56) 《大毗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 卷第五 “字輪品”

길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語音의 변화로 인하여 옛날 反切은 이미 새로운 독음을 병합해낼 수 없었고, 옛날 反切 체계에 따라 편제된 韻圖도 옛날 격식과 새로운 독음 사이에 모순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門法이 만들어졌다. 이것을 等韻 門法 또는 간단히 門 혹은 法이라고도 한다.

門法이란 말은 佛典 중의 門法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한다⁵⁷⁾. 예를 들면 《心地觀經》에

“四衆有八萬四千之煩惱，故佛爲之說八萬四千之法門”

(중생에게는 8萬 4千 번뇌가 있기 때문에, 佛이 이들을 위하여 8만 4천 법문을 설하시다)

라고 했다. 예를 들면 《華嚴經》의 “十玄門”이란

同時具足相應門	廣狹自在無碍門
一多相容不同門	諸法相即自在門
隱密顯了俱成門	微細相容安立門
因多羅網法界門	託事顯法生解門
十世隔法異成門	主伴圓明具德門

이며, 淨土宗往生方法中에서 밝힌 “五念門”이란

禮拜門, 讚嘆門, 作願門, 觀察門, 迴向門

등인데,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우주간의 진리를 불교에서는 “法”

57) 竺家寧; 〈佛敎傳入與等韻圖的興起〉, 國際佛典研究創刊號, 1991. 12. pp.251~262.

이라 말하고 진리를 통해서 들어가는 입구를 “門”이라 하는 것이다.

등운도 중에서 최초로 門法이 게재된 것은 《四聲等子》이다. 그 중에 例가 있는데⁵⁸⁾

辨窠切門 辨振救門 辨正音憑切寄韻門 法例, 正音憑切門 寄韻
憑切門 互用憑切門 喻下憑切門 日母寄韻門法

《切韻指南》에 첨부된 〈門法上·鑰匙〉는 13條의 門法이 있다. 후에 明代의 승려인 真空(號 清泉, 明神宗 萬曆年間(1573~1620) 北京 慈仁寺에 있었고, 《等韻貫珠》 1卷을 지었다)이 《直指上·鑰匙 門法》 20條를 지어 門法을 집대성하였다:

1. 音和 2. 類隔 3. 窠切 4. 輕重交互
5. 振救 6. 正音凭切 7. 精照互用 8. 寄韻凭切
9. 喻下凭切 10. 日寄凭切 11. 通廣 12. 偏狹
13. 內外 14. 麻韻不定 15. 前三後一 16. 三二精照寄止音和
17. 就形 18. 創立音和 19. 開合 20. 通廣偏狹

4. 聲調

漢語는 음절 내부音義 높낮이 변화로 말미암아 聲調가 뜻을 변별하는 작용을 하는 언어이다. 즉 媽 mā(陰平)、麻 má(陽平)、馬 mǎ(上聲)、罵 mà(去聲) 등은 聲母, 韻母가 완전히 /ma/로 같지만, 이 네 글자의 발음은 高、低、升、降의 차이로 聲調가 다르다.

58) 顯義生等著·韓鏡鎬譯; 《漢語音韻學入門》, 學古房, 1999. p.404.

처음으로 四聲은, 佛經에서 轉讀의 3聲을 모방하여 平、上、去의 三調로 나눈 것처럼, 중국 語音의 실정에 따라 부득이 “入聲” 하나를 더 첨가하여 四聲의 원리를 세워 구분한 것이다. 즉 鼻音을 제외한 /-p/, /-t/, /-k/의 收尾音과 平、上、去 三聲을 분별하기 위하여 부득이 入聲을 따로 세워 四聲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것 또한 인도의 音理로써 중국의 音韻을 정리하다 새롭게 발명한 것이라고 하겠다.

周法高(1915~)는 그의 저서 《中國言語學論叢》에서

“필자는 일찍이 唐初(서기 7세기) 승려들이 梵文을 翻譯한 기록 가운데에서 四聲과 관련이 있는 기록을 찾아낸 바 있다. 그들은 梵文의 長短母音을 翻譯하는데 일반적으로 구별을 하지 않았다: 같은 글자를 때로는 長音으로 翻譯하기도 하고 때로는 短音으로 翻譯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聲韻 方面의 조건이 모두 같고 단지 長短音의 차이만이 있거나 또는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들은 聲調를 이용해서 그것을 구별하였다. 梵文字母의 翻譯은 長短音의 구별을 필요로 한다.”⁵⁹⁾

와 같이 말하였고, 唐 玄應의 《一切經音義》卷2 〈大般涅槃經文字品〉을 보면

哀 (a) 烏可反, 阿(ā); 壺(i), 伊(i); 塢 烏古反(u), 烏(ū); 理(l), 釐(ì) 力之反

; 釐(e) 烏奚反, 藹(ai); 汚(o), 奧(au) 烏故反⁶⁰⁾. 此十四字以爲

59) 周法高著, 李炳官編譯; 《中國言語學論叢》〈說平仄〉, 塔出版社, 1994, p 146

60) 日本 飛鳥寺 信行이 安然 悉曇藏 卷5(大藏經 卷84, p.411.)의 玄應 涅槃音義를 인용하여 “玄應께서 汚奧라 하시고 위의 글자는 烏故反이라 하셨다”고 한

音. 一聲之中, 皆兩兩字同, 長短爲異, 皆前聲短, 後聲長. 菴慈此二字是前惡阿兩字之餘者, 若不餘音, 則不盡一切字, 故復取二字以窮文字也.

哀 (a) 烏可反, 阿(a); 壹(i), 伊(i); 塢 烏占反(u), 烏(u); 瑛(l), 釐(l) 力之反 ; 釐(e) 烏奚反, 藹(ai); 汚(o), 輿(au) 烏故反. 이 14 글자를 音으로 삼는다. 발음은 모두 두 글자씩 모두가 같으나 長短이 다르다. 전부 앞의 것이 짧고 뒤의 것이 길다. 菴慈 이 두 글자는 앞에 있는 惡阿 두 글자의 나머지이다. 만약 餘音을 없게 하자면 모든 글자를 다룰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두 글자를 취해서 그 말을 다 한 것이다.)

와 같고, 또 義淨은 <南海寄歸內法傳> 61)에서

“脚”等二十五字並下八字(此指ka, kha, ga, na 等字母)總有三十
三字, 名初章; 皆須上聲讀之, 不可看其字而爲平去入也. ……十二聲
者, 謂是. (ka) 脚, (kā) 迦 上短下長; (ki) 枳, (kī) 雞 姜移反, 上
短下長; (ku) 矩, (kū) 俱 上短下長, (ke) 雞, (kai) 計 上長下短;
(ko) 孤, (kau) 告 上長下短; (kam) 甘, (kah) 筒 兩聲俱短, 用力
出氣呼. 佉等十二字並效此. 此十二字, 皆可兩兩相隨呼之, 仍須二
字之中, 看了註而取長短也

(“脚”등 25글자와 아래 8글자(이것은 ka, kha, ga, na 등의 字
母를 가리킨다.) 모두 33글자가 있는데 이를 初章이라 칭한다;
모두 上聲으로 읽고 그 글자를 볼 수 없는 것은 平去入이다

것으로 보아 烏故反은 汚字의 反切음임을 알 수 있다.
61) 위에서 인용한 <寄歸傳> 글귀는 오늘날 전해지는 책이 없기 때문에 일본
安然 <悉曇藏> 卷2(大正藏 卷84, p.380)와 卷4(p.408)에서 인용한 것이다. 卷
4에서 인용한 것은 節錄이어서 卷2에서 인용한 것과 비교하면 1~200字 정도
가 적다 高楠順次郎 <寄歸傳>의 英譯本에서는 <悉曇藏> 卷4에서 인용한
佚文을 抄錄하고 오히려 卷2의 인용문을 소홀히 하였는데, 이는 마땅히 補止
해야 할 것이다

……12聲은 다음과 같다: (ka) 脚, (kā) 迦은 앞은 짧고 뒤는 길다; (ki) 枳, (ki) 雞 姜移反은 앞은 짧고 뒤는 길다; (ku) 矩, (kū) 俱 앞은 짧고 뒤는 길다, (ke) 雞, (kai) 計 앞은 길고 뒤는 짧다, (ko) 孤, (kau) 告 上長下短; (kam) 𠵼, (kah) 筒 兩聲 모두 짧으므로 힘있게 소리를 낸다. 佉 등 12글자도 이와 같다. 이 12글자는 모두 두 글자 두 글자씩 서로 소리를 내는데, 역시 두 글자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了註를 보아서 長短을 취해야 한다.)

와 같이 말하였다. 이상에서 우리들은 玄應이 上聲 “哀, 塢, 理”와 入聲 “壺”을 사용하여 梵文의 短音을 표현했고, 平聲 “阿, 伊, 烏, 釐, 鯨”을 써서 長音을 표현했으며, 義淨은 上聲 “枳, 矩”, 去聲 “計, 告”, 入聲 “脚”을 이용하여 短音을 표시하였고, 平聲 “迦, 雞, 俱, 孤”를 써서 長音을 표시하였다.

모두 둘 씩 짝이 지어져 있어서 나누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나타내고 있는 短音은 모두 仄聲字이고 長音은 平聲字이다. 短音字 中에는 上聲이 가장 많은데 이에 대해 義淨은 “脚 등 33자는 모두 上聲으로 읽어야 하고 그 글자를 볼 수 없는 것은 平、上、入聲이 된다”라고 설명하였다. 아마 仄聲 가운데 上聲이 短音을 대표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여긴 듯 하다.

이밖에도 梵文을 音譯하는데 있어서 聲韻은 같은 데 長短이 다른 두 글자를 분별하는 방법으로 7세기 경 聲調를 이용하여 그들을 구별하기도 하였다.

玄應의 《一切經音義》卷3을 보면:

秋露子:梵言舍利佛, 舊言舍利子, 或言奢利富多囉, 此譯云鵠鴿子. 從母爲名; 母眼似鵠鴿, 或如秋露鳥眼, 因以名焉 舊云身子了者 謬也. 身者舍梨, 與此奢利, 聲有長短, 故有斯誤.

(秋露子: 梵語로는 舍利佛이라고 하는데 이전에는 舍利了 또는 舍利富多囉라고 하였다 이는 翻譯하면 鳩鵲了라고 하는데 그 어미를 따라서 이름을 지었다. 어미 눈이 구옥새와 비슷하고 또 秋露새의 눈과도 비슷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다 예전에는 身子라고도 하였는데 이는 틀린 것이다. 身이라는 뜻의 舍梨와 여기에서의 奢利와는 발음상 장단의 차이가 있으므로 그것은 잘못 된 것이다.)

라고 하였고, 玄奘의 《西域記》(貞觀 20년, 서기 646에 완성)卷4에도

舍利子:舊曰舍梨了, 又曰舍利佛, 訛略也

(舍利了: 예전에는 舍梨了 또는 舍利佛이라고 하였는데 잘못 된 것이다)

라고 하였다. 梵文에서는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奢利」는 śariputra이고, 身(身)를 말하는 「舍梨」는 śarīra이다. 玄應은 去聲 舍를 써서 短音 /śa/를 나타냈고, 半聲 奢를 써서 長音 /śā/를 표시한 것이다. 이와 같은 예를 좀 더 들자면

尸羅幢:案梵語云尸羅(śīla), 此云清涼; 若云試羅(śīla), 此翻爲玉, 謂以玉爲幢, 名尸羅幢也.

(尸羅幢: 梵語로 尸羅(śīla)는 맑고 시원하다는 뜻이다. 만약 試羅((śīla))라고 하면 玉이 된다. 玉으로 만든 휘장을 이름하여 尸羅幢이라고 한다.)

가 있는데, 여기서는 去聲 “試”를 써서 短音 /śi/를 나타냈고, 半聲

“尸”는 長音 /sɪ/를 나타냈다. 또 義淨의 〈南海寄歸內法傳〉 卷4를 보면

如喚男子，一人名補魯灑(puruṣah)，兩人名補嚕稍(purusau)，三人名補嚕沙(puruṣah)，此中聲有呼嚕重輕之別。

(남자를 부를 때 한 사람인 경우에는 補魯灑(puruṣah)，두 사람인 경우에는 補嚕稍(purusau)，세 사람인 경우에는 補嚕沙(puruṣah)사라고 한다. 이 때 발음에는 呼吸輕重의 차이가 있다.)

가 있으며, 여기서는 上聲 “灑”를 써서 短音 /ṣah/를 나타내고 平聲 “沙”를 써서 長音 /ṣāh/를 나타냈다.

이외에도 慧立의 〈大慈恩寺三藏法師傳〉 (688년) 卷3을 보면

丈夫：印度語名布路沙(puruṣa)體三轉者，一名布路殺(purusah)，二名布路笱(puruṣau)，三名布路沙(去聲)(puruṣah)。

(丈夫：印度語로 布路沙(puruṣa)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布路殺(purusah)，둘은 布路笱(puruṣau)，셋은 布路沙(去聲)(puruṣah)라고 한다.)

가 있으며, 여기서는 入聲 “殺”을 써서 短音 /ṣah/를 나타냈고 “沙”를 써서 長音 /ṣāh/를 나타냈다. 沙字는 원래 平聲인데 注에 去聲이라고 밝혀 놓았다. 明나라 판본 藏經에는 注가 달려 있지 않다.

이상의 몇몇 예를 볼 때 梵文에서 장음을 대표하는 글자들은 모두 平聲이고, 단음을 대표하는 글자들은 모두 仄聲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나라 초기의 四聲에는 장단의 구별이 있었음을 믿을 수 있다. 다만 그 정도가 梵文의 장

다음처럼 그렇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때는 장단을 구분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장단이 이미 귀로 듣기에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되자 필요한 경우에 平仄을 이용하여 장단을 표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모두 7세기경에 생겨났는데 이 때는 바로 근체시가 정식으로 발족되어 널리 유행하던 시기였다. 율시로 이름이 높은 沈佺期, 宋之間 등도 바로 이 시대에 활약하였다. 추측컨대, 다만 기록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보다 이른 시기에 이미 이와 같은 구별이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한다.

聲調는 漢語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서, 고대에는 감각적으로 느꼈을 뿐이었으나, 魏晉 시대에 反切이 생겨나면서 語音에 대한 연구가 점차 제고되었고, 漢語 聲調에 대한 인식 역시 점차 명확해졌다. 聲調의 구별은 실제 언어 가운데 존재하는데, 四聲에만 한정되지 않았고, 다섯 개의 聲調, 일곱 개의 聲調도 있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六朝 시대에 한자의 聲調를 구별하는데 ‘五音’의 이론을 사용하여 관찰하기도 하고, 平、上、去、入의 四聲으로 나누었을까? 이 문제에 대하여 近代 학자인 陳寅恪(1890-1969)이 전문적인 연구를 하였다. 四聲의 명칭은 인도 文化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六朝 齊梁 시대에 불교가 유입되면서 梵語의 영향으로 당시 학자들은 중국 고대 語音의 연구와 聲調에 관한 이론 및 인도 佛經에 나오는 ‘轉讀’의 聲調 분류를 참고로 하여, 漢語의 聲調를 정하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陳寅恪의 주장이다. 그는 “四聲三問”⁶²⁾을 지었는데, 그 요점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물음· 중국에는 무엇 때문에 四聲의 학설이 생기게 되었는가? 즉 왜 四聲으로 정하고, 五聲이나 혹은 七聲 또는 기

62) 陳寅恪; 〈四聲三問〉 清華學報 9卷, 제2기.

타 여러 개의 聲調로 나누지 않았는가?

答: 이른바 四聲으로 나누고 기타 여러 숫자의 聲調로 나누지 않은 까닭은 쉽게 분별되는 것을 골라 이를 入聲이라는 類로 나누고 다시 그 나머지의 聲調를 나누어 平、上、去의 三聲으로 분별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종합하니 사성이 된 것이다. 그러나 그 나머지의 聲調를 셋으로 나누게 된 까닭은 당시 중국에서 佛經을 轉讀하던 세 가지의 聲調에 근거를 두고 모방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중국에서 佛經을 轉讀하던 三聲은 고대 인도 ‘聲明論’의 三聲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天竺 園陀의 聲明論에 근거하였는데, 그 聲調의 높낮이에 따라 셋으로 나누었다. 첫째가 udatta이고, 둘째가 svarita, 셋째가 anudatta이다. 불교가 중국에 들어오면서 佛教徒들이 경전을 轉讀할 때 구별하였던 세 가지 聲調가 중국의 平、上、去의 三聲과 부합하는지를 지금은 자세히 알기 어렵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聲調의 높낮이를 세 단계로 나누었다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다. 漢語의 입성은 모두 /-k/, /-p/, /-t/ 등의 자음韻尾를 갖고 있는데, 이는 특수한 類로서 다른 聲調와 가장 쉽게 구별된다. 平、上、去는 그 소리의 高低에 서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몇몇 聲調는 마땅히 구별해야 하는데, 따로 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중국 지식인들은 당시 佛經을 轉讀하는 소리에 근거를 두고 이를 모방하여 平、上、去 三聲을 구별하였고, 入聲을 합하면 꼭 四聲이 된다.

두 번째 물음: 四聲說은 중국 지식인들이 佛經을 轉讀하는 소리에 근거하여 이를 모방한 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과연 그렇다면, 인도의 轉讀 소리가 지식인들 사이에서 유행한 역사는 매우 오래되어 위로는 魏晉代에서 아래로는 隋唐代에 이르기까지 6、7백년 간 음을 탐구한 지식인과 聲調를 잘 아는 승려가 많아졌을 것이니, 그렇다면 어느 시대 누구라도 四聲說을 발명할 수 있었을 텐데, 어째서 이 說은 하필이면 南齊 永明 때에 성립되었는가? 그리고 어째서 四聲說을 처음 만든 사

답은 다른 누구도 아닌 周顛、沈約의 무리인가?

答. 南齊 武帝 永明(483~493) 7년 2월 20일, 竟陵의 京邸에 모인 것은 이 새로운 학설의 연구 성과를 발표한 데 불과하였다. 이것이 바로 四聲說의 성립이 南齊 永明 년간에 놓인 까닭이며, 周顛、沈約의 무리가 이 새로운 학설을 대표하는 사람이 된 이유이다.

세 번째 물음: 《宋書·謝靈運傳》、《南史·陸厥傳》에 기록된 厥과 沈約이 묻고 답한 글 및 《詩品》에 기록된 王融이 鍾嶸에게 한 말을 읽어보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무릇 沈約이 논한 것과 厥이 約에게 물은 것, 約이 厥에게 물은 것, 約이 厥에게 답한 것, 融이 嶸에게 말한 것은 모두 四聲의 문제이다. 그러나 모두 宮商 五聲이라 했을 뿐, 절대로 四聲이라는 말은 언급하지 않았다. 만약 四聲과 五聲이 같은 것이라면, 沈約은 五聲의 舊說을 사용해도 괜찮을 텐데, 어째서 四聲說을 새로 만들고 “四聲譜”를 따로 편찬하였는가? 만약 四聲과 五聲이 다른 것이라면, 沈約이 논한 것은 논한 것이 아니고, 融이 말한 것은 말한 것이 아니며, 厥이 물은 것은 물은 것이 아니고, 約이 답한 것 역시 답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四聲과 五聲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答: 宮、商、角、徵、羽 五聲은 중국 전통의 이론으로서 聲調의 본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同治、光緒년간의 학자들이 ‘중국학을 실체로 삼는다’란 것과 같고, 平、上、去、入 四聲은 서역에서 유입된 기교로서 聲調의 실용을 말하는 용어인데 이는 同治、光緒년간의 지식인들의 ‘서양학은 응용이다’라 한 것과 같은 이치라 할 수 있다. 대체로 중국에서 聲調를 宮、商、角、徵、羽라 말하고 있는데 이는 당연한 이치이다. 平、上、去、入 사성의 구별은, 서역에서 전해온 경전의 轉讀을 모방한 방법으로 중국에서 문장을 짓는데 사용한 것이다. 聲調의 응용에 있어서 ‘서로 뒤바뀌고 들쭉날쭉 변하게 되는데’ 이는 ‘天子學哲’의 예로

서 순전히 기교 방면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聲調표를 작성할 수 있었다. 즉 작성한 표에 따라 聲調를 나누고 글자를 선택하고 꺾어 넣어 문장을 짓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 즉 五聲說과 四聲說에서 하나는 巾이고 하나는 西라 할 수 있고, 하나는 古이고 하나는 夙이라 할 수 있으니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다른 체계이다. 이치를 따지자면, 본체 자체를 지칭하는 것은 五聲이라 할 수 있고, 글을 짓는다는 실용성에 의거하자면 四聲을 나누어 표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진실로 이것을 이해한다면, 沈約이 논한 것, 王融이 말한 것, 厥이 約에게 물은 것, 約이 厥에게 답한 것을 아는 것이다 따라서 五聲만을 말하고 四聲은 말하지 않은 것이다.

四聲三問에서 두 번째는 그 시작 시기에 관한 것이고, 첫 번째와 세 번째는 四聲의 起因에 대한 설명인 바, 陳氏의 주장대로라면 四聲은 곧 인도어의 聲調를 본 따 체계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反切법 역시 인도의 표음 文字의 영향을 받아 촉진된 표음방법이었음을 미루어 생각할 때, 사성의 체계 또한 그러했을 가능성이 짙다고 보겠다.

V. 〈一切經音義〉

1. 版本과 作者

《一切經音義》는 玄應의 《一切經音義》 25권, 慧琳의 《一切經音義》 100권, 希麟의 《續一切經音義》 10권이 현존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가 불교 경전의 용어를 해석하면서 수많은 고서의 자료를 인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고서의 佚文을 찾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비교 교감함으로써 中古 시기 언어 文字의 音義 변화의 발자취를 추적할 수 있어서 漢語史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

저작된 시대순으로 약술하면 玄應의 《一切經音義》는 佛經의 字義를 해석해 놓은 책으로 唐代 大慈恩寺에서 佛經 翻譯을 관장하던 스님 玄應이 지었으며, 총 2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唐書·藝文志》에서는 《衆經音義》라고 적혀 있고, 《大唐內典緣》에서는 《大唐衆經音義》라고 하였으며, 《開元釋教錄》에서는 일반적으로 저자의 이름을 따라 《玄應音義》라고 약칭하였다.

玄應의 생수는 자세하지 않으나, 《續高僧傳》(《한글대장경》)63)에서는

“서울(京師)사문 玄應도 역시 字學에 대한 풍부한 식견으로 도속들이 추대하는 대상이 되었으며 경전의 발음에 관한 글을 지었는데 매우 명목(科)과 근거가 있는 글이었다64).”

63) 人止藏 《續高僧傳》卷四十 雜科聖德篇 智果傳

64) 《한글대장경》 속고승전③ 서울 동국대학교 역경원 1998. p.489.

라고 했으며, 《大唐內傳錄》에서는

“大慈恩寺玄應法師以貞觀末歷勅召參傳，拊拾藏經爲之音義，注釋訓解，援引群籍，證據卓明，煥然可領，恨絃綴才了，未及復疏，遂從物故。”

(“大慈恩寺의 玄應 法師가 貞觀말 때 왕의 명을 받들어 佛經에 註釋을 다는 작업에 참여하였다. 여러 藏經을 모아서 음과 뜻을 풀이하였는데 注釋을 달아 풀이함에 있어서 여러 서적들을 두루 원용하였으니 증거가 매우 분명하기 때문에 한번에 명확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애석하게도 그 작업이 막 종료되고 나서 미처 다시 살펴보기도 전에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다⁶⁵⁾.”)

라고 하였고, 彦棕의 《開元釋教錄》，慧立의 《慈恩法師傳》卷6, 《續高僧傳》卷5 〈玄奘傳〉 등에 기록이 보인다. 이외에도 일본의 神田喜一郎은 《支那學說林》 〈緇流의 二大小學家〉에서

“玄應은 唐代 長安人總持寺의 沙門이며 字學에 연구가 깊었고, 貞觀 19년(645)부터 현장이 譯場에 참가하여 글자의 자형을 바로 잡는 일을 하였다. 다시 대자은사에 住錫하면서 《一切經音義》를 편찬하였으며 현장의 영향을 많이 받아 현장의 제자였으리라고 추측되며 아마도 龍朔 元年(661) 좌우에 사망하였을 것이다”

와 같이 말하여, 玄應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고증하였다. 이 책의 판본은 현재 파리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敦煌·一切經音義殘

65) 全廣鎮編譯; 《中國文字訓詁學辭典》，서울, 東文選, 1993. p 341

卷》이 최초의 판본이다. 현재 《大正新修大藏經》에 玄應의 책이 수록하지 않은 慧琳의 《一切經音義》에 포함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玄應의 《一切經音義》가 인용한 古書로는 경전의 注釋뿐만 아니라 고대의 字書와 訓詁書들에 이른다. 그것들 중에 《爾雅》, 《方言》, 《釋名》, 《玉篇》 같은 서적들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들이며 《倉頡篇》, 《三倉》, 《通俗文》, 《古今字詁》, 《埤倉》, 《聲類》, 《韻集》 같은 류는 일찍이 망일되어 지금은 그 모습을 볼 수 없는 것들이다.

이 책의 體制는 456種의 佛經에 나오는 語彙들을 經別로 제시하고 해석하였으며 제1권~제20권까지는 玄奘 以前에 翻譯된 舊譯本 佛經 430종을 大乘과 小乘으로 구분하고 經·律·論 傳記類 등으로 분류하여 注釋을 달았으며, 제21권 마지막 제25권까지는 현장이 翻譯한 大승경 13종 大승론 11종 小승론 2종을 취급하였다.

慧琳의 《一切經音義》는 당나라 때 佛經 翻譯에 종사하였던 스님인 慧琳(737~820)이 지은 것이다. 당나라 貞觀년간에 玄應이 저술한 《玄應音義》 25권을 底本으로 하여, 貞觀 이후에 새로이 翻譯한 經論과 玄應이 注釋을 달지 아니한 佛經을 대상으로 慧琳이 注를 달아 놓은 것이다. 총 1백 권이며, 저자의 이름을 붙여 《慧琳音義》라 약칭하였다.

慧琳의 生平에 대하여 《一切經音義》卷一에 실려 있는 試太常寺 奉禮郎 景審의 서문에서

대흥 선사 慧琳 法師는 私家の 성이 裴씨이고 疏勒國 사람으로 不空 三藏의 제자이다. 그는 密敎에 정통하였으며, 華夏의 文字와 聲韻, 古印度의 「聲明」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한 바 있다.

이 책에서 정해 놓은 字音은 元庭堅의 《韻英》과 張戢의 《考聲》을 준칙으로 삼은 것이다. 뜻을 풀이함에 있어서는 《說文解字》、《字林》、《玉篇》、《字通》、《古今正字》、《文字典說》、《開元文字音義》 등의 책을 주로 참고함과 아울러 경전과 역사서의 注釋을 인용하기도 하였다. 전적을 훈고 하는 데 20여 년의 심혈을 기울였다. 즉 德宗 建中 말년(783)에 시작하여 憲宗 元和 2년(807)에서야 비로소 완성되었던 것이다. 元和 12년(817) 2월 30일 西明寺에서 탈고하였다.

와 같이 말하고 있으며, 宋나라 贊寧은 그의 《宋高僧傳》에서, 慧琳은 德宗 貞元 4년(788)에 《一切經音義》를 집필하기 시작하여 元和 5년(810)에 탈고하였으며, 元和 15년 庚子(820)에 세상을 떠났으니 향년 84세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景審이 기록한 것과 약간 차이가 있는데, 慧琳이 景審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었으니 景審의 기록이 마땅히 더 옳다고 본다.

慧琳의 책이 완성된 시기는 中唐 시기에 완성되었다고 볼 때, 그가 참고한 고서는 극히 많았으리라는 짐작이 간다. 그의 책은 文字의 성운에 대하여 깊이 고찰함과 아울러 자의를 깊이 통찰하여 玄應이 지은 것에 비하여 상세한 편이다. 글자의 음을 논함에 있어서 秦音을 주로 하고 吳音은 취하지 아니하였는데 예를 들어 浮泡를 설명한 곳에서

上輔無反。廣雅浮漂也。鄭注禮記在上曰浮。賈注國語浮輕也。說文泛也，從水孚聲也。吳音薄謀反今不取。⁶⁶⁾

(위 글자의 음은 輔無反이다. 《廣雅》에서는 浮는 漂(떠다니 다)라고 했고, 鄭씨가 注한 《禮記》에서는 위에 떠 있는 것을

66) 《一切經音義》卷四 人盤若波羅密多經 第三百五十卷 第一張.

[浮] 라 한다 費씨가 注한 《國語》에서는 浮는 輕(가볍다)이라고 했고, 《說文》에서는 泛(물위에 뜬)이며, 義部는 水이고 聲部는 浮이다. 𠵼音은 薄談反인데, 지금은 취하지 않는다.)

라고 한 것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또한 이 책은 글자의 뜻을 풀이하는데 있어서 字形을 분석하고, 그러한 풀이의 근거를 상세하게 소개해 놓았기 때문에, 이 책은 文字혼고를 연구하기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없어진 古書를 輯錄하고 교감하는 데에도 크게 유용한 것이다.

이 책의 체재는 《大般若波羅密經》으로부터 《護命放生經》에 이르기까지 1,225종 5,700여 권의 佛經에서 뽑은 36,000여 용어의 음과 뜻을 60만 자의 글자로 注釋하였다. 이 가운데 337종의 佛經은 《玄應音義》를 참고한 것이며, 1종은 慧苑의 《華嚴經音義》, 5種은 雲公의 《涅槃經音義》 및 大乘基法師의 《法華經音訓》를 참고한 것이며, 146종은 佛經의 제목만 써 놓고 注釋한 것이 없으므로 慧琳이 注釋한 것은 736종의 佛經에 불과하며, 이 책은 唐末의 戰禍로 인하여 입어 없어지고, 다행히 燕京은 남아 있다.

遼나라 聖宗 通和 5년(987)에 燕京의 스님 希麟은 《續一切經音義》 10권을 편찬하였는데, 후에 慧琳의 《一切經音義》와 함께 고려 제23대 고종(1214~1259)때 《再雕藏經》에 수록되어 한국에 전해졌으며, 다시 바다를 건너 일본에 전해졌다. 일본에서 《一切經音義》 正續本을 翻刻한 해는 중국의 淸 高宗 乾隆 2년(1737)에 해당한다. 淸末에 이르러 소학은 이미 쇠퇴일로를 걷고 있어서 한동안 주춤하다가, 《音義》 正續本이 중국 학자의 손에 들어온 것은 頻伽 精舍에서 영인할 때로, 이 해는 이미 民國 원년(1912)이다.

希麟의 《續一切經音義》는 佛經의 자의를 해석한 책으로 遼나라

의 승려 希麟이 지은 것이다. 希麟은 燕京에 있는 崇仁寺의 스님이었는데, 《開元釋教錄》이 나온 이후에 翻譯된 佛典에 대해서는 音義書가 없었으므로 그가 慧琳의 책을 모방하여 音義를 해설하였던 것이다. 이 책은 총 10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大乘理趣六波羅密多經》에서 시작하여 《續開元釋教錄》으로 끝나고 있다. 이에 수록되어 있는 각종 佛經은 총 226권에 달하며, 이 책이 인용하고 있는 古書의 종류는 매우 많고, 인용 방식과 용도는 慧琳의 책과 동일하다.

《一切經音義》(《續一切經音義》 포함) 종합 정리하여 표를 만들면 다음과 같다:



年 度	王 朝	內 容
西紀 810	唐 元和 5年	慧琳의 《一切經音義》가 완성되어 京師西明寺에 藏稿本이 보관됨
840	唐 開成 5年	30년후 顧齊之가 열람하고 서문을 지었다.
851	唐 宣宗 大中 5年	內部大藏에 들어가게 奏請하여 入藏함.
880	唐 廣明 元年	黃巢의 亂에 의해 《一切經音義》가 戰火를 입어 亡佚되었다.
936	後 唐 清泰 3年	《一切經音義》가 燕京崇仁寺에 보존되었는데 「燕雲十六州」에 따라 契丹에 들어왔다.
955	後 周 顯德 中	高麗國에서 使臣齊金을 보내어 《一切經音義》를 요청하였으나 얻지 못하고 돌아감. 《宋高僧傳·京師西明寺 沙門慧琳傳》
987	遼 聖宗 統和 5年	燕京崇仁寺 사문 希麟은 《續一切經音義》 10卷을 편찬함.
1054	遼 興宗 重熙 22年	《契丹藏》이 완성됨.
1072	遼 咸雍 8年	高麗에 《契丹藏》 일부가 들어오고 이 중에 《一切經音義》가 포함됨
1251	高麗 高宗 38年	《一切經音義》가 고려 「再雕藏」에 판각됨.
1285	元 至元 22年	《法寶 勘同目錄》에 《一切經音義》를 수록함.
1485	明, 天順 2년	日本은 《一切經音義》를 조선에서 들여옴.
1738	淸, 乾隆 3년	日本 京部 獅谷白蓮社에서 혜림의 《一切經音義》를 翻刻함.
1880	淸 光緒 初	中國은 《一切經音義》를 일본에서 들여옴
1912	民國 元年	上海 滌伽精舍에 慧琳書를 復印하여 「빈가장」에 수록함.
1924	民國 13年	丁福保는 《一切經音義》 附通檢을 石印本으로 간행함.
1928	昭和 3年	日本 《大正新修大藏經》이 완성되고 54권에 수록됨.
1931	昭和 13年	日本 帝國人學에서 高麗本 《一切經音義》를 重印함
1970	民國 59年	臺北大通書局에서 고려본 《一切經音義》를 景印함.
1976	東國大學校	보급판 《高麗大藏經》을 완간 《一切經音義》는 42卷, 43卷에 해당

2. 中國語學史上的 位置

5천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漢語는 文字가 생기고 語音, 語彙, 語法의 체계가 형성된 역사만도 3천여 년이나 된다. 漢語의 시대적 구분이란 바로 이 3천여 년에 대한 구분을 말하는 것으로, 주로 語音 및 語法의 변화 상황을 근거로 한다.

대체로 중국언어학사를 개관하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단순히 王朝별로 그 특징을 알아보는 방법이다. 즉 先秦, 兩漢, 魏晉南北朝, 唐, 宋, 元, 明, 淸 등 각 시기별로 언어학의 발전 과정을 서술하는 것이다. 胡奇光의 《中國小學史》(上海人民出版社 1987)는 이와 같은 방법에 따라 쓰여진 책이다. 이 방법은 시대를 구분하는 데는 편리한 점이 있지만 각 시기의 언어특징을 서술하는 데는 미흡하다. 언어란 왕조가 바뀐다고 해서 같이 바뀌거나 또 하 루아침에 어떠한 힘에 의해 변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는 언어학의 연구성과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다. 王力은 이런 방법에 따라

‘訓詁위주의 시기(先秦~漢)’, ‘韻書위주의 시기(漢末~明末)’,
‘文字、聲韻、訓詁 전면적인 발전시기(淸初~1898 중국 최초의 어법서인 《馬氏文通》이 출판되기까지)’, 그리고 ‘西學東漸의 시기’(1899~1949)

등 네 시기로 나누었는데, 이 같은 방법은 시기별로 그 특징을 알

아보기에는 편리하지만 시기를 구분하는데 작자의 주관이 지나치게 작용한 점이 없지 않다. 또한 ‘韻書위주의 시기’가 漢末에서 明代까지인 것도 너무 길뿐만 아니라, 한 시대를 하나의 특징으로 설명하는 방법은, 한 시대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특징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셋째는 앞의 두 방법을 절충한 것이다. 즉 중국언어학의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하되 그 특징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 한 왕조를 참고로 하여 시기를 나누는 방법이다. 周法高는 이러한 방법에 따라

- (1)上古期, 先秦에서 漢末(B.C. 3세기 전후~A.D. 3세기 초)
- (2)中古期, 漢末에서 五代(3세기 초~10세기 말)
- (3)近古期, 宋에서 明末(10세기 말~17세기 초)
- (4)近代期, 明末에서 民國初 5.4운동시기(17세기~20세기 초반 약 20년 간)
- (5)現代期, 1920년 전후에서 현재

와 같이 구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周法高의 설에 따라 그 시기를 구분하고 각 시기의 특징을 알아보겠다.

(1) 上古期

漢代 이전에는 몇몇 사상가(특히 荀子)들이 언어에 대해서 단편적인 지식은 갖고 있었지만 체계적이지는 못하였다. 漢代에 이르러 經學이 부흥하면서 매우 중요한 저작들이 출현하게 된다. 그 가운데에서도 西漢 초기의 《爾雅》, 西漢末 楊雄(B.C.53~A.D.18)의 《方言》, 東漢初 許慎의 《說文解字》, 그리고 東漢 말 劉熙의 《釋名》 등이 대표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說文

解字》는 중국 최초의 완전한 字典으로서, 文字의 形體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周秦 시대의 古音을 연구하고 文字의 本義를 파악하는데 귀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文字學은 물론 音韻學과 訓詁學에서도 매우 높은 가치가 있다.

(2) 中古期

이 시기에는 佛敎의 傳來로 말미암아 이전까지는 오직 文字와 訓詁에만 전념하고 소리에 대해서는 연구를 소홀히 하던 士大夫 文人들이 梵語(Sanskrit)라는 소리글자를 만나 비로소 자신들 언어의 소리방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漢語의 聲調가 平、上、去、入聲으로 구분되고, ‘反切’이라는 표음방식이 출현한 것도 바로 이 무렵이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魏 李登의 《聲類》, 晉 呂靜의 《韻集》과 같은 韻書들이 나오기 시작하였으며 隋나라 陸法言의 《切韻》(A.D.601)은 그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唐代에는 두 언어의 언어 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승려인 義淨이 지은 《梵唐千字文》이 있고, 불교 경전의 음과 뜻을 풀이한 것으로는 玄應의 《一切經音義》와 慧琳의 《一切經音義》 등이 있다.

한편 字典으로는 晉 呂沈의 《字林》과 梁 顧野王之 《玉篇》 등이 있고, 訓詁學 方면의 성과로는 魏 張揖의 《廣雅》와 唐 陸德明의 《經典釋文》를 들 수 있다.

이 時期에는 佛典의 漢譯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있어서 최초의 外來語라고 할 수 있는 梵語가 輸入되기 시작하고 同時에 中國語의 語音系統과 語法成分에 새로운 變化가 일어난 것이다. 語音系統에 있어서 中國語의 劃期的인 變化에 重要한 역할을 한 反切, 四聲, 等韻學 등이 창조되었고, 語法 方면에 있어서는 現代 漢語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새로운 語法成分이 창출된 것이다. 따라서 중국

音語學史에 있어서 가장 重要하고 가장 많은 變化를 가져온 時期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3) 近古期

이 시기는 文字學、音韻學、訓詁學 등 각 방면이 고루 발달한 시기로, 오늘날의 發音表에 해당하는 等韻圖도 이 시기에 발달하였다. 《韻鏡》과 《七音略》 등이 있었고, 그 후에는 《四聲等子》, 《切韻指掌圖》, 《切韻指南》 등이 있었으며, 宋代에는 《切韻》의 증보판이라고 할 수 있는 《大宋重修廣韻》(A.D.1008)과 《集韻》 등이 있었다. 또한 清代에는 중국 글자를 가장 많이 수록하고 있는 책인 《康熙字典》이 있고, 이후로 金나라 韓道昭의 《五音集韻》, 元나라 黃公紹의 《古今韻會》와 이것의 축약본인 熊忠의 《古今韻會學要》, 明初의 《洪武正韻》 등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현재 중국 북경어의 원류를 살펴볼 수 있는 元나라 大都(지금의 北京)의 방언을 기술한 周德清의 《中原音韻》(A.D.1324)이 가장 중요한 저작이라고 할 수 있다.

(4) 近代期

이 시기에는 音韻學방면에 있어서 周秦시대의 古音에 대한 연구가 특히 활발하였는데, 淸初의 顧炎武를 비롯하여 江永, 錢大昕, 段玉裁, 孔廣森, 王念孫, 江有誥 등과 民國初의 章炳麟, 黃侃 등이 큰 공헌을 하였다. 隋、唐시대 韻書를 연구한 것으로는 陳澧의 《切韻考》(A.D.1842)가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하나의 특기할 사실은 1898년 馬建忠이 최초의 어법서인 《馬氏文通》을 출판한 일이다. 이 이전의 語法 연구는 대부분 訓詁學의 한 부분으로 虛詞에 대한 연구에 치우쳤으나, 《馬氏文

通》이 나온 이후 중국에서는 비로소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언어구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하게 되었다.

(5) 現代期

중국의 언어학은 5.4운동 이후 새로운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 시기 초반에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은 스웨덴 출신의 칼그렌(Klas Bernhard Johannes Karlgren, 1889~1978)이었다. 그는 자신의 중국이름을 칼그렌의 'Karl'의 소리를 본떠 '高'를 성으로 하고, 이름은 '나는 본래 중국사람이다'라는 뜻으로 '本漢'이라고 지었다. 칼그렌의 가장 큰 공로는 音韻學방면으로 그 중에서도 反切, 音表 그리고 方言이라는 세 가지 재료를 互用하여 切韻音을 상세하게 再構成(re-construction)한 일이다.

칼그렌은 《佛典音譯文字안에 있어서의 古代漢字音表》67)에서 佛典音譯文字와 중국 고대음을 말하고 있지만 고대음은 독자적인 재구음이어서 참고할 수는 없다. 그가 말한 고대음은 소위 中古音을 가리키며, 그전의 古音은 遠古音이라고 하지만 周, 秦 시대의 음과 같은가 하는 의심의 여지가 남아 있다.

다음으로 마스페로는 《唐代長安의 方言》68)에서 중국의 7세기, 8세기 음을 梵語譯經音을 통하여 재조명함으로써 그것을 음성학적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고, 더욱이 代音, 中世音, 타이음, 安南音, 漢音, 甌音등을 音韻學적으로 고찰하고 있어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는 특히 서양의 佛典音 연구학자로서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학자이다.

67) Bernhard Karlgren, pronociation Ancienne de caractters chinois figurant dans les transcriptions Bouddhiques T'oung Pao. Vol. XIX.

68) H. Maspero, Le Dialect de Tch'angan sous les Tang BEFEO. 1XX. No2. 1920.

다음으로 홀스타인이 《音譯梵書與中國古音》에서 多羅尼音 외에도 佛典音에는 古音が 잔존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汪榮寶는 《歌戈魚模古讀考》에서 梵語譯經音을 상세히 논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羅常培는 《唐五代西北方音》에서 《漢藏對音大乘中種見解殘卷》, 《藏文譯音阿彌陀經殘卷》, 《藏文譯音金剛經殘卷》 등과 같이 敦煌石窟에서 발견된 版本에 나타난 字音を 音聲, 音韻學的으로 철저히 고찰하여 音義 연구로는 압권이라 할 만하다. 이리하여 마스페로의 연구와 달리 唐音 연구는 완벽에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王力, 周法高, 唐蘭, 董作賓, 于省吾, 容庚, 李孝定, 郭沫若, 革同穌, 呂叔湘, 周祖謨, 李方桂, 羅常培, 趙元任, 沈兼士 등이 있으며 이들은 佛典音 研究에 一家見을 갖고 있다.

이상의 발전 단계를 살펴 볼 때 漢語 발전사에 있어서 가장 큰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시기는 바로 中古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획기적인 변화는 바로 불교 文化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말하자면 中古 시기 漢語 語音, 語彙, 語法的인 변화와 발전은 불교 文化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그러한 변혁은 그 후의 漢語의 발전에 계기를 마련해 주고 現代 漢語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언어학은 佛經의 전래와 佛典의 漢譯은 별개로 연구될 수 없으며, 중국언어학상 중대한 영향을 끼친 불교의 방대한 용어 사전인 《一切經音義》는 그 연구의 가치가 충분한 것이다.

3. 音韻體系

《一切經音義》에 대한 기존 연구로는 黃涑伯의 〈慧琳一切經音義反切考〉를 들 수 있다. 그는 논문에서 《一切經音義》의 反切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의 성과는 높이 평가할 만 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가 정리한 反切을 《一切經音義》에 나타난 음운 체계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중국에서 聲母를 구분한 것으로는 唐末 僧 守溫의 30字母가 최초라고 할 수 있으나, 당시의 語音체계와 잘 맞지 않아, 宋代 이후에는 주로 唐末에서 宋初의 시기에 성립된 것으로 믿어지는 36字母를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것도 陳澧가 《廣韻》을 系聯하여 얻은 《切韻考》의 40聲母와는 다른데, 36字母에서는 분리되지 않았으나, 中古에 이미 분리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正齒音을 분리하고, 陳澧가 《切韻考》에서 明母에서 분리시키지 않은 微母를 분리하면 41聲類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표로 만들면 아래와 같다.

清濁 音	全 清	次 清	全 濁	全 清	全 濁	不清不濁
脣音 重脣音 輕脣音	幫 p 非 f	滂 p' 敷 f'	並 b' 奉 v(bv')			明 m 微 m̥
舌音 舌頭音 舌上音	端 t 知 t̚	透 t' 徹 t̚'	定 d' 澄 d̚'			泥(娘) n
牙音	見 k	溪 k'	群 g'			疑 ŋ
齒音 齒頭音 齒上音 正齒音	精 tɕ 莊 tʃ 章 tɕ	清 tɕ' 初 tʃ' 昌 tɕ'	從 dz' 崇 dʒ 船 dz'	心 s 生 ʃ 書 ɕ	邪 z 俟 ʒ 禪 z	
喉音	影 ʔ	曉 x ^(h)	匣 ɣ ^(h)			云ɥ(j) 以∅
半舌音						來 l
半齒音						日 nʒ

상기의 41聲類를 《一切經音義》의 反切과 비교해 보면, 몇 가지 특징을 알 수 있다.

① 41聲類에 설정되어 있는 敷母가 《一切經音義》에서는 非母에 혼합되고 있다. 즉 潘은 [發爰切]·[敷袁切]⁶⁹⁾을, 芬은 [方文切]·[芳文切]을, 斐는 [非尾切]·[妃尾切][孚尾切]을 등의 反切을 사용하여 非母와 敷母를 구분하지 않고 있어서, 《一切經音義》에서는 輕脣音에서 이미 送氣音이 不送氣音에 섞이고 있다. 普通話에서도 重脣音은 送氣音과 不送氣音이 구분되고 있으나 輕脣音에서는 단지 不送氣音만 있는 것을, 이때 이미 그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② 娘母字가 泥母에 섞이고 있다. 中古에서 娘母와 泥母의 분리 여부는 학자들 간에 차이⁷⁰⁾가 있어서 단언할 수가 없다. 단지 《切韻考》에서는 분리하고 있으며, 《一切經音義》에서도 분리하고 있다.

③ 《切韻考》에서는 邪母에 4等字⁷¹⁾가 있어서 從母와 구분되어 字母를 따로 설정하고 있으나, 《一切經音義》에서는 僞의 反切로 [就由切]과 [似由切] 등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그것이 모두 從母에 섞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中古音의 체계와는 다른 모습이지만 普通話에서도 中古의 邪母字 중 일부가 오히려 破擦音으로 읽히는 것과 비슷하다.

④ 《切韻考》에서는 照系字⁷¹⁾를 각각 2等字와 3等字로 나누어, 2

69) [發爰切]·[敷袁切]에서 의 앞은 非母字를 뒤는 敷母字를 나열하며, 이하 같다.

70) 王力(《漢語史稿》, p.50.), 李榮(《切韻音系》, p.28.), 董同龢(《漢語音韻學》, p.28.), 陸志韋(《古音說略》, p.20.) 등은 합치고 있는 반면, 周法高(《論切韻音》, p.95.), 高本漢(Compendium 중역본 p.26.) 등은 분리하고 있다.

71) 2等の 莊系字와 3等の 章系字를 포함한다.

等에는 莊·初·崇·生·俟母⁷²⁾를, 3等에는 章·昌·船·書·禪母 등을 설정하고 있으나, 船母에 배열되어야 하는 乘 등의 글자가 오히려 禪母와 섞이고 있어서 船母가 없다. 이는 파찰음이 마찰음으로 읽히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현상은 普通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위에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一切經音義》의 聲類를 표로 작성해 보면 다음과 같이 36類로 나눌 수 있다.

	全 清	次 清	全 濁	全 清	全 濁	不 清 不 濁
脣音 重脣音	補(幫)	普(滂)	葡(並)			莫(明)
脣音 輕脣音	方(非,敷)		扶(奉)			武(微)
舌音 舌頭音	都(端)	他(透)	徒(定)			奴(泥,娘)
舌音 舌上音	陟(知)	敕(徹)	直(澄)			
牙音	居(見)	羌(溪)	渠(群)			魚(疑)
齒音 齒頭音	子(精)	七(清)	情(從, 邪)	先(心)		
齒音 齒上音	側(莊)	楚(初)	仕(崇)	所(生)		
齒音 正齒音	之(章)	昌(昌)	式(書)	時(禪, 船)		
喉音	烏(影)	呼(曉)	胡(匣)			喻(云),以(以)
半舌音						力(來)
半齒音						而(日)

위에서 작성한 36聲類는 圓明字輪의 42字母, 《涅槃經》 根本字의 49字母와 그 숫자에 차이가 있으나, 이것은 두 언어의 음운체계가 달라 悉曇에는 있으나 당시 漢語에는 없는 것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불가피한 조치였을 것이며, 재구된 음운 체계는 당시 중국 語音의 양상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는 것이다.

4. 特徵

72) 俟母는 李榮(《切韻音系》, p.28.)과 董同龢(《漢語音韻學》, p.28.)가 설정하고 있으나, 王力(《漢語史稿》 p.50), 陸志韋(《古音說略》 p.20.), 周法高(《論切韻音》 p.95.), 高本漢(Compendium 중역본 p.26.) 등은 설정하지 않았으므로, 《一切經音義》에서 설정하지 않은 것은 논의하지 않는다.

아래에서는 중국 언어학사에 있어서 이렇듯 커다란 의미를 갖는 《一切經音義》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1) 《說文解字》를 보충할 수 있다

慧琳 《一切經音義》 29권 金光明 最勝王經 卷一 金光明條에 明을 예로 들면, 慧琳은 《說文解字》의 “義部는 囧인데 囧은 窗을 본떴으며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밝은 것이다. (從囧, 囧象窗, 月光入窗明也)”라고 해석하였다. 즉 明은 원래 시적인 의미가 풍부한 會意字인데, 現行本 《說文解字》에는 단지 비치다는 의미이다. 意部는 月과 囧이다. (照也, 從月囧)”라고만 한 것을 보충하였다.

2) 外典⁷³⁾의 注釋을 교정할 수 있다

慧琳 《一切經音義》 91권 《續高僧傳》 1권 滄雲條에서는 《詩經·小雅·大田》의 “덕장구름이 매우 질게 깔렸다.(有滄萋萋)”라는 구절에 대해서, 毛箋에는 “滄은 구름이 일어나는 모양이다.(滄, 雲興貌)”라고 하였지만, 慧琳의 저작에서는 “滄은 검은 구름이 낀 모양이다. (滄, 雲興貌)”라고 인용하였다. 이것은 《玉篇》、《顏氏家訓·書證》에서 인용한 것과 같으며, 《說文解字》에서 “비구름이 낀 모양(雨雲貌)”이라고 해석한 것과도 근사하다. 즉 滄을 “구름이 일어나는 모양”으로 해석한 毛公의 毛箋은 본의가 아님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3) 古音을 고증하여 교정할 수 있다

73) 佛經 이외의 서적 즉 유가의 《詩經》, 《論語》, 도가의 《道德經》 등과 같은 서적을 말한다.

慧琳 《一切經音義》 15권 大寶積經 109권 姿態條에 보이는 態는 《說文解字》에서는 “생각이다. 意部는 心이고 能이다.(意也. 從心從能)”라고 하였고, 段玉裁는 이것을 “심리상태이다. 意部는 心과 能이고 能은 역성이다.(意態也, 從心能, 能亦聲)”라고 고쳤다. 이 말의 의미는, 能이 의미를 표시할 뿐 아니라 소리도 나타낸다는 것이다. 慧琳은 《說文解字》를 인용하여 “자태의 의미이다. 意部는 心이고 聲部는 能이다.(姿也, 從心、能聲)”라고 하였다. 能의 고음은 耐로서 원래는 態와 疊韻으로 訓釋한다. 이와 같이 볼 때, 漢代 이전의 音을 반영한 《說文解字》의 音을 교정하고 있으며, 이는 清代의 段玉裁가 注한 《說文解字注》와 일치한다.

4) 학술적 가치가 많다

《慧琳音義》의 주요한 가치는 史料라기 보다는 학술상에 있다. 최초로 《慧琳音義》의 학술적 가치를 지적한 사람은 서문을 쓴 처사 顧齊之와 승려 景審이다. 顧齊之의 서문은 당 文宗 開成 5년 (840)에 씌어졌는데, 서문에서는 《音義》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여,

“文字之有音義, 猶迷方而得路, 慧燈而破闇.”

(“文字에 音義가 있는 것은 마치 방향을 잃어 헤매다가 길아 슬기롭게 지혜의 燈(慧琳을 가리킴)을 밝혀 어둠을 돌파하는 것과 같다.”)

라고 하고, 여기에서 출발하여 체계적으로 음운과 훈고로부터 入道成佛하는 길을 제시해 주었다:

“得其音則義通, 義通則理圓, 理圓則文無滯, 文無滯則千經萬論

如指掌而已矣，朝凡暮聖，豈假終日，所以『不離文字而得解脫。』”

(“그 글자의 음을 알면 의미가 통하고, 의미가 통하면 이치가 원만해지며, 이치가 원만해지면 글이 막히는 것이 없게 되고, 글이 막히는 것이 없게 되면 일체의 경론이 손바닥을 가리키는 것과 같이 쉽게 느껴질 뿐이다. 숲에 능통하면 아침에는 범인이고 저녁에는 성인인데, 어찌 온종일을 허비하는가! 그러므로 『文字를 떠나지 않아야 해탈할 수 있다.』”)

景審의 서문에서도 마찬가지로

無離文字解脫也.

(文字를 떠나지 않은 것이 해탈이다.)

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慧琳과 함께 密宗의 일파에 속하는데, 이 때문에 그들은 약속을 하지 않고도 똑같이 《慧琳音義》를 통하여 “文字를 떠나지 않아야 해탈할 수 있다.(不離文字而得解脫)”은 이치를 강조하여, 禪宗에서 내세우는 ‘不立文字、明心見性’이라는 주장에 대항하였다. 똑같이 부처가 되고자 하나 부처가 되는 길은 각기 다른데, 즉 선종에서는 文字를 세우지 않고 密宗에서는 文字를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文字를 떠나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密宗과 선종의 분계선이 되었다. 만일 文字를 떠나지 않는다면 음운으로부터 착수해야 한다.

慧琳의 法師 不空은 《大方廣佛華嚴經·入法界品·四十二字觀門》이라고 佛經을 翻譯하였다. 이른바 ‘四十二字觀門’은 阿에서 시작하여 荼(혹은 佗)로 끝나는 42개의 字母로서, 모든 글자의 근본이며 도를 터득하고 부처가 되는 법문이다. 이리하여 반드시 음운으로부터 훈고에 통달하고 훈고로부터 佛經의 이치에 통달한다는 주

장은, 鄭玄이 말한

就其原文字之聲類考訓詁、捃秘逸、

(그러한 근원적인 文字의 성류를 가지고 훈고를 고찰하고 신비한 것과 실전된 것을 얻는다.)

라는 원칙을 한 걸음 발전시킨 것으로, 이것은 또한 玄應에서 慧琳까지의 각종 《音義》에 대한 이론적 개괄이다.

5) 音으로 의미를 추구할 수 있다

慧琳의 《一切經音義》 28권 《維摩詰所說經》 卷上 嬈固條에 慧琳에 앞서 玄應이 이미 음으로써 의미를 추구하는 모범적인 실례를 보여 준다. 예를 들면 《維摩經·菩薩品》에는 “是爲魔來，嬈固汝耳”라는 말이 있는데, 예로부터 佛經 해석학자들은 嬈固의 본의를 알지 못하였으며, 심지어는 마귀에게 흔들리는 것을 嬈라하고 마귀가 움직일 수 없는 것을 固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玄應에 이르러 비로소 嬈固는 擾固의 通假로서 “이것은 마귀가 소란을 피워 너를 심증나게 하고 미혹되게 할뿐이다.(此魔作擾亂厭蠱也)”라는 의미임을 알게 되었다. 이렇듯 한 마디로 진상을 밝힐 수 있는 것이다.

6) 梵語 音譯語에 치중하였다

《一切經音義》는 《爾雅》、《說文解字》가 대체할 수 없는 독특한 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산스크리트어 音譯語에 치중했다는 것이다. 산스크리트어 音譯語를 해석해야 한자의 형체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다.

慧琳 《一切經音義》7권 《大般若波羅密多經》 520卷 琰魔王條에 예를 들면 琰魔王은 이전에 閻羅王이라 하였고, 佛經에서는 閻魔王이라고 하였는데, 실제로 이들은 동일한 단어로서 平等王으로 의역된다.

慧琳 《一切經音義》32권 彌勒下生成佛經 忻樂條에 예를 들면 忻樂은 欣樂 또는 喜樂으로 쓰기도 하며, “모두 기뻐서 웃는 모양”이라고 해석하였다. 이런 몇 가지 예를 통하여 《一切經音義》가 音譯에 치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7) 社會文化 현상을 결합하여 語義를 분석했다

《一切經音義》의 다른 특징은 社會文化 현상을 결합하여 어의를 분석했다는 점이다. 일부의 산스크리트어 音譯語는 이미 漢語 속에서 통용되고 있었으며, 慧琳도 그 단어의 본의를 하나하나 지적하였다. 예를 들면 慧琳 《一切經音義》6권 大毘舍婆羅經 515권 刹那條에 刹那는 원래 산스크리트어의 시간을 계산하는 명칭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一日一夜有三十須臾，每一須臾計有三十臘縛，又於一臘縛之中計有六十怛刹那，又於一怛刹那中分爲一百二十刹那。時中迅促不過刹那。

(하루 낮 하루 밤에는 30須臾가 있고, 매 수유마다 30臘縛이 있으며, 또한 한 납박에 60怛刹那가 있고, 또한 한 달찰나에는 120찰나가 있다. 시간의 개념 속에는 아무리 빨라도 찰나를 넘지 못한다.)

또한 중국의 시간계산법과 비교해서

一日一夜有十二時，共分爲一百刻，一刻之中約有七萬剎那時也，言極迅疾，促於瞬息也

(하루 낮 하루 밤에는 12시가 있어 모두 100刻으로 나누어지는데, 1각에는 대략 7만 찰나의 시간이 있게 된다. 이것은 지극히 신속하고 빠른 것을 말하며 瞬息보다 빠르다.)

라고 하여 燈과 같이 본원을 탐구하는 정신은 진실로 사람을 탄복하게 한다.

慧琳 《一切經音義》41권 《大乘理趣六波羅密多經》 1卷 蘇莫遮 冒條에는 慧琳이 산스크리트어에 정통하였을 뿐 아니라 서역의 언어까지도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여 주는 예가 있는데, 蘇莫遮에 대한 해석은 모범적인 실례라고 할 만하다.

蘇莫遮，西戒胡語也。正云颯磨遮。此戲本出西龜慈國，至今由猶有此曲。此國渾脫大面撥頭之類也。或作獸面，或象鬼神，假作種種面具形狀；或以泥水沾洒行人，或持網索搭鉤捉人爲戲。每年七月初，公行此戲，七日乃停。土俗相傳云：常以此法，攢厭驅，趁羅利惡鬼食啗人民之災也。

(蘇莫遮는 서역의 이민족 말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颯磨遮이다. 이 놀이는 본래 서역의 구자국에서 나왔는데 현재까지도 이로 말미암아 이 곡조가 있게 되었다. 이것은 국혼탈대면발두의 부류이다. 어떤 것은 짐승의 얼굴을 만들고 어떤 것은 귀신의 형상을 본 뜨는 등, 여러 가지 가면의 형상을 빌어 만들었다. 어떤 사람은 흙탕물을 행인에게 뿌리고, 또 어떤 사람은 網索⁷⁴⁾이 나 고리를 가지고 사람을 잡아채며 놀이를 한다. 매년 7월 초에

74) 不動明王이나 千手觀音이 가진 끈.

이 놀이가 공개적으로 행해지면 7일이 지나서야 끝난다. 지방 풍속에는 '항상 이 방법으로 싫어하는 대상을 물리치고, 나리악귀가 인민을 잡아먹는 재앙을 몰아낸다'라고 전해진다.)

즉 蘇莫遮라는 단어의 해석을 통하여, 그는 한 폭의 고대 서역의 풍속화를 나타낸 것이다.

8) 단어의 역사적 변천으로부터 불교 추상명사를 해석

慧琳 《一切經音義》6卷 《大般若波羅密多經》 506卷 地獄條에서 慧琳은 또한 단어의 역사적 변천으로부터 불교의 추상명사를 해석하였다. 예를 들면 地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는 먼저 獄의 발생 원인을 해석하여

《急就章》云：皋陶始造獄堯臣名也。《玉篇》云：囚繫之所，囚名爲獄。杜預注《周禮》云：爭財曰訟，爭罪曰獄。

(《急就章》에는 '고요는 처음으로 獄을 만든 요임금의 신하 이름이다'라고 하였으며, 《玉篇》에는 '죄수가 매어 있는 장소이며, 그래서 옥이라고 명명하였다'라고 하였으며, 杜預는 《周禮》를 注釋 하여 '재물을 소송하는 것을 訟이라 하고, 죄를 소송하는 것을 獄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라고 했으며, 獄의 역사적 변천을 지적하여

《風俗通》云：三王爲獄，夏曰夏臺，殷曰羑里，周曰囹圄。自秦漢已還，通名爲獄。《說文》云：獄，確也(確音苦角反)，獄字從獲(魚斤反)，二犬相嚙，中心者訟也。會意字。二犬所以守也。

(《風俗通》에는 '삼대에서 옥을 만들었는데, 하나라에서는

夏臺이라고 하고 은나라에서는 羨里라고 하며, 주나라에서는 囹圄라고 하였다. 진한 이후로는 이미 원래대로 돌아와서 獄이라고 통칭하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說文解字》에는 獄은 견고하다는 의미이다. 獄의 意部가 獲이며, 두 마리의 개가 서로 깨물고 있고 가운데 글자 言은 소송하는 것으로 회의자이다. 두 마리의 개는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라고 했고, 다시 방향을 전환하여, 佛經에서 말하는 地獄을

經言地獄者，冥司幽繫之所也。在世界之下，故云地獄。

(佛經에서 말하는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은 저승 관리가 죄수를 가두는 곳이다. 세계의 아래에 있으므로 지옥이라고 한다.)

라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반대로 사람들로 하여금 미신을 타파하게 하였는데, 원래 저 세상에 있는 지옥은 바로 인간 세상에 있는 감옥을 투영한 것이다.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一切經音義》는 불교의 義書를 집대성한 것으로 당대의 훈고 중에서 첫 번째로 손꼽힐 만하다.

9) 佚文을 찾을 수 있다

《一切經音義》 100卷의 기술에 따르면, 蕙草의 《往五天竺國傳》은 원본이 3卷이었을 것이나, 현재 전해지는 것은 파손이 심한 한 권 뿐이다.

1908년 프랑스 Pelliot에 의해 敦煌의 牛佛洞에서 수집한 古 문서 중 앞뒤가 찢려 나간 두루말이 필사본이 발견되었는데, 제목도 저자명도 없는 6천 여 字의 찢막한 글이었다. Pelliot는 이것이 기행문임을 알고 《一切經音義》의 《往五天竺國傳》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음을 간과하여, 이것이 완전히 사라진 줄 알고 있던 蕙卓의 《往五天竺國傳》임에 틀림없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또한 1909년에는 羅珍玉도 《敦煌石室遺書》 제1에 이것을 영인하여 Pelliot 주장을 확인하였다.⁷⁵⁾

한국의 고려대장경 안에 《一切經音義》가 포함되지 않았더라면 영원히 후세에 알려지지 않았을 귀중한 문헌을 찾는데 큰 공헌을 한 것이다.

10) 同音假借字를 찾을 수 있다

假借字는 同音假借와 義近假借로 나눌 수 있는데, 慧琳의 《一切經音義》에 나타난 異體字는 대부분 同音假借字이다. 그것을 4類로 귀납해 보면

① 본래 그 글자가 없어서, 음은 같으나 뜻이 다른 글자를 빌린다. 예를 들어 朶朶는 본래 없던 글자였으나, 同音인 朶利를 빌려쓰다가 후에 만든 형성자이다.(《音義》 27卷 p.27.) 𧈧의 𧈧은 본래 단지 同音의 尺을 빌려 사용하다가, 후에 𧈧을 만들게 되었다

② 본래 그 글자가 있는데도, 同音의 글자를 빌린다. 예를 들어 巖은 馬念을 假借한 것이다.(《音義》 14卷 p.8.) 係는 繫, 繼를 假借한 것이다(《音義》 9卷 p.8.) 纒는 裁, 財를 假借한 것이다(《音義》 18卷 p.16.) 福은 富를 假借한 것이다.(《音義》 20卷 p.12.)

③ 형성자의 意符가 나타내는 뜻이 모호하여 同音의 글자를 빌린다. 예를 들어 抗은 伉을 假借한 것이고, 攘은 讓을 假借한 것이다.(《音義》 45卷 p.17.) 諭는 愉을 假借한 것이다.(《音義》

75) 鄭承碩; 《佛典解說事典》 서울, 서울민족사, 1989.

88卷 p.20.) 銷는 消를 假借한 것이다.(《音義》8卷 p.16.) 鋒은 峯을 假借한 것이다.(《音義》11卷 p.2) 悖는 𡗗를 假借한 것이다.(《音義》8卷 p.20.) 唵는 調를 假借한 것이다.(《音義》14卷 p.14.) 媮는 愉를 假借한 것이다.(《音義》45卷 p.10) 烟은 烟을 假借한 것이다(《音義》11卷 p.6)

④ 형성자의 音符만을 同音의 다른 글자로 바꾼다. 예를 들어 噯은 그것과 동음인 것을 假借할 수 있고, 게다가 意符도 또한 같은 噫, 隘이다(《音義》56卷 p.4) 暝은 眠을 假借하였다.(《音義》67卷 p.6.) 涪은 涌을 假借한 것이다.(《音義》22卷 p.15) 誼는 議를 假借한 것이다.(《音義》9卷 p.15.)

와 같은데, 위의 例이에서 볼 수 있듯이 《一切經音義》을 이용하여 同音假借字의 同音假借字의 古音과 方音의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다. 慧琳의 《一切經音義》에서 인용한 同音假借字가 만약 古籍에 注를 단 것이라면, 古籍이 쓰여진 당시의 讀音을 알 수 있을 것이며, 만약 經을 쓴 사람의 同音假借字라면, 이 글자는 唐代音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1) 《一切經音義》는 上古 漢語와 近代 漢語가 서로 교차하는 中間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최초로 佛經을 번역할 때는 번역자가 외운 것에 의거하였는데, 번역자는 대부분 외국인이어서, 그들이 佛經을 번역할 때는 文言文이 아닌, 당시의 口語를 많이 썼다. 뿐만 아니라 종교의 경전은 진리를 전하고, 뜻에 부합되는 것을 중요시하고, 독자를 쉽게 이해시키는 것을 중시하여 고문의 아름다움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佛典 중에는 수많은 口語 성분을 포함하여 東漢에서 唐代까지 口語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佛典에서 東漢에

서 唐代에 이르기까지 文言文에서 古白話로 변화한 단서를 탐구한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다행스럽게도 慧琳이 佛經 經文을 언어 文字의 각도에서 《一切經音義》 100권을 저술하였다는데, 5700여 권, 약 31000여 條의 詞目에 소수의 외래어와 전문 용어를 제외하고 대부분 東漢에서 隋唐에 이르는 常用語를 수록하고 있다.

晚唐五代는 近代 漢語 형성의 기점인데, 마침 慧琳의 《一切經音義》는 고대 漢語에서 近代 漢語로 전환되는 時點을 선택한 것이다. 이때는 文言文은 점점 쇠하여, 口語가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여 文言文과 대립되기 시작했고, 古白話 계통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언어의 변화는 수 백 년을 거친 것이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은 아니다. 소련의 謝·葉·雅洪托夫는 《七至十三世紀的漢語書面語和口語》에서 變文과 話本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이론상 唐代 口語는 上古와 近代 漢語 성분의 평균적인 혼합이라고 가정할 수 있으며, 周代의 上古 漢語와 宋代의 話本의 중간 상태에 처해 있다”라고 했고, 또한 “이런 상황에서, 불교 설문의 문헌은 아마도 정확히 당시의 구어를 반영했을 것이다⁷⁶⁾”라고 지적하였다. 즉 慧琳의 《一切經音義》는 上古 漢語와 近代 漢語가 서로 교차하는 이런 상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眼睛”은 現代 漢語의 상용어로 “眼의 통칭”이지만, 고대 漢語에서는 “目”이다⁷⁷⁾. 唐代 소설에서도 일반적으로 “目”을 사용하고 있고, 變文과 宋代 話本에서는 “目”과 “眼睛”을 같이 사용하였다. 그런데 慧琳의 《一切經音義》에서도 “眼睛”과 “目”이 모두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⁷⁸⁾.

東漢에서 唐代까지의 시기는 漢語 語彙가 單音詞로부터 復音詞로

76) 《語文研究》 1986. 4.

77) 《左傳·僖公二十四年》; “目不別五色之章爲味”

78) 慧琳; 《一切經音義》4卷 《大般若波羅密多經》 381卷.

넘어가는 시기로, 雙音節語가 이미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많은 단어가 고정되지 않았고, 새롭게 産生된 復音詞들은 대다수가 文書文에는 사용되지 않거나 드물게 사용되어 口語에만 대량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佛經 經文은 이런 단어들을 사용했으며, 慧琳의 《一切經音義》에도 이런 종류의 단어가 흔하게 사용되었는데, 많아서 일일이 다 들 수가 없다.

이와 같이 慧琳의 《一切經音義》는 일부 고대 漢語와 近代 漢語가 서로 교차하는 상황을 반영한 辭書라고 할 수 있다. 즉 近代 漢語와 現代 漢語 중의 死語 등을 연구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VI. 結論

중국은 일찍이 서역과 政治, 軍事, 通商의으로 긴밀하게 교섭하면서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가 유입되어, 문화뿐만 아니라 언어생활에 있어서 일대 변혁을 가져오게 되었다.

佛敎가 중국에 유입되면서, 文字와 文化를 중요시하는 중국인들은 그들의 言語와 文字로 불교를 이해하기 위하여 佛典의 漢譯 作業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佛典을 漢語로 翻譯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다. 중국인들에게 佛敎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格義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佛經이 지닌 思想的인 내용을 중국 고유의 전통적인 사상이나 文化에서 찾아 翻譯을 해야 했으며, 더욱 어려운 것은 表音文字인 梵語와는 달리 한 글자 한 글자가 독립된 의미를 갖는 表意文字로 翻譯을 해야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表音文字인 梵語를 漢語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梵語가 漢語에 끼친 영향은 막대하였던 것이다.

인도는 예로부터 여러 민족이 교류하면서 혼합되었기 때문에 언어와 습관이 극히 복잡하게 되어, 諸民族이 모두 梵文字를 원조로 하면서도 서로 다른 많은 文字가 파생되었다.

반면 중국은 표의 문자인 한자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文字의 변혁이 거의 없었으며, 문자가 내포하는 다양한 뜻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하여 일찍이 訓詁學이 발달하였다. 그러나 불교가 전래되면서 梵語의 영향으로 音韻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특히 佛家에서는 가장 중요한 학문으로 받아들여졌다. 예를 들면, 唐 玄宗 開元 초기에 중국에 수입된 密宗은 呪文을 외우는 것이 특징이었는데, 呪文을 외울 때에는 반드시 梵語로 하고, 만약 음이 틀리면 영험함을

상실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특히 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말미암아 梵語에 대한 語音지식은 중국의 언어학을 발달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특히 중국의 音韻學은 불교의 전래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梵語가 漢語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면 대체로 아래의 몇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反切의 문제이다

漢代에는 訓詁學이 성행하여 譬況·讀若·直音法과 같은 음표 기법이 유행하고 있었으나, 後漢시기에 불교가 전래되자 表音文字인 梵文의 영향으로 언어학적인 근거에 따라 본격적으로 聲과 韻으로 분석하는 개념이 생기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反切法을 고안하게 된 것이다.

둘째, 字母의 문제이다.

反切法이 생겨 《廣韻》과 같은 韻書에서는 많은 反切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사용하는 글자가 너무 많아 번잡하였으므로, 그 가운데에서 한 글자를 골라 언제나 같은 글자로 특정의 聲母를 대표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중국에는 古來로 字母에 대한 관념이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佛經의 전래과정에서 접하게 된 婆羅門書 14字나 《華嚴經42字觀門經》 등을 참고로 하여, 梵語와 漢語 사이의 音韻體系를 고려하여 守溫과 같은 승려가 창출하여 傳한 것이다.

셋째, 等韻圖의 문제이다.

反切의 보완방법으로 그려진 도표인 韻圖는, 인도에서 아동에게 梵文을 가르치기 위해 梵語의 聲母와 韻母를 위와 오른 쪽에 배열하여 만든 일종의 識字用 字母表인 悉曇章을 모방한 것으로

이것 역시 불교의 傳來와 더불어 중국에 전해진 것이다.

넷째, 聲調의 문제이다.

梵文에는 長短音이 있었으므로 이런 梵語의 字母를 漢語로 翻譯하는 데에는 반드시 長短音의 구별을 필요로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聲調의 높낮이에 따라 udatta, svarita, anudatta 등 三聲으로 나누었던 고대인도의 '聲明論'을 모방하여, 먼저 平上去聲의 三調로 나누고, 漢語의 실정에 따라 入聲을 추가하여 四聲의 원리를 세웠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불교의 전래는 中古시기의 漢語에 語彙나 語法 뿐만 아니라 語音방면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漢譯 佛典의 언어를 연구하지 않고는, 중국언어학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그러한 영향은 현대 漢語에 까지 이른다. 따라서 이 시기 불교의 방대한 용어 사전인 《一切經音義》는 그 연구의 가치가 충분한 것이며, 《一切經音義》에 나타난 音韻현상은 그만큼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慧琳의 《一切經音義》에 나타난 音韻體系는 당시 漢語의 音韻體系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一切經音義》에 나타난 反切을 系聯하여 41聲類와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41聲類에 설정되어 있는 敷母가 《一切經音義》에서는 非母에 혼합되고 있다.

둘째, 娘母字가 泥母에 섞이고 있다.

셋째, 邪母의 4等字가 從母와 섞이고 있다.

넷째, 2等字와 3等字로 나뉜 照系에서, 船母에 배열되어야 하는 乘 등의 글자가 오히려 禪母와 섞이고 있어서 船母가 없다.

위에서 얻은 결과에 따르면 《一切經音義》는 36類로 나눌 수 있는 것이다.

《一切經音義》를 통하여 당시의 語音體系를 위와 같이 정리할 수 있지만 이외에도 《一切經音義》가 갖는 의미는 많다:

- 첫째, 《說文解字》를 보충할 수 있다
- 둘째, 外典의 注釋을 교정할 수 있다
- 셋째, 古音을 고증하여 교정할 수 있다
- 넷째, 학술적 가치가 많다
- 다섯째, 音으로 의미를 추구할 수 있다
- 여섯째, 梵語 音譯語에 치중하였다
- 일곱째, 社會文化 현상을 결합하여 語義를 분석했다
- 여덟째, 단어의 역사적 변천으로부터 불교의 추상명사를 해석할 수 있다.
- 아홉째, 佚文을 찾을 수 있다
- 열째, 同音假借字를 찾을 수 있다
- 열한째, 上古漢語와 近代漢語가 교차하는 중간상황을 반영하고 있어 당시의 古白話의 양상을 알 수 있다.

중국언어학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漢譯 佛典의 語音은 간과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이와 같이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語音의 연구는 의미 있는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불교에 대한 연구는 사상적인 면에 치우치고 있을 뿐, 어학적인 면은 무시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本論에서는 漢譯佛典語音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參考文獻

〈단행본〉

- 慧琳 《一切經音義》，《고려대장경》 42冊，43冊.
- 玄應 《一切經音義》，史書集成編.
- 《大正新修大藏經》 54卷，昭和 35，大正新修大藏經刊行會，日本 東京.
- 《한글대장경》，1998，東國大學校 譯經院.
- Wolfram Eberhard著·최효선 譯，1997，《중국의 역사》，문예출판사.
- 李學勤 著·河永 譯，1991，《고문자학의 첫걸음》，東文選.
- 芾少文 編·林東錫 譯，1993，《한어음운학강의》，동문선.
- 崔恰愛，1995，《漢字學講義》，통나무.
- 鄭性木，1991，《中國禪宗의 成立史研究》，民族社.
- 李教柱，1979，《漢字學總論》，博英社.
- 工力著·朴德俊外譯，1997，《중국어 語法 발전사》，사람과 책
- 工力著·權宅龍譯，1997，《中國語音史》，도서출판 대일.
- 王力著·李鐘振，李鴻鎮譯，1983，《中國言語學史》，계명대학출판부.
- 鄭泰燦，1968，《標準梵語學》，經書院.
- Bernhard Karlgren著·崔玲愛譯，1985，《古代漢語音韻學概要》，民音社
- 高明，民國 69，《高明小學論叢》，黎明文化事業公司
- 金克木，1996，《梵佛探》，河北教育出版社.
- 成元慶，1993，《韓中音韻學論叢 第1卷》，서광학술자료사.
- 이재창，1998，《불교경전의 이해》，경학사.
- 牧田諦亮 外著·梁銀容 譯，1984，《中國佛教史概說》，원광대학교
출판사.
- 崔恰愛，1998，《중국어란 무엇인가》，통나무.
- 芾同蘇，民國 72，《漢語音韻學》，文史哲出版社
- 이재돈，1994，《中國語音韻學》，살림.

- 케네쓰 첸 著 · 박해당 譯, 1991, 《중국불교(상)》, 민족사.
- 謙田茂雄 著 · 鄭舜日 譯, 1985, 《중국불교사》, 경서원.
- 謙田茂雄 著 · 卓輝玉 譯, 1992, 《중국불교사》 I · II · III,
도서출판 장승.
- 周人璞 著 · 정명수, 장동우 譯, 1997, 《훈고학의 이해》, 동과서.
- 金相根, 1993, 《中語學 基礎》, 중앙대학교 출판부.
- 高炳翊, 1997, 《東아시아 文化史論考》, 서울대학교 출판부.
- 周法高 著 · 李炳官 譯, 1989, 《中國言語學論叢》, 탑출판사.
- 이지수 編, 1989, 《산스크리트 입문》, 이문출판사.
- 와파나베 쇼오코 著 · 金無得 譯, 1983, 《經典成立論》, 경서원.
- Jerry Norman 著 · 全廣鎭 譯, 1996, 《중국언어학총론》, 동문선.
- 李新魁 著 · 朴萬圭 譯, 1990, 《中國聲韻學概論》, 대광문화사.
- 王力 著 · 吳世峻 譯, 1993, 《漢語音韻》, 중문출판사.
- 정인숙, 1993, 《중국어학사전》, 중문출판사.
- 胡奇光 著 · 李宰碩 譯, 1997, 《中國小學史》, 동문선
- 玄奘法師 著 · 권덕주 譯, 1983, 《大唐西域記》, 우리출판사.
- 望月信亨 著 · 金鎭烈 譯, 1995, 《불교경전성립의 연구》, 불교시대사.
- 程湘清 編, 1992, 《隋唐五代漢語研究》, 山東教育出版社.
- 토오도오 교순, 시오이리 료오도 著 · 차차석 譯, 1992, 《중국불교사》
대원정사.
- 李敦柱, 1995, 《漢字音韻學의 理解》, 탑출판사.
- 아서 라이트 著 · 양필승 譯, 1994, 《中國史와 佛敎》, 신서원.
- 김동진 編, 1998, 《中國言語學概說》, 보성.
- 中國人百科全書 言語文字編輯委員會 · 全廣鎭 譯, 1993,
《中國文字訓詁學總論》, 동문선.
- 鄭承碩 編, 1989, 《불전해설사전》, 민족사.
- 魏承思, 1990, 《中國佛敎文化論稿》, 上海人民出版社.
- 文璇奎, 1987, 《中國古代音韻學》, 민음사.
- 何九盈, 1995, 《中國現代言語學史》, 廣東教育出版社.

- 안병국編, 1998, 《古代漢語 語法の 基礎》,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 龍宇純著·梁東淑, 1987, 《中國文字學》, 學研社
- J. Gonda著·정호영譯, 1986, 《산스크리트어 문법》, 한국불교연구원.
- 渡之珍著·김현철外譯, 1997, 《중국어언어학사》, 신아사.
- 顧義生外著·韓鏡鎬譯, 1994, 《漢語音韻學入門》, 學古房, 서울.
- 劉伶·黃智顯·陳秀珠篇, 김용운·한중호譯, 1994, 《漢林叢書》2,
중문출판사, 대구.
- 文敏奎, 1994, 《中國言語學》, 민음사, 서울.
- 張曼濤編, 民國 67年, 《佛教翻譯史論》, 人乘文化出版社.
- 種智院大學密教學會編, 昭和 60年, 《梵字人鑑》 名著普及會, 東京.
- 蔣述卓, 1993, 《佛經傳譯與中古文學思潮》, 江西人民出版社, 江西省.
- 喬坂順一著, 鄭憲哲譯, 1986, 《中國語學入門》, 고려원, 서울.
- 任繼愈, 1991, 《佛教史》, 中國社會佛學出版社, 北京.
- 南懷瑾, 《中國佛教發展史略》, 1996, 復旦大學出版社, 上海.
- 蔣維喬, 《中國佛教史》, 民國 79, 常春樹書坊, 臺北.
- 藤堂明保, 《中國語學論集》, 昭和 62年, 汲古書院, 東京都.
- 王超英編, 1993, 《周祖謨學術論著白選集》, 北京師範學院出版社, 北京.
- 胡乃羽編, 1991, 《季羨林學論著白選集》, 北京師範學院出版社, 北京.
- 中村元著·金知見譯, 1985, 《佛陀의 世界》, 김녕사.
- 林玉山, 1992, 《中國辭書編纂史略》, 中州古籍出版社.

〈論文〉

- 羅常培, 〈知徹澄娘音值考〉, 民國 21, 國立中央研究所 歷史語言研究所
集刊 第二本 第四分.
- 林卡堂, 〈讀江榮寶歌戈魚 虞模古讀考書後〉, 國學季刊 1권 3호
- 竺家寧, 1991, 〈佛教傳人與等韻圖的興起〉, 國際佛學研究創刊號.
- 羅常培, 〈梵文顎音五母之藏漢對音研究〉, 國立中央研究院歷史言語
研究所 集刊 第三本 第二分.

- 羅常培, 1931, 〈敦煌寫本守溫韻學殘卷跋〉, 國立中央研究院歷史言語研究所集刊 第三本 第二分.
- 杜其容, 民國 55, 〈陳澧反切說申論〉, 書日季刊 8卷 4期.
- 王曉毅, 〈漢魏佛教與何晏玄學關係之探索〉, 中華佛學學報 제6기.
- 劉復, 民國 12, 〈守溫三十六字母排列法之研究〉, 國立北京人學國學季刊 第一卷 第二號
- 姚鶴年, 1953, 〈守溫州六字母新證〉, 大陸雜誌 第6卷 第11期.
- 武億, 民國 24년, 〈授堂文鈔〉, 商務印書館.
- 周法高, 〈玄應反切考〉, 中國言語學論文集
- 潘尊行, 〈反語反音辨〉, 國立中山大學 文史研究所輯刊 第一卷 第一冊.
- 陳寅恪, 民國 23, 〈四聲三問〉, 清華學報 제9권 제2기, 國立清華大學 清華學報編輯部
- 陸志韋, 1939, 〈三四等與所謂喻化〉, 燕京學報 26期.
- 陸宗達, 〈慧琳一切經音義 引用書索引跋〉, 國學季刊 제6권 제1호.
- 江榮實, 民國 20, 〈歌戈魚虞模古讀考〉, 國立北京人學 國學季刊 제1권 제2호.
- 聶鴻音, 1995, 〈慧琳經音研究〉, 中央民族學院學報.
- 季羨林, 1948, 〈再談[浮屠]與[佛]〉, 中央研究院歷史言語研究所集刊 第25本 第5期.
- 周法高, 1967, 〈從玄應音義考察唐初的語音〉, 學原, 第二卷 第三期.
- 戴明揚, 民國 20, “編訂慧琳一切經音義 引用書索引之經過一”, 國學季刊 6卷 1號.
- 施向東, 1983, 〈玄奘譯經者中的梵漢音知唐初中原方音〉, 語言研究 제1기.
- 鋼和奉著·胡適譯, 民國 11, 〈音譯梵書與中國古音〉, 國立北京大學 國學季刊.
- 李志夫, 〈佛教中國化過程之研究〉, 中華佛教學報 제8기
- 陳定民, 民國 22, 〈慧琳一切經音義中之異體字〉, 中法大學月刊.

- 周法高, 1968, 〈論切韻音〉, 中國文化研究學報, 香港中文大學.
言語歷史學研究所, 1928, 〈切韻專號〉 제3집 제20 5,6,7期合刊,
國立中山大學 言語歷史學研究所.
- 郭錦桴, 1993, 〈漢語與中國傳統文化〉, 中國人民大學出版社.
- 黃淬伯, 1930, 〈慧琳一切經音義反切聲類攷〉, 史語所集刊.
- 谷響, 〈漢譯佛典原本雜談〉 · 《大藏經研究所編(上)》,
大乘文化出版社.
- 姚寶賢, 〈佛教入中國後之變遷及其特質〉 · 《現代佛教學術論書》
《中國佛教史論集(一)》, 大乘文化出版社.
- 王力, 1982, 〈玄應《一切經音義》反切考〉, 語言研究 第一期, 總第2期
- 羅莘田, 〈中國音韻學的外來影響〉, 東方雜誌 제32권 제14호.
- 徐時儀, 〈試論慧琳《一切經音義》在近代漢語詞彙研究中的價值〉,
《語言文字學》, 中國人民大學 書報資料中心.



中文提要

漢譯佛典在漢語音韻學中最重要意義是對音韻發展的影響和提供音韻資料。漢語音韻學是在後漢時代，隨着佛教傳入，受梵語促進才發展起來的一門學科。毫無疑問，漢譯佛典對漢語語言學有着重要的價值，對漢語的發展變化也有着很大的貢獻。

由於佛典語音有着廣泛的影響力，因而研究這個選題有着重要的意義。本文着重證明佛典語音的重要性和特征。

漢譯佛典的語音主要是在翻譯佛教經典的過程中形成的，因而有必要將佛教經典的翻譯史簡單地回顧一下。中國翻譯佛經已有1000多年的歷史了，其間總共翻譯了佛典2000多種，計6000多本，為中國文化作出了很大的貢獻，其規模和影響也都是很大的。

從東漢和西晉時代開始譯經，積累了不少翻譯佛經的經驗，打下了很好的基礎，其中佛教語言和漢譯進一步以更大的規模發展並顯出了比較的成熟的面貌。隋唐宋時代，佛典的譯經活動達到最高峰，差不多所有的經論都已翻譯完畢。

漢譯佛典語音對漢語的影響確實很大，其中最重要的是印度的悉曇學（聲明學）影響了漢語的語音系統，這是促進並改變中世漢語的關鍵。由於悉曇學的傳入而形成的漢語的聲調、字母系統及反切、等韻圖等至今還發揮着作用。反切及四聲是在古代印度的摩多和體文合成造字的梵語學傳入時，中國學者由於譯經或者誦讀的需要而創造的，字母及守溫36字母是在經過整理後，把中國沒有的音省略掉，增添了印度沒有而中國才有的音，總結成36個字母，概括了中國所有的語音。等韻圖也可以在佛典中找到淵源。

玄應編的《一切經音義》25卷總括了唐初的音，其後隨着譯事業的進

行，經·論也多起來了。因此，慧琳綜合前人編的音意書而編了《一切經音義》100卷。以後，希麟再把未記載的資料編《續一切經音義》10卷。

如果沒有悉曇學的傳入的話，漢語的語音不會有那樣突破性的發展和變化。這樣的音譯書不但是音韻學者的寶貴資料，而且由于引用了外典經學，研究古經學的學者也提供了很重要的資料。

本文通過論述佛典語音的重要性，希冀能拋磚引玉，對今后的進一步研究提供啓發。



又訓解之末兼辯六書庶因此而識
彼聞一以知十師二十餘載傍求典
籍備討經論孜孜不倦修緝為務以
建中末年荆制裂至元和二祀方就凡
一百軸具釋眾經始於大般若終於

一切經音義卷第一

第九張

曰

護命法摠一千三百部五千七百餘卷
舊兩家音義合而次之標名為異宋兩
謂玄應浩然如海吞眾流以成深皎
蕙苑等若鏡照羣物以無勸元和十二年
二月三十日絕筆於西明寺焉審以

一切經音義卷第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頗好文字擇善從之許為不請之師
自媿未成之器因啓其卷乃告厥功
認以微才叙之云介

一切經音義卷第一

翻經沙門慧琳

撰

音三藏聖教序并大般若經序卷

一切經音義卷第一

第十張

曰

大唐三藏聖教序

太宗文皇帝製

慧琳音

二儀 魚羈反易上繫日易有太極是生兩儀顧野王云二儀謂天地也法象也毛詩傳云儀正也說文度也從人義聲也說文又解義字從羊從我我字從手從戈下從禾者非也羈覆載 上敷務反見韻英秦音也音居宜反諸字書音為敷救反吳楚之音也賈逵臨國語云覆蓋也蔭也說文從石復聲也石音示頁反從口口音見二下覆

續一切經音義卷第一

燕京崇仁寺沙門希麟集

大乘理趣六波羅蜜多經卷第一

大補上從益反蒼韻篇云大巨也易曰大哉乾元
 也釋類云凡物未離刻曰費玉琢云璞真也猶氣
 像未分也莊子云純朴不殘孰為犧輪又曰犬養
 模以為器工匠之罪也家萬賴字無怨反合什方
 道德為仁義聖人之過也萬賴字無怨反合什方
 萬今作萬本蟲名州名入姓也相承借為萬字
 落大反乘器名也說文云大蕭卜蕭郭璞注介
 寸一名蕭二十三管長尺四寸小者十六管長尺二
 也非粉綸也上芳文反廣雅云粉衆多自也考聲
 此用粉綸也下律也反易曰綸經理也註太玄經
 云綸裕也今按粉綸即雅運交絡盛自也
 說文二字並從糸分命聲也糸音覓也
 王反切韻云日初出也說文日出也方聲云
 旭明也從日九亦聲也下仁一反說文曰實也
 大陽精不虧也從口一聲也處賓國名或云个至
 口音雨非反像口五之形也
 靈輻亦云迦葉伽羅皆梵語訛轉也正云竭涸
 羅此翻為阿誰入謂此國未建都時有大龍池人
 莫敢近也有一羅漢見地勢宜人居止從龍乞
 容一勝地時記許之羅漢變身漸大膝滿龍乞
 以言信捨之而去羅漢復以神刀誅賊人因有此
 城郭衆人咸言我等不復畏神刀誅賊人因有此
 語乃立空晉從允工聲下符仲反字書云理也考
 國名今按空晉一字切韻云棟祭上古杏反亦雅
 韻也今按空晉一字切韻云棟祭上古杏反亦雅
 立略也鄭註禮記云平耕也薛註東都賦云棟
 真不識密也釋文大略也二字並從木更既聲
 伽梵上傍各反梵語或云婆伽婆亦云阿伽伴正
 門慈琳云古譯為世尊謂世出世間尊重故又
 十院之中第十院也大智度論云如來尊號有無

大 表 聖

續一切經音義卷一

量名略音六種謂自在煖遠端嚴名稱吉祥尊貴
 今言薄伽梵具此六義故翻極者但存先諸也
 迦蘭多迦釋迦音於首說轉也正云鴉那迦此
 譯云好聲鳥謂王舍城側有大竹林此鳥多棲
 此大林中因以為名前說此迦蘭多鳥多棲
 僧企耶阿僧祇此譯為無央數謂數之盡名也古
 華嚴音義云一百二十數中無央數當一百二十
 也又依小乘數慈思法師引俱舍說本數六十傳
 失其八無央數當依怙上於布反論語云依於切
 第五十二教也依怙上於布反論語云依於切
 也說文從二人相依倚會意字也下胡古反余
 云怙恃也轉詩外傳云怙賴也毛詩云無父何怙
 從心古羈鞅上居宜反字書云絆也韻集云絡馬
 鞅也又云牛項索也字從革央聲也明星上說文
 下於兩反玉羈云強也切韻云車鞅也明星上說文
 明祭也從日作明古文從日作明三體皆通經典
 多用古文明字因音鬼未反下星字古文作星
 雅曰明星謂之啓明郭璞注曰大白星也
 也晨見東方為啓明昏見西方為大白星也
 音復余雅曰逆流而上曰沂泗郭注云謂迦囉
 旋者也三蒼云瀛梁也謂河海旋流處也
 中離古反或云迦囉亦云金翅亦名龍突按起世經云金翅
 鳥與龍各具四生卵生金翅鳥只食卵生龍以力
 小故乃至化生金翅鳥具食四生龍以力大故
 餘二生優者上力主反避俗譯作此音本音耶果反
 律知裸者上華耳反避俗譯作此音本音耶果反
 果從裸字音從野王云裸者脫衣袒也說文從衣
 左傳云耳不聽五音之和謂之聾杜預云聾者
 說文從耳龍形聲也經文作聾不成字也下鴉
 反考奉云不能言也雖有聲而無聲也古今正字
 作啞音厄笑翹翹上音同下音兩音註國語云水
 聲也非經義翹翹佐媿鬼也淮南子云翹翹狀如

馬 八

亦通用字
齋中 音齊說文肚齋也下從肉齊聲

大方廣菩薩十地經一卷 惠琳撰

薩埵 都果反梵音唐云有情也 跋陀婆羅 上之麻反下

梵語有言賢護此賢 切中千佛之一也 瞻蔔 蒲黑反梵音

西國花多 澄晴也 嘉瑞 上音加下無謂反頤也王云王者成德感乎此

一切經音義卷第十四 第十五張 城

坤故天地應之以信瑞說文以 峻險 上音後反

玉為信也從玉崑聲音端也 孔注尚書峻高大也說文作陵峭高也從阜

聲亦作峻從下赤檢反賈注國語云險危也方言高也說文阻難也 從自余聲余音婁廉反

諸菩薩求佛本業經二卷 惠琳撰

盡斲 斲績反方言斲亦盡也經本作斲謂物空盡也說文水也從水斲聲

也 饋遺 上遺音反鄭注禮記云饋歸也謂進物於尊者也說文餽也從

食責聲下惟季反顧野王云遺饋也廣雅與也說文從辵夨聲也 因 垣

丁奚反帶揮名也或言因 提同一義也梵言輕重耳

菩薩本業經一卷 玄應撰

不僑 奇騎反經中多作不踰樂天也 見邛 丁禮反說文屬巖舍

也蒼頡篇云邛舍也亦通語也

一切經音義卷第十五 第十六張 城

大方廣佛花嚴經四十二字觀門經 惠琳撰

阿 取上聲 囉 羅字上聲 跛 跛可反 左 上聲

鼻中 擢 擢可反 娜 那可反 麼 莫可反 拏 莫可反

俾 俾反 灑 沙勇反 縛 無可反 多 取上聲 野 音也

瑟 二字合為 迦 取上聲 他 取上聲 惹 取上聲

琴 莫朗反 譏 魚迦反 他 取上聲 惹 取上聲

編鳩之小者也後禮日出如**馬蹄**芳
 又水未及諸相似也見不審謹也
 古文作時時說文仍佛並同用也**大船**
 滿百反押蒼大船也大者良**懷弱**來揀
 二十文載大七百入者見也
 蒼悞即**源言刀刀**克母反通恪文
 弱也聲類不克妄言也經文
 多作調棄讀字尚訛同悞言也**挫觸**直康

一切經音義卷第五 第七五張 城

又說文云柱也何承天案文六柱編也
 又作般般二體同經文多作般非也
次辯文字功德及出生次第其亦詳明
梵經之何祭釋廣六文字以辨云譯異
 佛說諸佛按經方始差別義理無窮欲言無
 盡或云常住言常住者梵字稱得甚淨諸國
 文字不同此例何者如東夷南蠻西域北狄
 及諸胡國所著文字迥異小聖乘于彼亦話

一切經音義卷第五 第七五張 城

甘惡陽各反正
 及體惡字也
已上十二字是翻梵字之聲勢也
 於此十二音外更添四字用補巧聲源文處
 用翻字之處輒不常用用亦不得所調上上
 聲機釋舌之難專用取七聲引力捏聲力去
 聲長引不轉去此四字即經中古譯音習處
 妻是也後有三十居法反又**法**堆也
 四字名為字母也**迦**取上聲反**法**堆也

一切經音義卷第五 第七五張 城

字取上聲益**識**魚迦反**伽**準質反和
 音丘於反
 仰宜軟反無鼻音**左**藏可反**璣**倉可
 轉音央而反
 嗟我嗟莫賈反**孃**女兩反**誇**
 反西引聲重**孃**轉鼻音
 陝莫陀州賈**荼**荼夏反**孃**
 反莫陀州賈**荼**荼夏反**孃**
 俾雅反**禪**少可**佗**他可反他字上聲
 兼鼻音**禪**反**佗**正體他字也

言儀說文字後運南虎三穴走時也皆整
 前劫後劫皆用一梵天王所說設經百劫亦
 不聖別故女常住慈有五十字從初有一十
 二字是翻字聲勢以有三十四字名為字母
 陰別有四字名為助聲稱呼梵字亦五音倫木
 陰明鮮齒唇吻等聲則迦去發揮跋玉響之
 下又各有五音即如法成伽仰乃至破頓應
 潔恭皆從保向淺亦如以國五音宮商角徵
 羽五音之內又以五行相乘軒之以清濁察
 之以輕重以陰陽二氣揀之萬類變別老能
 知矣故易曰觀乎天文以察時變觀乎人文

一切經音義卷第五 第七五張 城

以化成天下即其裁也經言十四音者是譯
 經主量無識法師依龜語國文字印捨不同
 用字華別也若依中天竺國音旨其實實
 不亦今刀旗說列之如古智者審詳**掇**
 阿可**阿**阿箇反阿字**賢**伊以反加
 反去聲兼引**烏**烏古反或**汚**去固反引
 去聲兼引**與**作郎亦通**汚**擊牙開不
 關**翳**嬰計**愛**哀蓋反引聲**汚**太開牙
 引聲難即重用汚**與**阿告反**暗**替結反
 字其中開合有異**與**引聲**暗**替言阿

一切經音義卷第五 第七五張 城

掖那我**馱**施質**曩**乃朗反**跋**收可
 反及**馱**反重**曩**真音**跋**反
 頤破我**麼**莫我反**伎**婆質反**麼**勝世
 反及鼻**野**如本字**囉**囉字上聲華**訶**可
 音也音也**囉**囉字上聲華**訶**可
 反轉舞可**捨**尸也**灑**必反賈**縑**柔可
 反及**何**反**乞**灑此一字不同衆例也
 已上三十四字名為字母野字囉字已下九
 字是歸本之聲從外向內女上所音梵字並

一切經音義卷第五 第七五張 城

依中天者音翻之只為古譯不分明更如說
 說疑誤後傳此經是北涼小國文始四年歲
 次乙卯當漢晉義熙十一年曇無讖法師於
 姑臧忽造此國胡本文字翻譯此經遠向中
 天音言不同取捨異別言十四音者端之甚
 矣誤除暗惡兩聲錯取魯宮塵妻為蒙所以
 言其十四未審如何用此翻字龜茲向中天
 相去隔遠又不承師訓者鮮用中天文字字
 以準遠故有諸經或說已經三百八十餘年
 竟無一人能正此失昔先賢造安法師於秦
 而師東晉劉德有言日譯經有五失三不